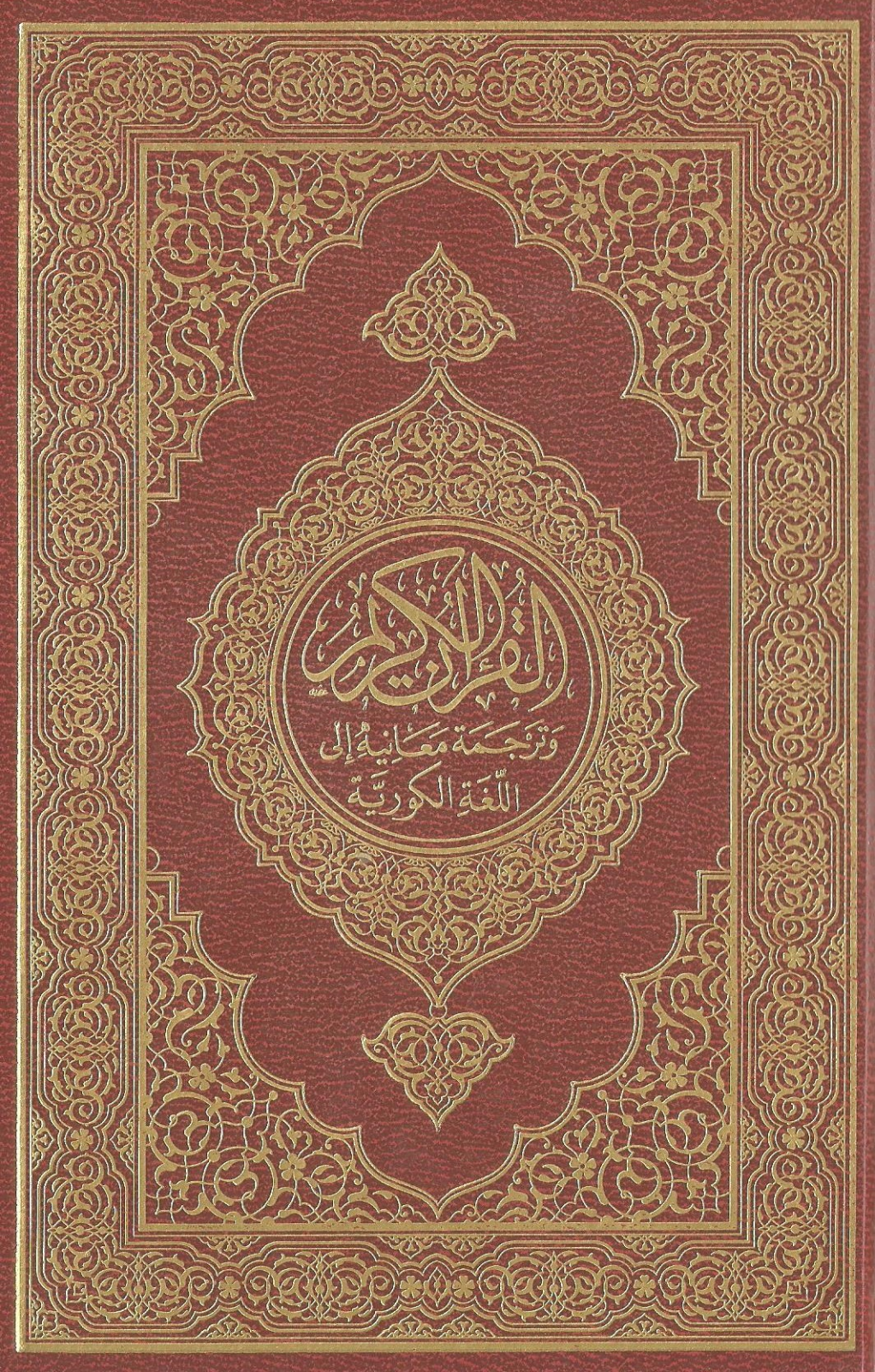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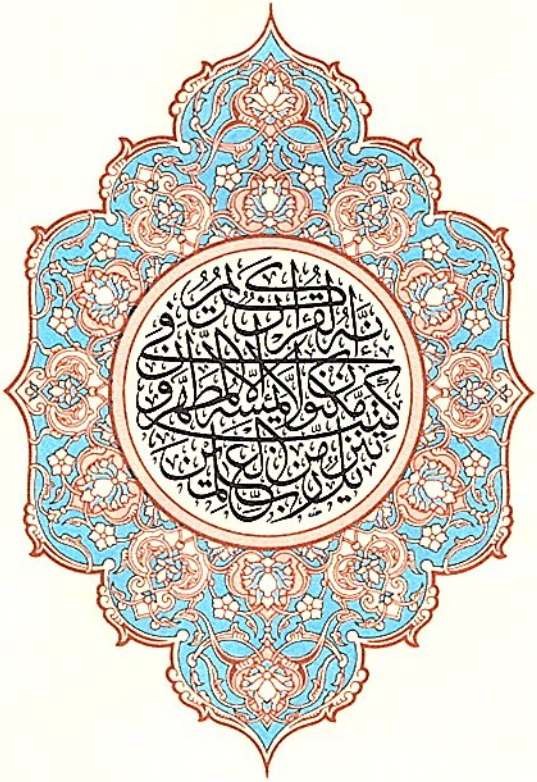

القرآن الكريم
وترجمة معانيه إلى
اللغة الكورية

성 꾸란

의미의 한국어 번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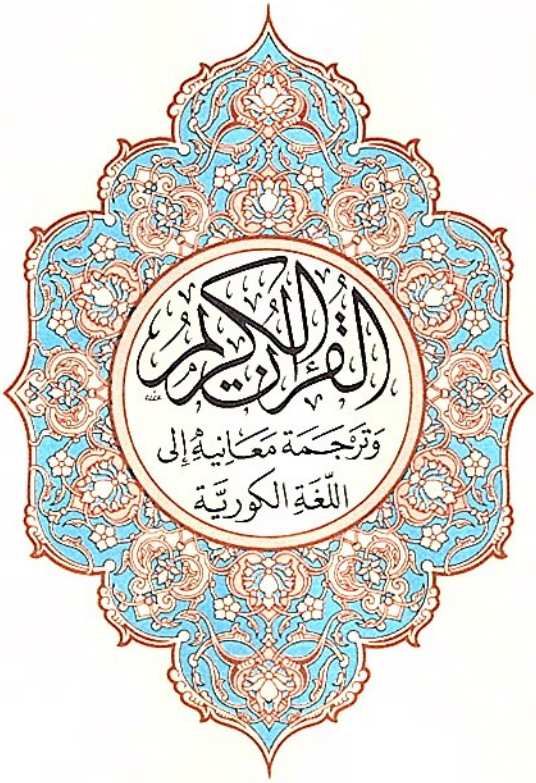
إِنَّا نَحْنُ نَزَّلْنَا الذِّكْرَ وَإِنَّا لَهُ لَحَافِظُونَ



تشرف بالاشتراك في طباعة هذا المصحف الشريف وترجمة معانيه
خادم الحرمين الشريفين الملك فهد بن عبد العزيز آل سعود
ملك المملكة العربية السعودية

هذا المصحف الشريف وترجمة معانيه

هدية من خادم الحرمين الشريفين الملك فهد بن عبد العزيز آل سعود



مجمع الملك فهد لطباعة المصحف الشريف

본 성서와 의미번역은

두 성지의 수호자이신 파하드 이븐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왕의 선물입니다

성 꾸란

의미의 한국어 번역

파하드 국왕 꾸란 출판청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مقدمة

بقلم معالي الدكتور : عبدالله بن عبدالمحسن التركي
وزير الشؤون الإسلامية والأوقاف والدعوة والإرشاد
المشرف العام على المجمع

الحمد لله رب العالمين ، القائل في كتابه الكريم :

﴿ ... قَدْ جَاءَكُم مِّنَ اللَّهِ نُورٌ وَكِتَابٌ مُّبِينٌ ﴾ .

والصلاة والسلام على أشرف الأنبياء والمرسلين ، نبينا محمد ، القائل :

((خيركم من تعلم القرآن وعلّمه)) .

أما بعد :

فإنفاذاً لتوجيهات خادم الحرمين الشريفين الملك فهد بن عبدالعزيز آل سعود ، حفظه الله، بالعناية بكتاب الله، والعمل على تيسير نشره ، وتوزيعه بين المسلمين في مشارق الأرض ومغاربها، وتفسيره، وترجمة معانيه إلى مختلف لغات العالم .

وإيماناً من وزارة الشؤون الإسلامية والأوقاف والدعوة والإرشاد بالمملكة العربية السعودية، بأهمية ترجمة معاني القرآن الكريم إلى جميع لغات العالم المهمة ، تسهيلاً لفهمه على المسلمين الناطقين بغير العربية ، وتحقيقاً للبلاغ المأمور به في قوله ﷺ : ((بلّغوا عنّي ولو آية)) .

وخدمة لإخواننا الناطقين باللغة الكورية، يطيب لمجمع الملك فهد لطباعة المصحف الشريف بالمدينة المنورة ، أن يقدم للقارئ الكريم هذه الترجمة الكورية التي قام بها فضيلة الشيخ الدكتور حامد تشوي يونغ كيل .

ونحمد الله سبحانه وتعالى، أن وفق لإنجاز هذا العمل العظيم الذي نرجو أن يكون خالصاً لوجهه الكريم، وأن ينفع به المسلمين .

إننا لندرك أن ترجمة معاني القرآن الكريم، مهما بلغت دقتها، فإنها ستكون قاصرة عن أداء المعاني العظيمة التي يحويها النص القرآني المعجز، وأن المعاني التي تؤديها الترجمة إنما هي حصيلة ما بلغه علم المترجم في فهم كتاب الله الكريم، وأنه يعتريها ما يعتري عمل البشر كلّه من خطإ ونقص.

ومن ثم نرجو من كل قارئ لهذه الترجمة أن يوافي مجمع الملك فهد لطباعة المصحف الشريف بالمدينة النبوية، بما قد يجده فيها من خطإ أو نقص أو زيادة للاستفادة من هذه الملاحظات في الطبعات القادمة إن شاء الله .

والله الموفق، وهو الهادي إلى سواء السبيل .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 문

압둘라 이븐 압둘무흐신 투르키
이슬람 · 이슬람기금 · 선교부 장관
파하드 왕 꾸란 출판청 총감독

만유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분은 성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빛과 성서가 여러분에게 도래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언자이며 하나님의 사자인 무함마드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복을 받을 사람은 꾸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두 성지의 수호자이신 파하드 이븐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왕께서 하나님의 책을 보호하고 꾸란의 출간을 촉진하여 전세계 무슬림들에게 배포, 꾸란 의미 해석, 그 의미를 전 세계의 다양한 언어로 번역하라는 지침을 내리셨습니다.

사우디 아라비아 왕국 이슬람 · 이슬람기금 · 선교와 교육을 주관하는 부처는 꾸란의 의미를 전세계 주요 언어로 번역하여 비아랍인 무슬림이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하고 전파하는데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언자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나를 대신하여 꾸란의 한마디라도 전해야 합니다))

메디나 소재 파하드 국왕 성 꾸란 출판청은 한국어를 사용하는 독자들에게 최영길 박사가 번역한 한국어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면서 이 훌륭한 작업이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사업으로 성공리에 마무리 되어 무슬림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간이 최선을 다하여 꾸란의 의미를 번역한다 해도 신비스러운 꾸란의 원본이 담고 있는 위대한 의미를 모두 번역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번역 작품이 전달할 수 있는 것이란 고작 번역자가 하나님의 책을 이해하고 있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결국 인류 모두가 수행한다 하여도 오류를 범하게 되고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번역서에서 발견되는 어떤 형태의 오류나 빠진 부분, 첨가된 부분을 메디나 소재 파하드 국왕 꾸란 출판청에 알려주시기를 독자 여러분 모두에게 부탁드립니다. 지적한 부분은 다음 출간시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꾸 란

1. 개 요

꾸란 학습이나 연구 또는 독서를 시작하기 전에 꾸란은 다양한 일반 서적들과는 전혀 다른 성서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유념해 두어야 한다. 일반 서적과는 달리 꾸란은 어떤 개념이나 사상, 그리고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한 논평을 담고 있는 서적이 아니다. 그래서 꾸란에 처음 접근하는 이들에게는 바로 그 점이 낯설고 이상하며, 개인의 생각과 철학을 발견하지 못할 때는 당황하고 좌절한다. 그와는 반대로 꾸란에는 이전에 인식하지 못한 그 어떤 무엇이 담겨져 있고, 그가 갖고 있는 개념이나 착상과 일치하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담겨져 있다. 독자는 꾸란이 신앙의 원리를 다루고 도덕과 윤리를 제시하고 있으며, 법을 제정하고 모든 인류를 이슬람으로 초대하면서 역사적 사건들을 교훈으로 창조주의 존재를 거역하는 불신자들에게는 경고를, 그리고 받아 들이는 신앙인들에게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아름답고 조화있게 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동일 주제가 서로 다른 방법으로 반복되고 아무 뚜렷한 이유없이 곧 다른 주제로 연결되고 있다. 화자와 피화자가, 그리고 이야기의 방향이 아무런 예고없이 전환되고 있다. 역사적 사건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역사서와는 다르게 제시되고 있다. 철학이나 형이상학의 제 문제들도 주제를 다룬 교과서의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인간과 우주에 관해서도 자연과학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언급되고 있다. 이와같이 꾸란은 문화, 정치, 사회 그리고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꾸란의 독자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법의 원리와 법의 규정도 사

회학자, 변호사 및 법률학자들과는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 도덕과 윤리 또한 제반 문학속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과는 같지 않다.

바로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경솔한 독자가 일반서적을 통하여 얻은 지식이 이미 그의 머리속에 인식되어진 것과 모순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당황하고 좌절하는 이유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그 독자는 꾸란이 무질서 하고 주제의 연속성이 없으며, 논리가 서지않는 방법으로 잡다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한 서적에 불과하다고 느끼기 시작한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상대자들은 꾸란에 이상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일부 현대인들은 그들의 이러한 의혹과 반대 의견을 정당화 하기위해 이상한 고안들을 창출해내고 있다. 이상한 해석을 덧붙이거나 때로는 꾸란절 사이를 접속시켜 비논리적인 것들을 조작해내고, 때로는 꾸란이 아무런 질서나 조화가 없는 잡다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처럼 유도한다.

이러한 일은 독자가 꾸란이 하나의 유일한 성서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아니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다른 서적들과 달리 꾸란은 다루어야 할 주제, 그리고 성취하려 의도한 목적을 이론화 하지 않고 있다. 문제와 어떤 사실을 설명하는 꾸란의 방법이 일반적으로 읽혀지고 있는 서적들과는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어떤 책의 문체나 서술 방법을 따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고려하여 둘 것은 꾸란이 종교에 관한 한권의 일반 서적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것이 한 독자가 일반 서적에 대한 상식을 가지고 꾸란에 접근할 때 꾸란의 문체나 제시방법에 당황하는 또 하나의 이유다. 독자는 여러 곳에서 배경설명이 언급되지 않고, 꾸란의 특정 구절이 계시된 상황과 환경이 진술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한다. 이러한 것들의 이유 때문에 일반 독자는 꾸란속에 내재되어 있는 가장 값진 보물을 충분히 발견해 내지 못한다. 이러한 독자들은 꾸란의 특수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꾸란의 이곳 저곳에 흩어져 있는 잡다한 주제들만을 발견하고서 꾸란의 내용이 어렵다고 한다. 더 나아가 그들에게는 그 뜻과 내용이 명백한 것 마저도 전혀 다른 엉뚱한 의미로 보일 것이다.

이러한 모든 의혹과 의심, 그리고 어려움으로부터 독자가 구제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의 손에 있는 그 책이 원어로 존재하는 유일한 성서라는 것과, 그러므로 그 책의 문체가 일반 서적들과는 다를 수 밖에는 없고, 그것의 주제가 독특하여 일반서적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서는 꾸란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할 때에 가서야 비로서 꾸란에 대한 이해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꾸란을 일반 서적으로 간주하는 선입관으로부터 해방되고, 본서의 독특한 문체와 주제에 익숙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독자는 꾸란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꾸란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꾸란의 성질, 핵심, 목적, 그리고 주제를 아는 것이 필수적 조건이다. 마찬가지로 문체, 사용되고 있는 용어 및 사물을 설명하는 방법 등에도 익숙해져야 한다. 또한 어떤 계시가 있게 된 배경과 환경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한다.

2. 하나님의 지침서

독자는 우선적으로 꾸란의 본질을 이해하여야 한다. 비록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성서로 간주되든 아니든 간에 독자는 먼저 꾸란이 무함마드를 통하여 제시된 신성한 지침서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을 것이다.

우주를 창조하고 우주의 운행과 질서를 주관하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한 후 그에게 능력을 부여하여 배우고 말하며 이해하는 지혜를 부여하였는가 하면 부정으로부터 진리를, 악으로부터 선을 분별하는 식별력도 주었다. 더불어 신은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비롯하여 사물에서 지식을 얻고 활용하는 권능까지 주었다. 간략하여 묘사한다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일종의 자율을 주었고, 지상을 다스리는 신의 대리권을 주면서 하나님의 지침서에 따라 삶을 영위하도록 하였다.

인간을 지상의 대리자로 임명하였을 때 인간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인가를 인간에게 경고하였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요 주권자라. 또한 우주를 관리하는 주관자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만을

경배하되 그밖의 것은 절대 아니 되니라. 너희는 내 왕국안에서 결코 독립할 수 없으며,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지 못하니라.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 일정기간 능력을 부여받은 예언자들을 지상에 보냈으니, 그 이후에는 너희 모두가 내게로 귀의할 것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지상에서 행한 행위의 결과를 내가 심판하고, 너희가 시험에 합격하였는지 아니면 실패하였는지를 결정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의 올바른 여정은 스스로 나를 주권자로서 받아들이고, 나만을 홀로 경배하며, 내가 너희에게 보낸 지침서에 따라 행동하면서 지상에서 사는 그 기간은 시험 기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믿고 이해하는 것이라. 현세 삶의 진정한 목적은 최후의 심판에서 성공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침서를 준수하고 따르라 다른 과정은 그릇된 것이라. 너희가 전자의 여정을 선택한다면 너희가 현세에서 평안하고 화평하게 살 것이요 내세에 가서는 영원한 축복과 기쁨을 만끽할 것이나, 후자를 선택한다면 현세에서도 나의 대접을 받지 못할 것이며 내세에 가서는 영원한 슬픔과 고통의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라."

이러한 경고와 함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최초의 인간으로 지상에 보내면서 후손들이 지상에서 지켜야 할 지침서를 보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인간은 밝은 광명속에서 살 수 있는 법을 부여 받았다. 이 광명과 그 법이 바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 분에게만 순종하는 이슬람이다. 현세를 떠나기 전에 스스로가 그 법을 실천하고 동시에 후손들을 가르쳐 하나님의 종 무슬림으로서 삶을 영위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그러나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인간들은 이슬람의 길에서 이탈하여 서로 다르고 왜곡된 길을 걷게 되었다. 태만과 무관심으로 그 복음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서에다 인간의 생각을 더하였거나, 그 복음의 내용을 변절시켰거나, 때로는 그 복음의 일부를 삭제하여 버렸다. 거기에다 하나님의 권능과 속성을 다른 것들에 비유하여 여러 가지 형태와 다양한 종류의 미신을 혼합한 종교를 만들어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복음과 진리 및 정의 그리고 윤리의 본질들을 버렸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생활규범으로 만들어 그들의 편견과 욕망에 따라 합리화 함으로써

자신들을 기만하고 세상을 혼돈과 죄악으로 가득 채웠다.

이러한 상황은 실로 슬픈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패한 저들로 하여금 올바른 길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부여한 한정된 행위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은 그분을 거역한 죄인에 대해 즉시 심판을 아니 하신즉, 이는 현세의 삶을 시험의 기간으로 두셨기 때문이다. 인간이 지상에서 삶을 시작했을 때부터 하나님의 복음전파는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수락하여 준수하는 것과 거역하는 것은 인간에게 위임되어 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한 복음을 준비하신 후 사람 중에서 선지자들을 선택하신 후 진리와 삶의 올바른 방법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그들에게 부여하셨다. 그들로 하여금 방황하는 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선지자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믿었으며, 그분으로부터 수여 받은 그 지침서에 따라 행동하였다. 서로 다른 국가와 서로 다른 민족 가운데서 수천년 동안 수천명이 선택되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유일성과 내세관에 근본을 둔 종교를 갖고 있었다. 그들 모두는 지상에서 처음으로 삶을 시작한 최초의 인간에게 가르쳤던 동일한 삶의 방식을 가르쳤다. 그들 모두는 최초의 인간을 위해 제정한 도덕과 윤리의 근본 그리고 문화를 설명하여 하나님의 지침서를 준수하였다. 그들 모두는 유일신 교인들로서 하나이며, 동일한 임무를 가지고 있었다. 그 임무는 모든 인간을 동일한 복음으로 초대하여 하나의 공동체 구성원으로 만드는 일이다. 이들의 초청을 수락한 모든 인간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신의 지침서를 준수하고 하나의 공동체 구성원으로 최선을 다하며, 부정한 일에 대항하여 최선을 다해 대처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

선지자들은 주어진 기간 동안 그들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 그러나 다수의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초청을 수락하려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 구성원이 되었던 교파들마저도 점차 부패하여 갔으니 유감스러운 일이다. 설상가상으로 이들 공동체 가운데 일부는 그 지침서 전체를 잃어버렸거나 하나님의 계명을 변조하였거나 인간의 사상을 혼합하고 때로는 그 계명의 일부를 삭제하여 버렸다.

이로 말미암아 창조주는 무함마드를 마지막 선지자로 선택하여 모든 선지자들에게 부여하였던 임무들을 그로 하여금 완성케하려 하신 것이다. 그는 모든 인간을 초청하고 올바른 길을 따라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계율을 수락한 모든 이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구성하여 율법에 따라 공동체의 삶을 인도해야 할 임무를 받았다. 무함마드에게 계시된 그 꾸란이 바로 복음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성서이다.

3. 핵심 주제

위에서 꾸란의 본질을 이해하였다면 그것의 핵심, 목적과 대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다루고 있는 주제의 대상은 인간이다. 인간의 삶을 통하여 진정한 성공과 완전한 패배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꾸란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핵심 주제는 사실제시오, 올바른 길로 초대하는 것이다. 사실이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상의 대리자로 임명할 때, 그분께서 아담에게 계시했던 것과 동일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담 이후 모든 선지자들에게 계시했던 것과도 같은 것이요, 모든 선지자들이 가르친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꾸란은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이 사실에 모순되는 이론들은 인간들이 창안한 것들이다. 하나님에 대한 속성, 그분과 인간, 그리고 피조물과의 관계에 대해 인간이 고안한 이론들은 모두가 그릇된 것이요, 그릇된 그 이론들에 기초를 둔 삶의 방법들 또한 잘못된 것이므로 파멸을 초래한다는 경고도 꾸란의 가르침이다.

계시의 목적과 대상은 인간을 올바른 길로 초대하여 태만, 부주의 또는 유혹에 의해 잃어 버렸던 복음을 다시 찾아 주는 일이다.

독자가 이러한 기본원칙을 마음속에 염두하여 둔다면 꾸란의 문체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거나 주제의 연속성이 결여되어 공백이 있다거나 여러 다른 주제들 사이에 상호연관 관계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꾸란의 목적은 인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자연과학이나 철학,

역사나 예술 및 그밖의 학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꾸란은 후자의 주제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꾸란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을 설명하여 그것에 관해 오해와 잘못된 선입관을 제거하고 마음속에 진리를 심어주며, 그릇된 행위로 인하여 당면하게 될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경고하면서 동시에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것이다.

4. 배 경

꾸란에 제시된 여러 주제들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주제에 관해 계시된 배경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 즉 계시가 된 이유와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꾸란에 제시된 주제들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특정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사회적 배경이나 선조들과의 관계 등을 알아야 할 때도 있다. 왜냐하면 꾸란은 동일 장소와 동일 시대만을 위한 하나의 교과서로 계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함마드에게 최초로 임무를 부여할 때 기록된 한권의 성서를 넘겨주고 그것을 발행하여 삶의 특별한 방법에 따라 인류를 초청하도록 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꾸란은 논리적으로 어떤 주제를 창출하여 가는 일반 문학작품의 문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꾸란은 하나님의 독특한 문체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과 시간, 장소 그리고 서로 다른 단계에서 필요로 한 요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양식으로서 꾸란을 계시하였다.

5. 양적 분류

신앙생활은 물론 신학연구 및 이슬람법에 관계되는 제반 규범을 이해하는 지름길은 꾸란을 다독하고 정독하는 것이다. 특히 무슬림이 꾸란을 음미하고 낭송하는 것은 하나의 신성한 의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남녀노소 모두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꾸란을 낭송하고 음미한다. 꾸란 전체를 일정한 배분된 시간에 따라 편리하게 그리고 좀 더 규칙적으로 완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꾸란 전체는 30장 또는 7장

으로 균등 분할되어 있다. 30장으로 분할되었을 경우, 삼십분의 일($\frac{1}{30}$)에 해당되는 부분을 아랍아로 주즈으(al Juzu'), 페르시아어 및 우르드어로는 시파라(Sipara) 또는 단순히 파라(Para) 라고 부른다. 그래서 매일 $\frac{1}{30}$에 해당하는 분량을 읽는다면 30일, 즉 한달 동안에 꾸란 전체를 완독하게 된다. 꾸란 전체를 7장으로 나눌 경우 칠분의 일($\frac{1}{7}$)에 해당되는 부분을 만질(al Manjil)이라 부른다. 그래서 하루에 $\frac{1}{7}$에 해당하는 분량을 읽을 경우 꾸란 전체를 7일, 즉 일주일만에 완독할 수 있게 된다. 사분의 일($\frac{1}{4}$), 이분의 일($\frac{1}{2}$) 및 사분의 삼($\frac{3}{4}$)에 해당하는 분량은 아랍어 발음에 따라 각각 루브으(Rubu'),니스프(Nisf), 쌀라싸(Salasa)로 표시하였다. 꾸란 아랍어 원문옆에 루브으, 니스프 및 쌀라싸로 표시되어 있다.

제목에 따라 분류할 경우에는 114장이 된다. 분량은 균등하지 않다. 각 장(Sura)마다 한글과 아랍어로 각 장(Sura)의 이름이 표시되어 있다. 명칭 바로 다음에 아랍어로 표기된 숫자는 일반적으로 무슬림 학자들에 의해 수락된 연대적 순서를 의미한다. 각 장은 절(Ayat)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예로서 파티하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쑤라틀 파티하, 한글로는 제1장으로 표시하였다.

6. 편 집

꾸란을 계시한 하나님은 그 말씀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계시된 그대로 영원히 보존될 수 있도록 하였다. 무함마드를 통하여 꾸란 귀절들이 계시되면서 종려나무 잎사귀, 나무껍질, 뼈 등에 바로 옮겨졌으며, 꾸란 구절이 기록된 모든 조각들은 정돈이 되어갔다. 그 밖에도 일부 무함마드의 교우들은 자신들이 간직하기 위해 베껴가기도 했다. 동시에 무슬림들은 이슬람 초기부터 의무화 되었던 예배를 근행하기 위해서 꾸란 구절을 암송해야 했다.

선지자 무함마드 생시에 꾸란 전체를 암기하였던 많은 교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한권의 책의 형태로서 편집되지는 못했었다. 그러나 무함마드가 사망한 후 편집 작업을 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한 사

건이 발생한 것이다. 폭동같은 격렬한 배교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참전하였던 많은 교우들, 그 가운데서도 꾸란 전체를 암송한 많은 교우들이 피살되고 말았다. 바로 이때 제 2대 칼리프 우마르(Umar)는 꾸란을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변질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꾸란을 암송한 하피즈(Hafiz)들에게만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않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꾸란 전체를 정통성 있는 한권의 책 형태로 편집해야 할 필요성을 촉구하였다. 초기에 그러한 작업을 보류하려는 듯 보였던 제 1대 칼리프 아부 바크르(Abu Bakr)에게 이러한 조치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강조하였던 것이다. 아부 바크르가 편집 작업을 보류하려 했던 인상을 보인 것은 선지자 무함마드가 하지 아니한 것을 행한다는 것이 신앙적 측면에서 무거운 짐이 되지 아니 할까 하는 염려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몇 차례의 자문과 토의를 거친 후 그는 꾸란 편집 작업에 동의하고 처음에는 이 일에 관해 그의 입장과 비슷했던 제이드 빈 싸비트(Zaid bin Thabit)에게 이 임무를 위임하였다. 이렇게 하여 꾸란 편집의 역사적 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제이드는 이 편집 작업에 능력을 갖춘 가장 훌륭한 적격자였다. 그는 선지자 무함마드 생존시 서기로서 일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무함마드의 제자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완성된 꾸란 전체를 무함마드가 가브리엘(Gabriel) 천사 앞에서 암송할 때 그가 지켜보고 있었다. 편집 과정에서 우선 선지자 무함마드가 남긴 기록된 모든 조각들과 무함마드의 교우들이 소유하고 있던 자료들이 모두 수집되었다. 정통성 있는 하디스(Hadith)에 따르면 꾸란 구절을 복사하여 소유하고 있던 교우들로는 제 3대 칼리프 우스만(Uthman), 제 4대 칼리프 알리(Ali) 및 압둘라 빈 마쓰우드(Abdullah bin Masud), 압둘라 빈 아므르 빈 아쓰(Abdullah bin Amr bin As), 후자이파(Huzaifah)의 노예에서 해방된 쌀림(Salim), 무아즈 빈 자발 제이드 빈 싸비트(Muaz bin Jabal Zaid bin Thabit), 우바이 빈 카압(Ubyy bin Kaab), 아부 제이드 까이쓰 싸큰(Abu Zaid Qais As Sakn)들이 언급되고 있다. 전체를 암기했거나 일부분만 암기했던 이들 교우(Sahaba)들의 협력으로 기록된 모든 조각에 기록된 꾸란을 암송

아랍어가 아랍 세계의 공통 언어이기는 하지만, 아직 지역간 그리고 부족 간에 약간의 방언이 있다.

꾸란은 사우디 아라비아 메카 꾸레이쉬 부족이 사용하고 있었던 아랍어로 계시 되었다. 그러나 초기에는 암송의 편의를 위해 서로 다른 여러 지역 부족 또는 지역 방안으로도 꾸란을 암송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었다. 한편 꾸란의 의미에 있어서는 어떤 차이도 야기되지 아니했다. 그러나 이슬람이 아라비아 국경을 넘어서 전파되고 아랍인들이 비아랍 무슬림들과 빈번한 접촉을 갖게 되면서 아랍어가 새로운 환경요소들에 의해 점차적으로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그때 꾸란이 부족이나 지역간의 방언에 의해 여러 가지 형태로 손실되거나 첨가 및 변질되어 각 부족과 각 지역의 무슬림들에게 분쟁을 야기시키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각 부족 또는 각 지역의 무슬림들이 그들이 사용하는 방언 아랍어로 꾸란을 조작할 가능성, 거기에다 꾸란의 순수 아랍어가 비아랍인들과 접촉한 아랍인들에 의해 변질될 위험성도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제 3대 칼리프 우스만(Uthman)은 선지자의 교우들인 사하바들과 협의하여 제 1대 칼리프 아부 바크르 지시에 따라 편집된 정통 꾸란 원본만을 사용하고, 그밖에 방언으로 된 꾸란 사본들의 사용금지 명령을 내렸다. 하나의 예비조치로 장래에 어떤 혼동이나 오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원본을 제외한 그 밖의 모은 방언으로 된 꾸란 사본들을 소각시켜 버렸다. 이에 대한 실례로서 일부 사하바들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꾸란 사본 공백에다 해석 등을 기록하여 둔 것이 있었는데, 이러한 주해석이 꾸란 원본과 혼합될 가능성까지도 배제했던 것이다. 그 당시까지는 변질되거나 혼합될 가능성은 없었지만, 꾸란은 진본 그대로 안전하게 보존되어져야 된다는 신중한 의견에 따라 그러한 조치들이 취해졌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읽혀지고 있는 모든 꾸란은 아부 바크르 지시에 따라 편집된 꾸란의 진본이 복사되어 우스만이 각 지역으로 보낸 바로 그것들이다. 오늘날 전 세계 일부 대도서관에서 가장 오래된 꾸란 사본들이 발견되고 있다. 이것들이 완전히 진본과 다르지 아니하고 완전히

가의 암기와 대조하면서 검증을 하였다. 이러한 검증과 편집과정의 일부는 진본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선지자 무함마드가 소장하여 왔던 여러 도구에 기록된 꾸란, 교우들이 복사하여 소장한 것 그리고 꾸란 전체를 암기한 하피즈들의 암송 등 이 3가지가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기록하지 아니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정확하고 정통성 있는 완본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 완본을 우마르의 딸이자 선지자 무함마드의 부인이었던 하프사(Hafsah)집에 소장하여 두고 복사를 원하거나, 이미 소장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기 위해 복사를 원하는 이들은 누구나가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장(Sura)의 배열에 관해 제이드는 선지자 무함마드의 선례를 그대로 따랐다. 왜냐하면 다른 방법을 도입해서도 안되지만 그럴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가 아부 바크르에게서 꾸란 편집 임무를 위임 받았을 때 주저하였던 것도 선지자 생존시에 없었던 일들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이유로 제이드는 모든 일에 있어 선지자의 모범을 그대로 답습했던 것이다. 그래서 꾸란 각 장의 배열이 선지자 사후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선지자가 단식월 라마단(Ramadan) 기간에 가브리엘 천사 앞에서 두번이나 꾸란 전체를 암송한 순서를 그대로 따랐다. 이미 정통성 있는 하디스(Hadith)를 인용한 바와 같이 제이드는 선지자의 마지막 두 차례 암송 가운데 두 번째 암송시에 자리를 같이하고 있었으므로 꾸란의 각 장의 순서 배열을 알고 있었기에 다른 방법을 적용할 필요성이 더 더욱 없었던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꾸란 전체를 암기했던 예언자의 동료들도 역시 그 순서의 배열을 따를 수밖에 없었으니 선지자가 가르치고, 그리고 행하였던 바로 그 순서의 배열을 답습하는 길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었다.

이맘 말리크(Imam Malik) 법학자에 따르면 꾸란은 예언자의 동료들이 선지자로부터 들었던 순서에 따라 편집되었다.

7. 아랍어 방언과의 관계

보존되어 왔다는 사실에 의심을 가진 독자가 있다면, 그는 발견된 가장 오래된 꾸란과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꾸란들을 비교하여 보면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아프리카의 알제리아 서점에서 구입한 꾸란과 아세아 극동에 위치한 한국 서점에서 구입한 꾸란과 가장 오래된 꾸란을 서로 비교하여 보아도 그것들은 우스만 시절에 만들어진 꾸란 사본들과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그래도 의심이 있다면 이 세상 어느 곳에서 구입한 꾸란을 가지고 꾸란을 암송한 하피즈(Hafiz)가 암송하는 꾸란을 처음부터 끝까지 비교하여 보아도 그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오늘날 읽혀지고 있는 꾸란은 최초에 선지자 무함마드를 통하여 세상에 전해진 바로 그것이다. 꾸란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되었는가에 대해 일호의 의심을 가질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나 오늘날의 꾸란이 무함마드를 통하여 계시되었던 그 당시의 꾸란과 일점일획도 차이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정하거나 의심할 수 없을 것이다.

이슬람학 박사

최 영 길

제1장 알파티하

메카에서 계시된 7절로 자주 낭송되는 꾸란의 진수다. 몇번이고 반복해서 읽을 7절이라고 꾸란(15:87)은 언급하고 있다. 무슬림이 하루 다섯 차례의 예배를 통해서 최소한 17회 이상 암송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본장을 암송하지 않는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이바다 이븐 사미트」는 전하고 있다.

본 장은 이슬람의 기본원리를 비롯하여, 우주만물의 운행질서를 주관하는 주체자에 대한 인간의 태도, 내세관, 경배와 구원의 대상자, 인류가 걸어야 할 바른 길, 무한한 사랑과 자비의 수여자이신 하나님의 속성, 신의 노여움을 받았던 민족과 방황했던 민족에 대한 역사적 사건 등을 언급하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알파티하」 외에도 책중의 책(Ummul Kitāb), 찬양(al Hamdu), 질병의 치료(al Shifā'a), 무궁무진한 지식의 창고(al Kanj) 등 12가지 이름을 갖고 있다.

모든 예배는 본 장이 제일 먼저 암송됨으로써 시작되고 예배의 효력이 발생한다. 즉 본 장이 암송됨으로써 신앙의 문이 열린다는 의미에서 개경장(Fātiha, or the Opening Chapter)이라 불리워지게 된 것으로 본다. 본 장이 서두에 있으나 그것은 계시된 순서가 아니라 편집상의 순서일 뿐이다.

제 1 장

1.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1] 하나님[2]의 이름으로[3]

2. 온 우주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찬미[1]를 드리나이다

3. 그분은 자애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4. 심판의 날[1]을 주관하시도다

5. 우리는 당신만을 경배하오며 당신에게만 구원을 비노니[1]

6. 저희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سُورَةُ الفَاتِحَة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①

اَلْحَمْدُ لِلّٰهِ رَبِّ الْعٰلَمِينَ ②

الرَّحْمٰنِ الرَّحِيمِ ③

مٰلِكِ يَوْمِ الدِّينِ ④

اِيَّاكَ نَعْبُدُ وَاِيَّاكَ نَسْتَعِينُ ⑤

اِهْدِنَا الصِّرَاطَ الْمُسْتَقِيمَ ⑥

1-1) 같은 어원에서 유래된 창조주에게만 있을 수 있는 자비와 은혜와 은총을 말하며 99개 창조주의 은총 가운데 2개의 은혜로 해석되고 있다.

2) 지상에는 수많은 언어가 있다. 이 모든 언어에는 창조주를 호칭하는 이름이 있다. 그 창조주의 이름을 미국사람은 '가드(God)'라 하고, 페르시아인들은 '쿠다(Khuda)', 인도인들은 '데바(Deva)', 아랍인들은 '알라(Allah)', 라틴어로는 '데우스(Deus)', 독일어로는 '고트(Gott)', 한국말로는 '하나님'이라 한다.

3) 창조주가 예언자 무함마드에게 말씀을 계시할 때 예언자로 하여금 말씀을 계시 받는 방법이며 또한 무슬림이 꾸란을 읽는 방법의 예절이기도 하다.
이 절은 아랍어 '비쓰밀라히 르라흐마니 르라힘'의 약자는 '비쓰밀라'로 다음 사항에서는 이 '비쓰밀라'를 암송하는 것이 무슬림의 예의로 되어 있다.
첫째 ; 말이나 웅변, 일을 시작하고 글을 쓰기 시작할 때
둘째 ; 우두(예배하기전 마음을 가다듬고 예배하기 위해 몸을 씻는 것)를 할 때
셋째 ; 짐승을 도살할 때
넷째 ; 음식을 먹기 시작할 때
다섯째 ; 부부 생활에 들어갈 때

2-1) '슈크르'가 인간의 어떤 물질적이며 제한된 은혜에 대한 '상대적 감사'의 표현이라 한다면, '함두'는 한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절대적 '감사'를 의미한다.

4-1) 인간의 현세 업적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는 심판의 날

5-1) 우리가 경배함에 당신만을 경배하고, 우리가 구원할 때 당신께만 구원을 하며 당신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경배하지 아니하며 구원하지 않으므로써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예의와 경의를 창조주 당신께로 돌리며,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당신의 전능으로부터 구원하겠습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 밖에 없으므로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께만 경배와 구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صِرَاطَ الَّذِينَ أَنعَمتَ عَلَيهِمْ غَيرِ المَغضُوبِ عَلَيهِمْ وَلَا الضَّالِّينَ ۝٧

7. 그 길은 당신께서 축복을 내리신 길이며 노여움을 받은 자[1]나 방황하는 자들이[2] 걷지않는 가장 올바른 길이옵니다

7-1) "노여움을 받은 자들"이란 '유대인'을 가르킨다. 모세를 통하여 구약이 계시되었을 초기에는 유대인들이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다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등 말씀을 조작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하여 노여워 하셨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노여움을 받은 자들로 풀이되고 있다.

2) "나스라니운" 즉 기독교인들의 모체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하자 다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 신약을 계시하여 인류로 하여금 말씀을 따르도록 하였다.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모든 백성이 말씀대로 행하다가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 말씀에 순종치 않고 말씀에 인간의 생각을 첨가하는 등 하나님의 본래 말씀을 변질시켜가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방황케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방황하는 자들"로 풀이되고 있다.

سُورَةُ البَقَرَة

제2장 바 까 라

메디나에서 계시된 286절로 전체 114장 중 가장 긴 장이다. 서두에서는 온전한 신앙인(Mu'min), 불신자(Kāfir), 위선자(Munāfiq)에 관하여 언급한 후 진실한 신앙이 무엇이며 불신자, 위선자 그리고 행복한 인간이 누구인가를 묘사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인류의 선조인 아담이 지상의 대리자(칼리파)로서의 이야기를,

그 다음은 성서의 백성들(Ahl al Kitāb), 특히 이스라엘의 자손 유대인들과 메디나에서 거주하고 있는 무슬림들과의 관계, 그들 사이에서 빚어지는 음모, 죄악등 일련의 사건들이 「바까라」장의 삼분의 일 이상에서 언급되다가,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밖의 이슬람법(Shari'a)이 소개되고 있다. 그 당시는 무슬림들이 이슬람 국가 건국 초기에 있었기 때문에 국가를 구성하는 법 내지는 규범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밖에도 단식(Siyām), 성지순례(Hajj), 성전(Tihād), 결혼과 이혼 그리고 자녀양육 및 이혼한 여성이 재혼하고자 할 경우 기다려야 할 법정 기간, 신앙이 없는 무신론자와의 결혼금지, 여성의 생리시 부부 생활의 관계 등에 관한 가족법에 관하여 언급하고, 사회 질서를 교란시키는 고리대금의 죄악에 관하여 묘사한 후, 마지막으로 신앙인들의 회개와 기원에 관한 묘사로 본장이 끝나고 있다.

바까라는 '암소'라는 자구적 의미를 갖고 있다. 암소의 장이라 불리워지게 된 동기는 모세 시대에 있었던 기적을 기념하기 위해서였다. 어느 날 이스라엘 자손들 중 한 사람이 살해되었으나 살인자를 알 수가 없어 이 문제를 모세에게 고하여 살인자를 알아내기로 하였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계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암소 한 마리를 도살하여 도살된 시체의 일부분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를 때리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시체가 살아나 그들에게 살인자를 말할 것이라 하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에 따라 죽은 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예증인 것이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16).

سُوْرَةُ الْبَقَرَة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الٓمّٓ ①

ذٰلِكَ الْكِتٰبُ لَا رَيْبَ ۛ فِيْهِ ۛ هُدًى لِّلْمُتَّقِيْنَ ②

الَّذِيْنَ يُؤْمِنُوْنَ بِالْغَيْبِ وَيُقِيْمُوْنَ الصَّلٰوةَ وَمِمَّا رَزَقْنٰهُمْ يُنْفِقُوْنَ ③

وَالَّذِيْنَ يُؤْمِنُوْنَ بِمَآ اُنْزِلَ اِلَيْكَ وَمَآ اُنْزِلَ مِنْ قَبْلِكَ وَبِالْاٰخِرَةِ هُمْ يُوْقِنُوْنَ ④

اُولٰٓئِكَ عَلٰى هُدًى مِّنْ رَّبِّهِمْ ۗ وَاُولٰٓئِكَ هُمُ الْمُفْلِحُوْنَ ⑤

제 2 장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알리프 람 밈[1]

2. 의심할 바 없는 이 성서는[1] 하나님을 공경[2]하는 자들의 이정표요.

3.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을 믿고[1] 예배를 드리며 그들에게 베풀어 준 양식을[2] 선용하는 사람들의 이정표이며

4. 그대에게 계시된 것과[1] 그 이전에 계시된 것과[2] 또한 내세를 믿는 사람들의 이정표이며[3]

5. 그들[1]이 바로 주님의 안내를

1-1) 이 문자를 해설하는데는 학자들간에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세 문자는 꾸란에 있어서 하나님의 비밀이거나 또는 훌륭한 하나님의 이름 또는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문자 또는 생략된 약어로서 '알리프'는 하나님(Allah)을, '람'은 자비(Latif), '밈'은 영광(Majid)의 생략형으로 보는 학자가 있고, 또는 어떤 심오하고 신비한 진리를 나타내는 상징어로도 풀이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18).

2-1) 무함마드여! 이 계시된 꾸란은 의심할 바 없는 성서이거늘
2) '따끄와'는 여러 가지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견제하여 허와 손과 마음이 유혹되지 아니하며 정의와 정건함과 선행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한다는 의미를 전부 내포하는 아랍어로 이와 같은 사람이 가장 정직한 신앙인이라 일컬어지고 있다.

3-1) 인간의 오관으로 정확히 알 수 없는 영역 즉 하나님, 천사들, 정령, 부활, 천국, ,지옥, 심판 등 꾸란과 예언자가 언급한 불가시계의 영역
2)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물질적, 정신적 은혜를 모든 인간의 복지를 위해 선용하는 것,

4-1)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계시된 꾸란
2) 하나님으로부터 무함마드 이전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시된 것들, 모세를 통하여 계시된 구약(Taurat), 예수를 통하여 계시된 신약(Injil), 다윗의 시편(zabūr),아브라함의 책(Suhuf) 등을 일컫는다.
3) 현세 다음에는 반드시 내세가 있어 그때에는 심판과 부활과 보상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

5-1) 그들이라함은 무함마드를 통하여 계시된 꾸란과 그 이전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성서들을 믿고, 내세를 믿으며, 보이지 않는 영역을 믿으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양식을 인류의 복지를 위해 선용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받아 영화를 누릴 사람들이라

6. 믿음을 부정[1]하는 사람들은 그대가 그들에게 경고하던 또는 경고하지 아니하던 믿으려 하지 아니하매[2]

إِنَّ الَّذِينَ كَفَرُوا سَوَاءٌ عَلَيْهِمْ أَأَنذَرْتَهُمْ أَمْ لَمْ تُنذِرْهُمْ لَا يُؤْمِنُونَ ۝٦

7.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사 그들의 마음을 봉하고 그들의 귀를 봉하고[1] 그들의 눈을 봉하여 버릴 것이라

خَتَمَ اللَّهُ عَلَىٰ قُلُوبِهِمْ وَعَلَىٰ سَمْعِهِمْ وَعَلَىٰ أَبْصَارِهِمْ غِشَاوَةٌ وَلَهُمْ عَذَابٌ عَظِيمٌ ۝٧

8.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과 내세를 믿는척 말하는 무리가 있으나 실로 그들은 신앙인들이 아니거늘[1]

وَمِنَ النَّاسِ مَن يَقُولُ آمَنَّا بِاللَّهِ وَبِالْيَوْمِ الْآخِرِ وَمَا هُم بِمُؤْمِنِينَ ۝٨

9. 믿는 척 하나님을 속이는[1] 것은 스스로를 배반하는 것과 같으나 그들이 알지 못할 뿐이라

يُخَادِعُونَ اللَّهَ وَالَّذِينَ آمَنُوا وَمَا يَخْدَعُونَ إِلَّا أَنفُسَهُمْ وَمَا يَشْعُرُونَ ۝٩

10. 그들 마음에는 병이[1] 있나니 하나님께서 그 병을 더하게 하시매 그들은 고통스러운 벌을 받을

فِي قُلُوبِهِم مَّرَضٌ فَزَادَهُمُ اللَّهُ مَرَضًا ۖ وَلَهُمْ عَذَابٌ أَلِيمٌ بِمَا كَانُوا يَكْذِبُونَ ۝١٠

6-1) '카파라'(불신하다), '쿠프르'(불신), '카-피르'(불신자) 즉 하나님의 말씀들을 부정하고 선지자 무함마드를 통하여 계시된 메시지를 불신하는 것.

2) 앞절까지는 진실한 믿음으로 영화를 누리는 신앙인들에 관한 말씀이었으며, 6절과 7절에서는 믿음을 부정한 불신자들에게 대한 말씀이 언급되고 있다.

7-1) '카타마'는 어떤 것을 봉하여 그 안에 들어 갈 수도 없으며 그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올 수도 없다는 언어적 해석이며, 이절에서 의도하고 있는 것은 전자로, 마음을 봉했으니 그 안에 광명이 들어 갈 수 없으며, 믿음이 있으나 그 마음에 이르지 못하고, 귀와 눈을 봉했으니 광명을 볼 수도 없으며 들을 수도 없음을 제시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20).

8-1) 1-5절까지는 믿음이 진실한 신앙인들에 관하여, 6-7절에서는 불신자에 관하여 묘사하였고, 8-11절에서는 위선자에 관해 묘사하고 있다. 이 위선자들은 자기 자신들에게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병들며, 이 병들은 다른 사악함과 마찬가지로 번지게 된다. 이 병들은 치료 될 수 있으나 그들은 자신들을 망각한 채 광명과 진리를 고의적으로 부인함으로써 치료될 수 없는 다른 사악의 세계로 쉽사리 빠져 들고 만다.

9-1) '키다-아' 또는 '무카-디으'의 뜻은 부패 또는 사악함이란 뜻의 언어적 해석으로, 타인 앞에서는 이슬람에 충실한 척 행동하나 홀로 있을때는 그렇지 아니하며, 혀로써는 이론에 충실하나 실천하지 아니함을 의미한다.

10-1) 병이라함은 신체적 질병이 아니라 신앙의 병을 의미한다. 즉 신앙에 대한 회의, 의심, 위선 등을 말하고 있다.

것이라 이는 그들이 스스로를 배반했기 때문이라

وَاِذَا قِيْلَ لَهُمْ لَا تُفْسِدُوْا فِى الْاَرْضِ ۙ قَالُوْٓا اِنَّمَا نَحْنُ مُصْلِحُوْنَ ⑪

11. 이 세상에서 해악을[1] 퍼뜨리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을 때 그들은 평화를 심는 사람들이라 말하더라

اَلَآ اِنَّهُمْ هُمُ الْمُفْسِدُوْنَ وَلٰكِنْ لَّا يَشْعُرُوْنَ ⑫

12. 실로 그들은 해악을 퍼뜨리면서도 깨닫지 못하노라

وَاِذَا قِيْلَ لَهُمْ اٰمِنُوْا كَمَآ اٰمَنَ النَّاسُ قَالُوْٓا اَنُؤْمِنُ كَمَآ اٰمَنَ السُّفَهَآءُ ۗ اَلَآ اِنَّهُمْ هُمُ السُّفَهَآءُ وَلٰكِنْ لَّا يَعْلَمُوْنَ ⑬

13. 그 사람들이[1] 믿는 것처럼 믿으라 그들에게[2] 말씀이 있었을 때 어리석은 자들이[3] 믿는 것처럼 믿으란 말이뇨 라고 그들은 대답하도다 보라 실로 그들이 어리석은 자들이면서 그들은 깨닫지 못하노라

وَاِذَا لَقُوا الَّذِيْنَ اٰمَنُوْا قَالُوْٓا اٰمَنَّا ۚ وَاِذَا خَلَوْا اِلٰى شَيٰطِيْنِهِمْ ۙ قَالُوْٓا اِنَّا مَعَكُمْ ۙ اِنَّمَا نَحْنُ مُسْتَهْزِءُوْنَ ⑭

14. 그들이[1] 믿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저희들도 믿음이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사탄과 함께 있을 때는 저희는 당신과 함께 있나니 실로 우리는 조롱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더라

اَللّٰهُ يَسْتَهْزِئُ بِهِمْ وَيَمُدُّهُمْ فِىْ طُغْيَانِهِمْ يَعْمَهُوْنَ ⑮

15. 하나님이 그들을 조롱하사 그들을 암흑속에서 버리시니 그들은 장님처럼 방황하노라

اُولٰٓئِكَ الَّذِيْنَ اشْتَرَوُا الضَّلٰلَةَ بِالْهُدٰى ۖ فَمَا رَبِحَتْ تِّجَارَتُهُمْ وَمَا كَانُوْا مُهْتَدِيْنَ ⑯

16. 그들은 진실을 팔고 허위를 사니[1] 그들의 장사가 흥할리 없으

11-1) 해악이라함은 창조주를 불신하고 자신을 속이며 꾸란을 믿고 선지자 무함마드를 따르는 사람들을 교란시키는 사악함을 일컫는다.

13-1) '무하-지린'과 '안사-리' 등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선지자들의 추종자들이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2) 위선자들. 알칼라비는 유대인들이라고 전하고 있다.

3) 위선자들은 조롱하여 말하길, "무지하고 어리석은 '수하이브'나 '암마르' 또는 '빌랄' 처럼 믿음을 가지란 말인가?"라고 하였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22).

14-1) 위선자들

16-1) 위선자들이 믿음을 버리고 불신의 길을 걷는 것, 또는 광명의 길에서 방황의 길을 선택하는 것, 또는 공동사회를 이탈하거나 무함마드 전통(Sunna)에서 벗어나는 행위

며 인도받지 못하리라

17. 그들을[1] 비유하사 그들이 불을 켜 놓았으나 하나님께서 그들 주변의 빛을 거두어 가시고 그들을 암흑속에 버리나니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2]

مَثَلُهُمْ كَمَثَلِ الَّذِي اسْتَوْقَدَ نَارًا فَلَمَّا أَضَاءَتْ مَا حَوْلَهُ ذَهَبَ اللَّهُ بِنُورِهِمْ وَتَرَكَهُمْ فِي ظُلُمَاتٍ لَا يُبْصِرُونَ ⑰

18. 귀머거리 벙어리 장님이 되어 돌아오지 못하노라[1]

صُمٌّ بُكْمٌ عُمْيٌ فَهُمْ لَا يَرْجِعُونَ ⑱

19. 그들을 비유하사 하늘에서 폭풍우가 몰아치고 암흑이 되어 천둥과 번개가 진동하니 죽음이 두려워 그들은 귀를 막으매 하나님께서 이 불신자들을 포위하시노라[1]

أَوْ كَصَيِّبٍ مِنَ السَّمَاءِ فِيهِ ظُلُمَاتٌ وَرَعْدٌ وَبَرْقٌ يَجْعَلُونَ أَصَابِعَهُمْ فِي آذَانِهِمْ مِنَ الصَّوَاعِقِ حَذَرَ الْمَوْتِ وَاللَّهُ مُحِيطٌ بِالْكَافِرِينَ ⑲

20. 번개가 그들의 시력을 할퀴어 가니 그들에게 빛을 비출때에는 걷다가 그들을 암흑으로 덮칠 때는[1] 멈추어 서도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의 청각과 시력도 앗아 가시니 실로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전지 전능하심이라

يَكَادُ الْبَرْقُ يَخْطَفُ أَبْصَارَهُمْ كُلَّمَا أَضَاءَ لَهُمْ مَشَوْا فِيهِ وَإِذَا أَظْلَمَ عَلَيْهِمْ قَامُوا وَلَوْ شَاءَ اللَّهُ لَذَهَبَ بِسَمْعِهِمْ وَأَبْصَارِهِمْ إِنَّ اللَّهَ عَلَىٰ كُلِّ شَيْءٍ قَدِيرٌ ⑳

21. 인간들이여[1] 주님을 경배하

يَا أَيُّهَا النَّاسُ اعْبُدُوا رَبَّكُمُ الَّذِي خَلَقَكُمْ

17-1) 불신자들

2) 17절의 계시말씀은 위선자들에 대한 경고와 함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그 신앙을 버렸거나 또는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암흑속으로 인도하니, 그들은 복음의 길과 구원의 길로 이르지 못함을 제시하고 있다.

18-1) 그들은 귀머거리처럼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들은 벙어리처럼 유용한 말을 못하며, 그들은 장님처럼 옳은 길을 보지 못하도다.

19-1) 혼돈과 방황속에 있는 그들을 비유하며, 그들은 마치 세찬 폭풍우와, 천둥과 번개가 진동하는 암흑속에서 두려워 어찌할 줄 모르는 무리와도 같음을 비유하고 있다.

20-1) 암흑속에서 번개불이 번쩍일때만 그 불빛으로 걷다가 번개불이 그치면 걸음을 멈춘다.
※ 하나님은 위선자의 속성을 지금까지의 말씀에서 10가지 속성으로 묘사하고 있다. 즉 거짓말, 기만, 현혹, 오만, 조롱, 해악, 무지, 방황, 마음이 갈팡질팡하는 행위, 경멸(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25)

21-1) 아담의 후예인 모든 인류여!
야 아이유하 : 꾸란에는 여러 차례의 호격이 언급되고 있다. 이것은 강조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종들에게 언급된 호격의 표현으로써 촉구하는 모든 것을 인간은 마음으로 받아들여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알바이돠위 16/1).

وَالَّذِيْنَ مِنْ قَبْلِكُمْ لَعَلَّكُمْ تَتَّقُوْنَ ﴿٢١﴾

라[2] 그분께서 너희들을 창조하셨고 또 너희 선조들을 창조하셨나니[3]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되리라

الَّذِيْ جَعَلَ لَكُمُ الْاَرْضَ فِرَاشًا وَّالسَّمَآءَ بِنَآءً وَّاَنْزَلَ مِنَ السَّمَآءِ مَآءً فَاَخْرَجَ بِهٖ مِنَ الثَّمَرٰتِ رِزْقًا لَّكُمْ ۚ فَلَا تَجْعَلُوْا لِلّٰهِ اَنْدَادًا وَّاَنْتُمْ تَعْلَمُوْنَ ﴿٢٢﴾

22. 그대들을 위해 대지를 침상으로[1] 하늘을 천정으로 두셨도다 하늘로부터는 비를 내리게하여 생과를[2] 맺게하고 이를 그대들의 양식으로 내려 주셨노라 하나님께 우상을 비유하지 말라 그대들은 이를 알지 않느뇨[3]

وَاِنْ كُنْتُمْ فِيْ رَيْبٍ مِّمَّا نَزَّلْنَا عَلٰى عَبْدِنَا فَاْتُوْا بِسُوْرَةٍ مِّنْ مِّثْلِهٖ ۪ وَادْعُوْا شُهَدَآءَكُمْ مِّنْ دُوْنِ اللّٰهِ اِنْ كُنْتُمْ صٰدِقِيْنَ ﴿٢٣﴾

23. 만약 너희가 하나님의 종에게 계시한 것에[1] 관하여 의심 한다면 그와 같은 말씀의 한 구절이라도 가져온 것이며 너희들이 사실이라고 고집한다면 하나님외에 증인들을 대어보라[2]

فَاِنْ لَّمْ تَفْعَلُوْا وَلَنْ تَفْعَلُوْا فَاتَّقُوا النَّارَ الَّتِيْ وَقُوْدُهَا النَّاسُ وَالْحِجَارَةُ ۖ اُعِدَّتْ لِلْكٰفِرِيْنَ ﴿٢٤﴾

24.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1] 또한 그렇게도 할 수 없다면[2] 지옥을 두려워 하라 그곳에는 인간과 돌들이[3] 불에 이글거리고 있으며 불신자들을 위해 준비된 곳이라

---

2)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분 만이 유일신으로 섬기며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라.
3)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수여자로서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시는 창조주로써 홀로 존재 하심을 제시하고 있다.

22-1) 요람과 거주지
2) 아담의 후예를 위한 모든 종류의 양식
3) 즉 우상은 아무것도 창조하지 못하고 인류에게 양식도 주지못함을 너희 위선자 및 불신자들은 알고 있지 않는가?

23-1)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계시한 꾸란
2) 앞절에서는 만물의 창조주로써의 유일성과 모든 것을 주재하는 주관자로써의 말씀이 있었고, 여기서는 무함마드가 예언자 및 선지자로써 창조주의 선택받음과, 꾸란의 말씀은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도 그와 같은 말씀을 가져올 수 없는 기적으로써 예증되고 있다.

24-1) 선지자에게 계시된 꾸란과 같은 한 문장이라도 이르게 할 수 없거나
2) 미래에도 그렇게 할 수 없다면
3) 불신자들과 우상들

25.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이들에게[1] 기쁜소식을 전하라 그들을 위해 천국이 있고 그 밑에는 강물이 흐르니라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이[2] 주어질 때면 이것은 이전에도 저희에게 베풀어졌던 것이옵니다 라고 그들은 말하도다 또한 그들에게는 그와 유사한 것들이 주어지리니 그곳에 순결한 동반자가[3] 있어 그 안에서 영생하리라[4]

وَبَشِّرِ الَّذِيْنَ اٰمَنُوْا وَعَمِلُوا الصّٰلِحٰتِ اَنَّ لَهُمْ جَنّٰتٍ تَجْرِيْ مِنْ تَحْتِهَا الْاَنْهٰرُ ۭ كُلَّمَا رُزِقُوْا مِنْهَا مِنْ ثَمَرَةٍ رِّزْقًا ۙ قَالُوْا هٰذَا الَّذِيْ رُزِقْنَا مِنْ قَبْلُ ۙ وَاُتُوْا بِهٖ مُتَشَابِهًا ۭ وَلَهُمْ فِيْهَآ اَزْوَاجٌ مُّطَهَّرَةٌ ۙ وَّهُمْ فِيْهَا خٰلِدُوْنَ ۝۲۵

26. 실로 하나님께서는 모기나 또는 그 이상의 것으로 비유하길 서슴치 아니하시매[1] 믿는자는 그 비유가 주님으로부터 온 진리임을 믿으나 불신자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그 비유를 들어 무엇을 원하느뇨 라고 하니 이에 가로되 그것으로 많은 불신자들을 방황케도 하고 또 많은 믿는자들을 인도하시노라 실로 하나님은 이단자들만을[2] 방황케 하시니라

اِنَّ اللّٰهَ لَا يَسْتَحْيٖٓ اَنْ يَّضْرِبَ مَثَلًا مَّا بَعُوْضَةً فَمَا فَوْقَهَا ۭ فَاَمَّا الَّذِيْنَ اٰمَنُوْا فَيَعْلَمُوْنَ اَنَّهُ الْحَقُّ مِنْ رَّبِّهِمْ ۚ وَاَمَّا الَّذِيْنَ كَفَرُوْا فَيَقُوْلُوْنَ مَاذَآ اَرَادَ اللّٰهُ بِهٰذَا مَثَلًا ۘ يُضِلُّ بِهٖ كَثِيْرًا وَّيَهْدِيْ بِهٖ كَثِيْرًا ۭ وَمَا يُضِلُّ بِهٖٓ اِلَّا الْفٰسِقِيْنَ ۝۲۶

27. 이들은 하나님의 계율을 어긴자요 하나님이 명령하여 결합하라 하였으나 거역한 자이며 지상

الَّذِيْنَ يَنْقُضُوْنَ عَهْدَ اللّٰهِ مِنْۢ بَعْدِ مِيْثَاقِهٖ ۠ وَيَقْطَعُوْنَ مَآ اَمَرَ اللّٰهُ بِهٖٓ اَنْ يُّوْصَلَ وَيُفْسِدُوْنَ فِي الْاَرْضِ ۭ اُولٰۗىِٕكَ

25-1) 믿음으로 현세에서 선을 행하고 의롭게 생활한 자.

2) 천국에 있는 일용할 양식, 천국에 사는 이들에게 천사들이 일용할 양식을 가져다 그들 앞에 놓으면 이들이 말하길, "이것은 전에도 저희들에게 베풀어 졌던 것이옵니다"라고 말하자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들이여! 즐겨 먹어라. 색깔은 하나이되 맛은 서로 다르니라"라고 말한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29).

3) 천국에 있는 아내는 '히와르 아인'으로써 피부색이 새하얗고 눈이 크며 아름답기가 그지 없는 순결한 여성.

4) 불신자들에 대한 보상으로 지옥을 언급하신 후 이번에는 믿음이 진실한 신앙인들에 대한 보상으로 천국을 계시하고 있다.
무함마드여! 현세에서 믿음이 진실하고 선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라. 그곳에는 온갖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정원과, 온갖 과일이 풍부한 과수원이 있으며, 또한 그곳에는 풍성하고 맑은 물이 흐르도다. 또한 때묻지 아니한 순결한 부인이 있으니 그들과 함께 그곳에서 영생하리라.

26-1) 하나님은 가장 작은 것이든 가장 큰 것이든 또는 가장 하찮은 것이든 가장 중요한 것이든 간에 그분이 원하실 때는 어느 것으로도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길 서슴치 아니하시도다.
하나님께서 파리 및 거미 같은 것을 언급하였을 때 불신자들 및 유대인들은, "이것을 언급하여 무엇을 하려 하느뇨?"라고 조롱하자 본절이 계시되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30).

2) 이단자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

هُمُ الْخٰسِرُوْنَ ﴿٢٧﴾

에서 해악을 퍼뜨리는 사람들이니 저들은 스스로를 멸망케 하도다[1]

كَيْفَ تَكْفُرُوْنَ بِاللّٰهِ وَكُنْتُمْ اَمْوَاتًا فَاَحْيَاكُمْ ثُمَّ يُمِيْتُكُمْ ثُمَّ يُحْيِيْكُمْ ثُمَّ اِلَيْهِ تُرْجَعُوْنَ ﴿٢٨﴾

28. 생명이 없었던[1] 너희에게 생명을 부여하사[2] 다시 생명을 앗아가고[3] 또 부활[4]케하여 그분곁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거역한단 말이뇨

هُوَ الَّذِيْ خَلَقَ لَكُمْ مَّا فِى الْاَرْضِ جَمِيْعًا ثُمَّ اسْتَوٰٓى اِلَى السَّمَآءِ فَسَوّٰىهُنَّ سَبْعَ سَمٰوٰتٍ وَهُوَ بِكُلِّ شَىْءٍ عَلِيْمٌ ﴿٢٩﴾

29. 또한 그분은 너희들을 위해 삼라만상을 창조하시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시어 일곱천을 형성하신 분으로 진실로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노라

وَاِذْ قَالَ رَبُّكَ لِلْمَلٰٓئِكَةِ اِنِّىْ جَاعِلٌ فِى الْاَرْضِ خَلِيْفَةً قَالُوْٓا اَتَجْعَلُ فِيْهَا مَنْ يُّفْسِدُ فِيْهَا وَيَسْفِكُ الدِّمَآءَ وَنَحْنُ نُسَبِّحُ بِحَمْدِكَ وَنُقَدِّسُ لَكَ قَالَ اِنِّىْٓ اَعْلَمُ مَا لَا تَعْلَمُوْنَ ﴿٣٠﴾

30. 주님께서 천사에게[1] 지상에 대리인을 두리라 하시니 천사들이 가로되 이 세상을 해치고 살상을 하려 하십니까 저희들은 당신을 찬미하고 당신을 경배하나이다 이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실로 나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노라

وَعَلَّمَ اٰدَمَ الْاَسْمَآءَ كُلَّهَا ثُمَّ عَرَضَهُمْ عَلَى الْمَلٰٓئِكَةِ فَقَالَ اَنْۢبِـُٔوْنِىْ بِاَسْمَآءِ هٰٓؤُلَآءِ اِنْ كُنْتُمْ صٰدِقِيْنَ ﴿٣١﴾

31. 아담에게 모든 사물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후 천사들 앞에 제시하며 말씀하시길 만일 너희가 옳다면[1] 너희가 이것들의 이름을

27-1) 이단자들이란 하늘에서 계시된 성서들의 율법과 무함마드의 신앙을 지키지 아니하고, 모든 예언자 및 선지자들간의 계보를 단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듯이, 형제들과 친척들 간의 우의를 명령했으나 이를 거역하며, 현세에서 해악을 퍼뜨리는 사람들로써 이들은 스스로를 파멸로 유혹하는 자들이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31).

28-1) 아담이 창조되기 이전, 그리고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이전의 상태
2) 세상에 태어나는 것
3) 임종
4) 무덤으로부터 나와 부활하는 것

30-1) 무함마드여! 그대 주님께서 천사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염원하며 그것을 그대 백성들에게 얘기하라. 창조주께서 아담을 창조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수행하도록 지상의 대리자(Khalifa)로 두었음을 상기시키라.

31-1) 만일 너희 천사들이 대리자가 될 자격이 있다면

말해보라하니[2]

32. 하나님이여 영광을 받으소서 저희는 당신이 가르쳐준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나니 실로 당신은 아심과 지혜로 충만 하심이라

قَالُوا سُبْحَانَكَ لَا عِلْمَ لَنَا إِلَّا مَا عَلَّمْتَنَا إِنَّكَ أَنْتَ الْعَلِيمُ الْحَكِيمُ ﴿٣٢﴾

33. 하나님이 이르시길 아담아 그들에게[1] 이름들을 일러주라 하시니 그가 그들에게 그 이름들을 일러주매 그분께서 천사들에게 이르시길 내가 천지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과 너희가 드러내거나 감추고 있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너희에게 얘기하지 않했느뇨

قَالَ يَا آدَمُ أَنْبِئْهُمْ بِأَسْمَائِهِمْ فَلَمَّا أَنْبَأَهُمْ بِأَسْمَائِهِمْ قَالَ أَلَمْ أَقُلْ لَكُمْ إِنِّي أَعْلَمُ غَيْبَ السَّمَاوَاتِ وَالْأَرْضِ وَأَعْلَمُ مَا تُبْدُونَ وَمَا كُنْتُمْ تَكْتُمُونَ ﴿٣٣﴾

34. 하나님이[1]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아담에게 엎드려 절하라 하니[2] 모두가 엎드려 절을 하나 이블리스만 거절하며 거만을 부렸으니 그는 불신자들중에 있었노라[3]

وَإِذْ قُلْنَا لِلْمَلَائِكَةِ اسْجُدُوا لِآدَمَ فَسَجَدُوا إِلَّا إِبْلِيسَ أَبَى وَاسْتَكْبَرَ وَكَانَ مِنَ الْكَافِرِينَ ﴿٣٤﴾

35. 하나님이 말씀하사 아담아 아내와[1] 함께 천국에 거주하며 그대들이 원하는 양식을 먹되 이 나무

وَقُلْنَا يَا آدَمُ اسْكُنْ أَنْتَ وَزَوْجُكَ الْجَنَّةَ وَكُلَا مِنْهَا رَغَدًا حَيْثُ شِئْتُمَا وَلَا تَقْرَبَا هَذِهِ الشَّجَرَةَ

---

2) 이 절에서 하나님은 아담의 위치를 천사 위에 둠으로써 아담의 후예인 인간이 존재하는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으뜸가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제시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34).

33-1) 천사들

34-1) 꾸란에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우리'로 자주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전 우주와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하나의 공동체로 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2) 엎드려 절을 하는 것(Sujūd)은 오직 하나님께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천사들로 하여금 아담에게 엎드려 절하게 한 것은 야곱과 그의 자손이 요셉에게 그랬듯이 인사와 존경의 표시였다.

3) 이블리스의 속성에 관하여 천사라고 말하는 견해가 있으나 이블리스는 천사가 아님이 증명된다(하싼 알바스리). 그 증거로써는 :
1-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지 아니하는데 이블리스는 거역을 했으며,
2-천사들은 빛으로부터 창조 되었는데 이블리스는 불에서 창조되었고
3-천사들은 자손이 없는데 이블리스는 자손이 있었으며
4-특히 카흐프 장에서 이블리스가 '영마'에서 왔음을 계시하고 있다.

35-1) 이브(하와)
아담과 이브가 거주한 에덴 동산을 사우디 아라비아 메카 아라파트 동산이 아닌가 하는 학자들의 견해로 보아서는 지상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다음 36절에서는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에덴동산으로부터 쫓겨난 것으로 보아서는 지상 아닌 다른 곳에 에덴동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다.

فَتَكُونَا مِنَ الظّٰلِمِينَ ﴿٣٥﴾

에[2] 접근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죄지은자 가운데 있게 되니라.

فَأَزَلَّهُمَا الشَّيْطٰنُ عَنْهَا فَأَخْرَجَهُمَا مِمَّا كَانَا فِيهِ وَقُلْنَا اهْبِطُوا بَعْضُكُمْ لِبَعْضٍ عَدُوٌّ وَلَكُمْ فِي الْأَرْضِ مُسْتَقَرٌّ وَمَتَاعٌ إِلٰى حِينٍ ﴿٣٦﴾

36. 사탄이 그들을 유혹하여 그곳으로부터 나가게 하매 하나님이 말씀하사 서로가 서로의 적이되어 지상에서 얼마 동안 안주하여 살라 했노라[1]

فَتَلَقّٰى آدَمُ مِنْ رَبِّهِ كَلِمٰتٍ فَتَابَ عَلَيْهِ إِنَّهُ هُوَ التَّوَّابُ الرَّحِيمُ ﴿٣٧﴾

37. 이때 아담은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으며 하나님은 그를 용서 하였으니 진실로 그분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

قُلْنَا اهْبِطُوا مِنْهَا جَمِيعًا فَإِمَّا يَأْتِيَنَّكُمْ مِنِّي هُدًى فَمَنْ تَبِعَ هُدَايَ فَلَا خَوْفٌ عَلَيْهِمْ وَلَا هُمْ يَحْزَنُونَ ﴿٣٨﴾

38.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사 모두 세상으로 내려가 살라 복음을 내려 보낼 것이라 이를 따르는 사람은 두려움도 슬픔도 없을 것이라[1]

وَالَّذِينَ كَفَرُوا وَكَذَّبُوا بِآيٰتِنَا أُولٰئِكَ أَصْحٰبُ النَّارِ هُمْ فِيهَا خٰلِدُونَ ﴿٣٩﴾

39.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거역하는 사람은 불지옥의 주인이 되어 그 속에서 영원히 기거할 것이라

يٰبَنِي إِسْرَائِيلَ اذْكُرُوا نِعْمَتِيَ الَّتِي أَنْعَمْتُ عَلَيْكُمْ وَأَوْفُوا بِعَهْدِي أُوفِ بِعَهْدِكُمْ وَإِيَّايَ فَارْهَبُونِ ﴿٤٠﴾

40. 이스라엘 자손들이여[1]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총을 기억하고 나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라[2] 내가 너희와의 약속을 이행하리라[3] 그리고 나만을 두려워 하라[4]

---

2) 금단의 나무도 에덴동산과 마찬가지로 지상에 있었던 나무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에 있었는가? 그 나무는 포도 나무인가? 무화과 나무였는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뿐이다.

36-1) 사탄의 유혹으로 에덴 동산에서 지상으로 내려가는 아담과 하와에게 함께 쫓겨내려가는 이블리스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모든 인류의 적임을 경고하고 있다.

38-1) 아담과 그의 후손이 거주할 곳은 에덴 동산이 아니라 지상임을 강조하면서 그들을 위해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복음인 성서들이 계시되리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다.

40-1) 이스라엘은 외래어로써 하나님의 종복(압달라)을 의미하며, 여기서는 예언자 야곱의 자손들을 일컫는다.
2) 진실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약속
3) 훌륭한 보상의 약속
4) 40절부터 142절까지는 이스라엘 자손과 꾸란에 관하여 언급되고 있다.

وَاٰمِنُوْا بِمَآ اَنْزَلْتُ مُصَدِّقًا لِّمَا مَعَكُمْ وَلَا تَكُوْنُوْٓا اَوَّلَ كَافِرٍ بِهٖ ۠ وَلَا تَشْتَرُوْا بِاٰيٰتِيْ ثَمَنًا قَلِيْلًا وَّاِيَّايَ فَاتَّقُوْنِ ﴿٤١﴾

41. 내가 계시한 것을 믿고 이전에 내려보낸 계시를 믿으라 이를 불신하는 우두머리가 되지 말것이며 나의 계시를 어떠한 것과도 교환하지 말고 나만을 두려워하라[1]

وَلَا تَلْبِسُوا الْحَقَّ بِالْبَاطِلِ وَتَكْتُمُوا الْحَقَّ وَاَنْتُمْ تَعْلَمُوْنَ ﴿٤٢﴾

42. 진리를 부정으로 왜곡하지 말고 진리를 숨기지 말라 너희는 알고 있지 않느뇨[1]

وَاَقِيْمُوا الصَّلٰوةَ وَاٰتُوا الزَّكٰوةَ وَارْكَعُوْا مَعَ الرّٰكِعِيْنَ ﴿٤٣﴾

43. 예배를 드리고 이슬람세를 받칠 것이며 다같이 고개숙여 하나님을 경배하라[1]

اَتَاْمُرُوْنَ النَّاسَ بِالْبِرِّ وَتَنْسَوْنَ اَنْفُسَكُمْ وَاَنْتُمْ تَتْلُوْنَ الْكِتٰبَ ۭ اَفَلَا تَعْقِلُوْنَ ﴿٤٤﴾

44. 선을 행하라 너희 백성들에게 일렀으되 너희 자신들은 망각하고 있느뇨 성서를 낭독하면서도 모른단 말이뇨[1]

وَاسْتَعِيْنُوْا بِالصَّبْرِ وَالصَّلٰوةِ ۭ وَاِنَّهَا لَكَبِيْرَةٌ اِلَّا عَلَي الْخٰشِعِيْنَ ﴿٤٥﴾

45. 인내와 예배로써 구원하라 실로 그것은 검손한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힘든 일이라[1]

الَّذِيْنَ يَظُنُّوْنَ اَنَّهُمْ مُّلٰقُوْا رَبِّهِمْ وَاَنَّهُمْ اِلَيْهِ رٰجِعُوْنَ ﴿٤٦﴾

46.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주님께로 돌아가니라[1]

꾸란에서는 유대인들의 진상을 설명하면서 그들의 사악함과 음모와 파괴 등 그들의 잔악함을 묘사하고 있다. 또한 하나님을 창조주의 유일성으로 경배할 것을 인간들에게 경고하면서 그들의 선조인 아담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케 하고 특히 이스라엘 자손인 유대인들에게 진실한 신앙을 촉구하면서 그들의 성서인 구약(Taura)에도 기록된 바 하나님이 최후로 선택한 최후의 예언자이며 선지자인 무함마드를 믿고 따라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41-1) 무함마드에게 계시한 꾸란과 그 전에 계시된 구약이 창조주에 대한 유일성 및 예언자의 출현을 예시한 것을 믿어 진실한 신앙인이 되고 항상 하나님을 염원하라고 훈시하고 있다.

42-1) 하나님이 계시한 진리와 구약의 최초 말씀을 조작하지 말며, 구약에 언급된 무함마드에 관하여 숨기지 말라.

43-1) 유대인 및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지 방황했을 때 고개 숙여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계시됨

44-1)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선을 행하고 무함마드를 믿으라 말하면서도 자기들 스스로는 이를 망각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힐책과 견책으로써 계시되고 있다. 이 말씀이 계시된 동기도 유대인들의 종교지도자들이 이슬람에 귀의한 그들 친척들로 하여금 무함마드의 신앙이 진실한 것이니 이를 따르라 하면서도 자기들 스스로는 실천하지 아니하자 이 말씀이 계시되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41).

45-1) 인내(Sabr)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그것은 예배를 지칭한다.
- ㅇ 성급히 서둘지 아니하고 침착하며
- ㅇ 어떤 목적을 향한 꾸준한 자세

يٰبَنِيْٓ اِسْرَآءِيْلَ اذْكُرُوْا نِعْمَتِيَ الَّتِيْٓ اَنْعَمْتُ عَلَيْكُمْ وَاَنِّيْ فَضَّلْتُكُمْ عَلَى الْعٰلَمِيْنَ ﴿٤٧﴾

47.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나의 은총을 기억하라 내가 그대들을 선택 했노라[1]

وَاتَّقُوْا يَوْمًا لَّا تَجْزِيْ نَفْسٌ عَنْ نَّفْسٍ شَيْـًٔا وَّلَا يُقْبَلُ مِنْهَا شَفَاعَةٌ وَّلَا يُؤْخَذُ مِنْهَا عَدْلٌ وَّلَا هُمْ يُنْصَرُوْنَ ﴿٤٨﴾

48. 그날을[1] 두려워 하라 그날은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며 어떤 중재도 수락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으니 그들은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니라

وَاِذْ نَجَّيْنٰكُمْ مِّنْ اٰلِ فِرْعَوْنَ يَسُوْمُوْنَكُمْ سُوْٓءَ الْعَذَابِ يُذَبِّحُوْنَ اَبْنَآءَكُمْ وَيَسْتَحْيُوْنَ نِسَآءَكُمْ وَفِيْ ذٰلِكُمْ بَلَآءٌ مِّنْ رَّبِّكُمْ عَظِيْمٌ ﴿٤٩﴾

49. 하나님께서 너희를 파라오의 압박으로부터 구하였음을 상기하라 그들은 너희를 구속하고 남성들을 학살 하였으며 여성들은 그들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였으니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내리신 시련이라[1]

وَاِذْ فَرَقْنَا بِكُمُ الْبَحْرَ فَاَنْجَيْنٰكُمْ وَاَغْرَقْنَآ اٰلَ فِرْعَوْنَ

50. 바다를 둘로 쪼개어 너희들

- 감정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 이성에 의한 행위
- 희·노·애·락을 조절하는 마음의 정적자세 등으로, 꾸란에서는 인내하는 자에게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차례 강조되고 있다.

46-1) 믿음이 확실한 자는 부활의 날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들의 업적을 심판받게 된다.

47-1) 창조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다함은 이스라엘 자손 즉 하나님의 종(압달라)들로써, 오늘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컫는 것은 아니다. 즉 이들 선조들에게 예언자들과 이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서들을 다른 백성에 앞서 보내주었다는 의미다.

48-1) 심판의 날 불신자들에게 있을 무서운 응벌의 날(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41)

49-1) 애굽인의 속박은 무서운 시련이었다. 남성들은 모조리 학살당하고 부녀자들은 그대로 두어 자기들의 종복으로 이용하였으며(출애굽기. i. 14), 애굽인들은 그들의 생명을 고난으로 속박하였으니 몰타르와 벽돌속에다 넣어 구속하였고, 들판에서는 온갖 노동을 시켰으며, 파오라의 심장은 지푸라기 하나 주지 아니하고 벽돌을 만들라는 등 학대와 학살을 일삼았으며, (출애굽기. V. 5-19), 태어나는 모든 남아는 강에 버리고 여아는 그대로 두라는 파라오의 칙령이 내려졌다(출애굽기. i. 22). 이 시기에 태어난 모세는 3개월 동안 숨겨졌으나 그 이상 숨길 수가 없어 모세를 상자에 넣어 나일강으로 던졌다. 이리하여 모세는 파라오의 딸과 아내에게 발견되어(출애굽기. xxviii. 9) 파라오 가족이 된다.
그리하여 모세는 적에 의해 양육된 후 하나님이 선택하사 그의 백성을 구하게 하고 애굽인의 잔인함으로부터 사랑을 배우도록하여 그의 백성을 인도하게 된다.
이스라엘 자손들 중 남아들을 살해하도록 파라오의 칙령이 내려진 동기는, 어느날 파라오가 그의 꿈속에서 불을 보았는데 이 불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와 애굽을 휩싸고 모든 애굽의 콥뜨교도들을 불태웠으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았다. 이에 놀

وَأَنتُمْ تَنظُرُونَ ﴿٥٠﴾

을 구하고 너희들의 안면에서 파라오족을 익사케 했나니[1]

وَإِذْ وَعَدْنَا مُوسَىٰ أَرْبَعِينَ لَيْلَةً ثُمَّ اتَّخَذْتُمُ الْعِجْلَ مِن بَعْدِهِ وَأَنتُمْ ظَالِمُونَ ﴿٥١﴾

51. 모세에게 사십일밤을 명하여 은거하게 하였을 때 그대들은 송아지를 택하여 우상을 숭배하였으매 너희들은 우매하였노라[1]

ثُمَّ عَفَوْنَا عَنكُم مِّن بَعْدِ ذَٰلِكَ لَعَلَّكُمْ تَشْكُرُونَ ﴿٥٢﴾

52. 그 후에도 하나님은 그대들을 용서하여 주었나니 이에 감사하라[1]

وَإِذْ آتَيْنَا مُوسَى الْكِتَابَ وَالْفُرْقَانَ لَعَلَّكُمْ تَهْتَدُونَ ﴿٥٣﴾

53.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서와 식별서[1]를 내렸나니 이것으로 너희가 인도될 것이라

وَإِذْ قَالَ مُوسَىٰ لِقَوْمِهِ يَا قَوْمِ إِنَّكُمْ ظَلَمْتُمْ أَنفُسَكُم بِاتِّخَاذِكُمُ الْعِجْلَ فَتُوبُوا إِلَىٰ بَارِئِكُمْ فَاقْتُلُوا أَنفُسَكُمْ

54. 모세가 그의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들이여 송아지[1]를 숭배하여 자신들을 우롱했노라 주님께

란 파라오는 점장이들을 불러 그의 꿈을 해석하라 명하였다. 이때 점장이들이 해석 하길,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한 남아가 탄생하여 당신을 멸망케 하고 당신의 권자를 무너뜨릴 것입니다"라고 하자 파라오는 이스라엘 자손가운데 태어나는 어떤 남아도 남기지 말고 살해하라는 칙령을 내렸다.

50-1) 파라오의 학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시도하여 홍해에 이르매 파라오와 그의 군대가 뒤따라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적이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은 무사히 홍해를 빠져나갔고 뒤를 추격하던 파라오의 군인들은 익사를 한다(출애굽기. xiv 5-31).

51-1) 이것은 십계명과 율법과 계율이 시나이 산상에서 있은 후의 일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로 시나이 산상으로 올라가 40일 동안 있게되자(출애굽기 xxlv. 18) 그의 백성들은 인내하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곳에 제사를 지내며 숭배를 하였다. 이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파라오 학대로부터 구출한 후 40일 동안 시나이 산상에서 기도와 명상을 하게한 후 구약을 계시할 것을 약속하였다.

52-1) 모세가 그의 어리석은 백성을 위해 기도하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용서하였다(출애굽기. xxxii. 14).

53-1) '알키탑'이란 '그 책'이라는 언어적 해석으로 모세에게 계시된 구약을 말하며, '푸르깐'이란 '구별하는 것, 즉 옳고 그름을 식별하는 기준'이란 뜻으로 해석이 되나, 어떤 학자는 기적으로 보는 학자도 있으며 어떤 학자는 '알키탑'이나 '푸르깐'이 같은 뜻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다. 이때는 '알키탑'은 구약으로써 옳고 그름을 식별하는 것이라고 보면 타당할 것 같다.

54-1) 아랍어의 원어 발음은 '까틀'이다. 금송아지를 숭배한 죄의 대가로 '너희 자신들을 살해하라'는 뜻으로 해석되나 학자들간의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다.
1) 죄지은 자들은 자기 스스로 자살해야 한다. 2) 서로가 서로를 살해해야 한다.
3) 송아지를 섬기지 아니한 자들이 송아지를 섬긴자들을 살해해야 한다는 등 다소간의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여기서의 '까틀'은 은유법으로 '회개 또는 속죄'라는 뜻으로 해석함이 원뜻에 가깝다.

ذٰلِكُمْ خَيْرٌ لَّكُمْ عِندَ بَارِئِكُمْ فَتَابَ عَلَيْكُمْ إِنَّهُ هُوَ التَّوَّابُ الرَّحِيمُ ﴿٥٤﴾

회개하고 속죄하라 주님의 은총이 있어 너희들을 용서할 것이라 진실로 그분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시니라

وَإِذْ قُلْتُمْ يَا مُوسَىٰ لَن نُّؤْمِنَ لَكَ حَتَّىٰ نَرَى اللَّهَ جَهْرَةً فَأَخَذَتْكُمُ الصَّاعِقَةُ وَأَنتُمْ تَنظُرُونَ ﴿٥٥﴾

55. 모세야 하나님의 형상을 볼 때까지는 믿을 수 없도다 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라 그때 천둥과 번개가 그들을 불태워 버렸음을 너희는 지켜보지 아니했느뇨[1]

ثُمَّ بَعَثْنَاكُم مِّن بَعْدِ مَوْتِكُمْ لَعَلَّكُمْ تَشْكُرُونَ ﴿٥٦﴾

56. 그런데도 너희가 죽은 후 내가 너희를 부활시켰으니 이에 감사하라

وَظَلَّلْنَا عَلَيْكُمُ الْغَمَامَ وَأَنزَلْنَا عَلَيْكُمُ الْمَنَّ وَالسَّلْوَىٰ كُلُوا مِن طَيِّبَاتِ مَا رَزَقْنَاكُمْ وَمَا ظَلَمُونَا وَلَٰكِن كَانُوا أَنفُسَهُمْ يَظْلِمُونَ ﴿٥٧﴾

57.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그늘을 만들고 만나와 쌀와를 보내며 그대들에게 준 양식 가운데 좋은 것을 먹으라 했거늘 나를 속이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들을 우매하게 하였을 뿐이라[1]

55-1) 이스라엘 자손이 금송아지를 숭배하여 죄를 지은 후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여 그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선정 그로 하여금 그들 백성의 죄를 사과하도록 하였다. 모세로 하여금 70명의 남성들을 선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금식을 하게하고 마음을 청결케 할 것이며 의복을 깨끗이 하라하니 그렇게 하였다. 그런 후 모세는 그들과 함께 시나이 산상으로 가니 그들이 모세에게 말하길 "모세여!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하여 주시오." 하니 모세가 "그렇게 하리라" 대답하였다. 모세가 산상에 이르렀을 때 구름이 다가와 그 산상 전체를 덮어 버렸다. 그때 그 백성들이 다가와 구름속에 들어가 부복하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얼마후 구름이 모세에게서 사라지자 그들이 모세에게 다가와 말하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때까지는 당신을 믿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자 이 계시가 내려지게 되었다. 출애굽기. xxxiii. 20절에서는 이렇게 묘사되고 있다. 그분이 말씀하사, "너희는 나의 얼굴을 볼 수 없나니, 이는 어느 인간도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니라"이로써 하나님의 관용은 무한정하시어 믿음을 부정한 자들까지도 관용을 베푸시나 하나님의 형상을 보겠다는 불신은 용서되지 아니한다.

57-1) 구름으로 뜨거운 태양열을 가리워 안식처처럼 만들어주고 "만나"는 헤브리어로 "만후"라고 하는데 땅에 떨어지는 이슬방울처럼 둥글며 아주 작은 것(출애굽기 xvi : 14)으로, 아랍어 해설에서는 꿀과 같은 것이 떨어져 그것을 물과 혼합하여 마시는 액체, 또는 달콤한 음료수 등으로 풀이되고 있으나 하늘로부터 나무위나 돌위에 떨어져 꿀 형태로 있다가 마르면 진과 같은 껌의 형태로 보는 견해가 다수다.
"쌀와"는 조류메로 일년중 어느 계절에 동부지중해에 바람을 따라 날아드는 맛이 좋은 조류로 보고 있으며 1914-1918년 대전쟁때 참가했던 인도 장교들이 애굽과 팔레스타인 지역 사이에서 목격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한편 후스나인 무함마드 마큼루프는 쌀와를 메추라기로 해석하고 있다(꾸란 어휘해설, p.11).

وَإِذْ قُلْنَا ادْخُلُوا هٰذِهِ الْقَرْيَةَ فَكُلُوا مِنْهَا حَيْثُ شِئْتُمْ رَغَدًا وَادْخُلُوا الْبَابَ سُجَّدًا وَقُولُوا حِطَّةٌ نَغْفِرْ لَكُمْ خَطَايَاكُمْ وَسَنَزِيدُ الْمُحْسِنِينَ ﴿٥٨﴾

58. 하나님이 말한 것을 상기하라 이 마을로 들어가 그대들이 원하는 대로 먹되 엎드려 문으로 들어가 겸손히 회개하라 하나님이 그대들의 죄를 용서하고 선행을 베푸는 사람에게는 보상을 증가할 것이라

فَبَدَّلَ الَّذِينَ ظَلَمُوا قَوْلًا غَيْرَ الَّذِي قِيلَ لَهُمْ فَأَنْزَلْنَا عَلَى الَّذِينَ ظَلَمُوا رِجْزًا مِنَ السَّمَاءِ بِمَا كَانُوا يَفْسُقُونَ ﴿٥٩﴾

59. 그러나 그 우매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계시된 말씀을 변조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 우매한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혹사병을 보내도다. 이는 그들이 계속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1)]

وَإِذِ اسْتَسْقَىٰ مُوسَىٰ لِقَوْمِهِ فَقُلْنَا اضْرِبْ بِعَصَاكَ الْحَجَرَ فَانْفَجَرَتْ مِنْهُ اثْنَتَا عَشْرَةَ عَيْنًا قَدْ عَلِمَ كُلُّ أُنَاسٍ مَشْرَبَهُمْ كُلُوا وَاشْرَبُوا مِنْ رِزْقِ اللَّهِ وَلَا تَعْثَوْا فِي الْأَرْضِ مُفْسِدِينَ ﴿٦٠﴾

60. 상기하라 모세가 그의 백성을 위해 물을 구하매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지팡이로 그 바위를 때리라 하니 그곳으로부터 열두개의 샘이 솟아나와 각 부족들은[1)] 그들이 마실곳을 알았도다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고 마시되 현세에서 해악을 퍼뜨리지 말라

وَإِذْ قُلْتُمْ يَا مُوسَىٰ لَنْ نَصْبِرَ عَلَىٰ طَعَامٍ وَاحِدٍ فَادْعُ لَنَا رَبَّكَ يُخْرِجْ لَنَا مِمَّا تُنْبِتُ الْأَرْضُ مِنْ بَقْلِهَا وَقِثَّائِهَا

61. 그들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모세여 음식 한가지로만 살 수 없나니 목초와 오이 마늘과 아다스 그리고 양파를 하나님께 구원하여

59-1) "이 마을"은 요르단 동쪽에 있는 고을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방탕과 우상숭배의 죄를 짓자(민수기 xxv. 1-2, 8-9) 혹사병으로 24,000명의 생명을 앗아간 무서운 형벌이 내려졌다. "이 마을"을 예루살렘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60-1)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의 부족 형태로 40년동안 아라비아 사막을 행진하다가(민수기 i. ii)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였다.(여호아수기 xiii. xiv). 그 후 야곱의 자손들로부터 열두부족이 유래되는데 야곱은 이스라엘(신의 종복)이라고 불리워졌다.(창세기 xxxii. 28) 이스라엘(야곱)은 레위와 요셉을 포함하여 열두 아들(창세기 xxxv. 22-26)을 두었는데 이 열두 자손들의 후손이 이스라엘 자손들이었다. 레위는 유태 신전에서 사제를 돕보았기 때문에 군복무에서 제외가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인구조사(민수가 I. 47-53)가 시행되어 가나안 땅이 구획정리(여호아수기 xiv. 3)가 되면서 그들은 여러 부족으로 분산이 되었다. 모세와 아론은 레위 가문에 속하게 되었다. 한편 요셉은 애굽에서 자라 파라오 통치하에 제상의 높은 직책으로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을 딴 이프라임(Ephraim)과 미나세(Manasseh) 두 부족의 시조가 되었다. 그리하여 전부 열두 부족이 된 것이다.

وَفُومِهَا وَعَدَسِهَا وَبَصَلِهَا ۖ قَالَ أَتَسْتَبْدِلُونَ الَّذِي
هُوَ أَدْنَىٰ بِالَّذِي هُوَ خَيْرٌ ۚ اهْبِطُوا مِصْرًا فَإِنَّ لَكُم مَّا
سَأَلْتُمْ ۗ وَضُرِبَتْ عَلَيْهِمُ الذِّلَّةُ وَالْمَسْكَنَةُ وَبَاءُو بِغَضَبٍ
مِّنَ اللَّهِ ۗ ذَٰلِكَ بِأَنَّهُمْ كَانُوا يَكْفُرُونَ بِآيَاتِ اللَّهِ
وَيَقْتُلُونَ النَّبِيِّينَ بِغَيْرِ الْحَقِّ ۗ ذَٰلِكَ بِمَا عَصَوا
وَّكَانُوا يَعْتَدُونَ ﴿٦١﴾

주소서 모세 가로되 그것들보다 더 좋은것을[1] 주셨는데 너희는 이 하찮은 것과 바꾸려 하느뇨 아무 곳이나 가 보아라 너희가 구한 것을 얻을지니 이에 하나님은 그들을 보잘 것 없고 처량한 족속으로 만들었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도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예언자들을 무차별 살해했으니 이들은 불신자들이라[2]

إِنَّ الَّذِينَ آمَنُوا وَالَّذِينَ هَادُوا وَالنَّصَارَىٰ وَالصَّابِئِينَ
مَنْ آمَنَ بِاللَّهِ وَالْيَوْمِ الْآخِرِ وَعَمِلَ صَالِحًا فَلَهُمْ أَجْرُهُمْ
عِندَ رَبِّهِمْ وَلَا خَوْفٌ عَلَيْهِمْ وَلَا هُمْ يَحْزَنُونَ ﴿٦٢﴾

62. 꾸란을 믿는 자들이나 구약을 믿는자들이나 그리스도인과 천사들을 믿는 사비안들이나 하나님과 내세를 믿고 선행을 행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보상이 있을 것이며 그대들에게는 두려움도 슬픔도 없을 것이라[1]

وَإِذْ أَخَذْنَا مِيثَاقَكُمْ وَرَفَعْنَا فَوْقَكُمُ الطُّورَ خُذُوا مَا
آتَيْنَاكُم بِقُوَّةٍ وَاذْكُرُوا مَا فِيهِ لَعَلَّكُمْ تَتَّقُونَ ﴿٦٣﴾

63. 너희 유대인과 구약성서에 있는대로 약속을 했으며 뚜르산을 너희들 위로 올렸노라 너희에게 내려준 것을 확고히 잡을 것이며 그 안의 뜻을 생각하라 의로운 사람들이 될 것이라[1]

61-1) 맛나와 쌈와

2) 그들은 약속의 땅을 얻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고 이로 인하여 그들은 여러 가지 재앙을 겪었으며, 앗슈리아까지 노예로 끌려갔는가 하면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아랍의 붕치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지구상에 뿔뿔히 헤어져 방황을 하였다. 이러한 벌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에도 있었지만 예언자들을 학살한 죄의 대가이기도 하였다. 아벨을 학살함으로써 유대인들의 예언자들에 대한 학살이 시작되었다. 야곱의 장남이 요셉을 살해하려 어린 동생을 우물에 밀어 넣었으며 또 예수를 살해하려 음모하였고 무함마드를 살해하려 하였다.

62-1) "사비인"은 유대교나 기독교를 같은 것으로 취급하면서 천사들을 믿는 신도들을 일컫는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이라크 바스라 지역에 약 2,000여명의 사비인 신도들이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63-1)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구약에 있는대로 너희와 약속을 하였고 시나이 산을 너희 안식처가 되게하였으니 너희는 구약의 율법을 따르고 그 말씀을 기억하라. 시나이산(뚜-르 씨-니)은 홍해에 위치하고 아라비아반도 사막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급한 산이다. 여기서 십계명과 율법이 모세에게 계시되었다. 그 이래로 지금까지 모세의 산(자발무사)이라 불리워지고 있다.

64. 그러나 너희는 이를 불신했나니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총과 자비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너희는 멍망하는 자 중에 있을 것이라

ثُمَّ تَوَلَّيْتُمْ مِنْ بَعْدِ ذٰلِكَ ۚ فَلَوْلَا فَضْلُ اللّٰهِ عَلَيْكُمْ وَرَحْمَتُهُ لَكُنْتُمْ مِنَ الْخٰسِرِيْنَ ﴿٦٤﴾

65. 너희 가운데 안식일을 위반한 자들이 있음을 너희가 알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길 그대들은 원숭이가 되어 저주를 받을 것이라[1]

وَلَقَدْ عَلِمْتُمُ الَّذِيْنَ اعْتَدَوْا مِنْكُمْ فِي السَّبْتِ فَقُلْنَا لَهُمْ كُوْنُوْا قِرَدَةً خٰسِئِيْنَ ﴿٦٥﴾

66.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 세대의 백성과 그들의 후손들에게 벌을 내렸으며 하나님을 두려워 하는 사람들에게는 교훈을 주었노라

فَجَعَلْنٰهَا نَكَالًا لِّمَا بَيْنَ يَدَيْهَا وَمَا خَلْفَهَا وَمَوْعِظَةً لِّلْمُتَّقِيْنَ ﴿٦٦﴾

67. 모세가 그의 백성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명령했노라 암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바치라고 하니 당신은 우리들을 조롱하는가 라고 그들이 응답하더라 이때 모세 가로되 주여 이같은 몽매한 자가 되지 않도록하여주소서[1]

وَاِذْ قَالَ مُوْسٰى لِقَوْمِهٖٓ اِنَّ اللّٰهَ يَاْمُرُكُمْ اَنْ تَذْبَحُوْا بَقَرَةً ۭ قَالُوْٓا اَتَتَّخِذُنَا هُزُوًا ۭ قَالَ اَعُوْذُ بِاللّٰهِ اَنْ اَكُوْنَ مِنَ الْجٰهِلِيْنَ ﴿٦٧﴾

68. 그들이 말하길 그것이 어떤 소인지 당신의 주님께 간청하여 설명하여 달라 하니 가로되 그 소는 늙지도 않고 어리지도 않는 중간의 것이라 너희들은 명받은대로 행하라

قَالُوا ادْعُ لَنَا رَبَّكَ يُبَيِّنْ لَّنَا مَا هِيَ ۭ قَالَ اِنَّهٗ يَقُوْلُ اِنَّهَا بَقَرَةٌ لَّا فَارِضٌ وَّلَا بِكْرٌ ۭ عَوَانٌۢ بَيْنَ ذٰلِكَ ۭ فَافْعَلُوْا مَا تُؤْمَرُوْنَ ﴿٦٨﴾

69. 그것은 또 무슨 색깔인지 당신의 주님께 청하여 설명하여 달라[1] 하니 가로되 그 소는 맑고 노란색이며 보는이를 감탄케 하노라

قَالُوا ادْعُ لَنَا رَبَّكَ يُبَيِّنْ لَّنَا مَا لَوْنُهَا ۭ قَالَ اِنَّهٗ يَقُوْلُ اِنَّهَا بَقَرَةٌ صَفْرَاۗءُ ۙ فَاقِعٌ لَّوْنُهَا تَسُرُّ النّٰظِرِيْنَ ﴿٦٩﴾

65-1) 모세의 율법하에서 '싸바트'를 위반한 죄의 대가는 죽음이었다. 어느 누구든 '싸바트'를 모독하는 자는 분명 사형에 처하게 되며 그날 일을 한자는 그의 백성으로부터 소외되었다(출애굽기. xxxi. 14).

67-1) 이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파라오의 모진 학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인내하였기 때문에 다른 백성에 앞서 그들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셨다.

69-1) 흰 색인지 검은 색인지 아니면 그밖의 다른 색깔인지 물어보았다.

قَالُوا ادْعُ لَنَا رَبَّكَ يُبَيِّنْ لَنَا مَا هِيَ ۚ إِنَّ الْبَقَرَ تَشَابَهَ عَلَيْنَا ۖ وَإِنَّا إِنْ شَاءَ اللَّهُ لَمُهْتَدُونَ ﴿٧٠﴾

70. 그들이 말하길 그것이 어떤 소인지 당신의 주님께 청하여 설명하여 달라 실로 그 암소들이 우리에게는 닮아보이도다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알게 되리라

قَالَ إِنَّهُ يَقُولُ إِنَّهَا بَقَرَةٌ لَا ذَلُولٌ تُثِيرُ الْأَرْضَ وَلَا تَسْقِي الْحَرْثَ ۖ مُسَلَّمَةٌ لَا شِيَةَ فِيهَا ۚ قَالُوا الْآنَ جِئْتَ بِالْحَقِّ ۚ فَذَبَحُوهَا وَمَا كَادُوا يَفْعَلُونَ ﴿٧١﴾

71. 가로되 그 소는 땅을 일구고 물을 대도록 길들여지지 아니한 흠이 없는 건전한 것이라 하니 이제 당신은 사실을 설명 하였소 라고 말하며 마지 못하여 그 소를 희생 하였더라

وَإِذْ قَتَلْتُمْ نَفْسًا فَادَّارَأْتُمْ فِيهَا ۖ وَاللَّهُ مُخْرِجٌ مَا كُنْتُمْ تَكْتُمُونَ ﴿٧٢﴾

72. 너희가 한 인간을 살인하고서 이 사실을 감추려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숨긴 것을 들추어 내시니라

فَقُلْنَا اضْرِبُوهُ بِبَعْضِهَا ۚ كَذَٰلِكَ يُحْيِي اللَّهُ الْمَوْتَىٰ وَيُرِيكُمْ آيَاتِهِ لَعَلَّكُمْ تَعْقِلُونَ ﴿٧٣﴾

73. 그 소의 일부를 가지고 그 시체를 때리라[1]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소생시켜 그분의 예증을 그처럼 밝히시니 너희는 이해하게 되리라

ثُمَّ قَسَتْ قُلُوبُكُمْ مِنْ بَعْدِ ذَٰلِكَ فَهِيَ كَالْحِجَارَةِ

74. 그런후에도[1] 너희의 마음은 바위처럼 아니 그보다 단단하게

73-1)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한 거부가 있었는데 이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으므로 그의 재산은 그의 조카가 상속자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어느날 이 조카는 거부인 삼촌을 살해한 후 밤중몰래 그 시체를 어떤 사람의 집 대문에 갖다 놓았다. 이로 인하여 그 주변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밀고하매 큰 싸움이 벌어졌다.
이때 이 광경을 지켜보았던 그 고을의 군수가 "왜들 서로가 싸움을 합니까? 여러분들을 위한 예언자가 있지 않습니까?"라고 말하자 그들은 예언자인 모세에게로 갔다. 이야기를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암송아지 한마리를 잡으라 너희에게 명령했노라)"라고 그들에게 이르니, 이때 이들은 왜 송아지를 잡아야 할 이유에 대해 서로가 논쟁을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암송아지 한마리를 잡도록 하였으니…
그리하여 그들은 암송아지 한마리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한 남자를 발견하매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그 송아지의 벗긴 가죽에다 금을 가득채워 그 송아지를 구입하도록 하였으니 그들은 그렇게 하고 그 송아지를 도살하여 그 송아지 시체 일부분으로 살해된자의 시체를 때렸더니 그 시체가 살아 일어나도다. 이때 그들이, "누가 당신을 살해하였습니까?" 물으니 그의 조카를 가르키고는 다시 송장이 되어버렸다. 그 후로 살인자에게는 상속이 되지 아니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52-53).

74-1) 그러나 분명한 기적이 있은 후에 조차도

أَوْ أَشَدُّ قَسْوَةً ۗ وَإِنَّ مِنَ الْحِجَارَةِ لَمَا يَتَفَجَّرُ مِنْهُ الْأَنْهَارُ ۚ وَإِنَّ مِنْهَا لَمَا يَشَّقَّقُ فَيَخْرُجُ مِنْهُ الْمَاءُ ۚ وَإِنَّ مِنْهَا لَمَا يَهْبِطُ مِنْ خَشْيَةِ اللَّهِ ۗ وَمَا اللَّهُ بِغَافِلٍ عَمَّا تَعْمَلُونَ ﴿٧٤﴾

굳어졌노라 바위가 쪼개져 강이 흐르고 그 강이 갈라져 물이 흘러 나오며 하나님이 두려워 바위도 무너지도다 하나님은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أَفَتَطْمَعُونَ أَنْ يُؤْمِنُوا لَكُمْ وَقَدْ كَانَ فَرِيقٌ مِنْهُمْ يَسْمَعُونَ كَلَامَ اللَّهِ ثُمَّ يُحَرِّفُونَهُ مِنْ بَعْدِ مَا عَقَلُوهُ وَهُمْ يَعْلَمُونَ ﴿٧٥﴾

75. 너희들은 그들이[1] 너희와 더불어 믿음을 같이 하기를 바라느뇨 그들의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 하면서도 그 말씀을 왜곡하도다[2]

وَإِذَا لَقُوا الَّذِينَ آمَنُوا قَالُوا آمَنَّا ۖ وَإِذَا خَلَا بَعْضُهُمْ إِلَىٰ بَعْضٍ قَالُوا أَتُحَدِّثُونَهُمْ بِمَا فَتَحَ اللَّهُ عَلَيْكُمْ لِيُحَاجُّوكُمْ بِهِ عِنْدَ رَبِّكُمْ ۚ أَفَلَا تَعْقِلُونَ ﴿٧٦﴾

76. 보라 그들이 믿는 사람들을 만났을때는 우리도 믿나이다 라고 말하고 그들이 각각 만났을때는 하나님 앞에서 증거가 되도록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계시한 것을 그들에게 얘기해야 되느뇨[1] 너희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더뇨[2] 하더라

أَوَلَا يَعْلَمُونَ أَنَّ اللَّهَ يَعْلَمُ مَا يُسِرُّونَ وَمَا يُعْلِنُونَ ﴿٧٧﴾

77. 그들이 숨기는 것과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단 말이뇨

75-1) 유대인들

2) 이절은 메디나 토박이(Ansari) 신앙인들에게 계시된 말씀으로 같이 살아온 이웃 유대인들이 이슬람에 귀의하기를 기대하자 이 말씀이 계시되었다(알바흐르 알무히뜨 271/1). 본절에서 말씀을 왜곡하였다 함은 유대인이 모세를 통해 계시 된 구약 말씀을 왜곡했음을 뜻한다.

76-1) 구약에 묘사된 무함마드에 관한 소식을 무함마드 동료들에게 전해주려 하느뇨 오히려 그것은 내세에 가서 무슬림 신앙인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라.

2) 이절은 산재해 있었던 유대인들의 위선을 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만일 메디나의 무슬림들이 그들 유대인 성서에 예언된 무함마드를 선택된 예언자로 그곳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를 희망했다면 오히려 그것이 잘못이었다. 신명기. xviii. 18 절을 보면 "내가 그대들에게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대(모세)와 같은 한 예언자를 보내리라" 이 절은 그들 박사들에 의해서 무함마드로 풀이되었다. 형제들이라 함은 셈족으로써 아랍백성도 셈족으로 무함마드가 올때까지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출현하지 아니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모세이후 수세기 동안 기록된 신명기 후기에서는, "그 이래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오지 아니했나니"로 묘사되고 있다. 유대인들은 무함마드를 시기 및 질투하면서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무슬림 공동사회가 강하게 되면서부터는 그들도 무슬림들인척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그들의 성서 원래의 말씀을 감추어 버렸다.

وَمِنْهُمْ أُمِّيُّونَ لَا يَعْلَمُونَ الْكِتَابَ إِلَّا أَمَانِيَّ وَإِنْ هُمْ إِلَّا يَظُنُّونَ ﴿٧٨﴾

78. 그들 중에는 글을 알지못하여 그 성서를 알지 못하매 단지 추측만을 했을 뿐이라[1]

فَوَيْلٌ لِّلَّذِينَ يَكْتُبُونَ الْكِتَابَ بِأَيْدِيهِمْ ثُمَّ يَقُولُونَ هَٰذَا مِنْ عِندِ اللَّهِ لِيَشْتَرُوا بِهِ ثَمَنًا قَلِيلًا ۖ فَوَيْلٌ لَّهُم مِّمَّا كَتَبَتْ أَيْدِيهِمْ وَوَيْلٌ لَّهُم مِّمَّا يَكْسِبُونَ ﴿٧٩﴾

79. 그들 손으로 그 성서를 써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 값싸게 사소서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1] 재앙이 있을 것이며 그것을 쓴 그들의 손에도 재앙이 올 것이며 그로써 금전을 모으는 자들에게 큰 재앙이 있을 것이라[2]

وَقَالُوا لَن تَمَسَّنَا النَّارُ إِلَّا أَيَّامًا مَّعْدُودَةً ۚ قُلْ أَتَّخَذْتُمْ عِندَ اللَّهِ عَهْدًا فَلَن يُخْلِفَ اللَّهُ عَهْدَهُ ۖ أَمْ تَقُولُونَ عَلَى اللَّهِ مَا لَا تَعْلَمُونَ ﴿٨٠﴾

80. 그들은 불의 재앙이 몇일간을 제외하고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니 일러 가로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했느뇨 실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니 너희는 하나님에 관해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려 하느뇨[1]

بَلَىٰ مَن كَسَبَ سَيِّئَةً وَأَحَاطَتْ بِهِ خَطِيئَتُهُ فَأُولَٰئِكَ أَصْحَابُ النَّارِ ۖ هُمْ فِيهَا خَالِدُونَ ﴿٨١﴾

81. 사악을 저지르는 자 죄악이 그를 포섭하니 그는 불지옥의 주인이 되어 그곳에서 영원히 기거하리라

وَالَّذِينَ آمَنُوا وَعَمِلُوا الصَّالِحَاتِ أُولَٰئِكَ أَصْحَابُ الْجَنَّةِ ۖ هُمْ فِيهَا خَالِدُونَ ﴿٨٢﴾

82. 그러나 믿음으로 선행을 행하는자는 천국의 주인이 되어 그곳에서 영생하리라

وَإِذْ أَخَذْنَا مِيثَاقَ بَنِي إِسْرَائِيلَ لَا تَعْبُدُونَ

83.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78-1) 글을 알지 못하여 구약의 내용을 읽지 못하고 단지 추측에 의해서만 구약의 진실을 이해 하려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관용을 베풀것이라 풀이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 씨르. 제1권. p.57).

79-1) 모세에게 계시된 구약의 진리를 변경한 그들위에

2)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목적을 위해 점 하나라도 변경되거나 보완되거나 감소되거나 더하여 져서는 아니된다는 교훈을 제시하고 있으며 아부 알싸우드는 유대인들이 구약성서에 비친 선지자 무함마드에 관한 묘사를 변경하였다고 말하고 있다.(타르씨르 아비 알싸우드 94/1)

80-1)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자기들의 죄는 용서받고, 불지옥의 벌은 다른 백성들에게 있을 것이라며, 불의 재앙을 받더라도 자기들이 금송아지를 섬겼던 기간이 칠일동안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58).

إِلَّا اللَّهَ وَبِالْوَالِدَيْنِ إِحْسَانًا وَذِي الْقُرْبَىٰ وَالْيَتَامَىٰ وَالْمَسَاكِينِ وَقُولُوا لِلنَّاسِ حُسْنًا وَأَقِيمُوا الصَّلَاةَ وَآتُوا الزَّكَاةَ ثُمَّ تَوَلَّيْتُمْ إِلَّا قَلِيلًا مِنْكُمْ وَأَنْتُمْ مُعْرِضُونَ ﴿٨٣﴾

하사[1]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경배하지 말며 부모와 친척에게 고아와[2] 불우한 자들에게[3] 자선을 베풀고 사람에겐 겸손하며 예배를 드리고 이슬람세를 바치라 했거늘 너희중 소수를 제외하고는 외면하며 등을 돌리도다

وَإِذْ أَخَذْنَا مِيثَاقَكُمْ لَا تَسْفِكُونَ دِمَاءَكُمْ وَلَا تُخْرِجُونَ أَنْفُسَكُمْ مِنْ دِيَارِكُمْ ثُمَّ أَقْرَرْتُمْ وَأَنْتُمْ تَشْهَدُونَ ﴿٨٤﴾

84. 하나님이 너희에게 성약을 하사[1] 너희 백성들의 피를 흘려서도 않되며 백성들의 일부를 너희 주거지로부터 추방해서도 아니된다 하였거늘 너희는 엄숙히 약속한 증인들이 아니더뇨

ثُمَّ أَنْتُمْ هَٰؤُلَاءِ تَقْتُلُونَ أَنْفُسَكُمْ وَتُخْرِجُونَ فَرِيقًا مِنْكُمْ مِنْ دِيَارِهِمْ تَظَاهَرُونَ عَلَيْهِمْ بِالْإِثْمِ وَالْعُدْوَانِ وَإِنْ يَأْتُوكُمْ أُسَارَىٰ تُفَادُوهُمْ وَهُوَ مُحَرَّمٌ عَلَيْكُمْ إِخْرَاجُهُمْ أَفَتُؤْمِنُونَ بِبَعْضِ الْكِتَابِ وَتَكْفُرُونَ بِبَعْضٍ فَمَا جَزَاءُ مَنْ يَفْعَلُ ذَٰلِكَ مِنْكُمْ إِلَّا خِزْيٌ فِي الْحَيَاةِ الدُّنْيَا وَيَوْمَ الْقِيَامَةِ يُرَدُّونَ إِلَىٰ أَشَدِّ الْعَذَابِ وَمَا اللَّهُ بِغَافِلٍ عَمَّا تَعْمَلُونَ ﴿٨٥﴾

85. 그런후에도 서로 살생을 하고 주거지로부터 추방을 하며 죄악과 앙심을 조성하고 포로가 될 때는 보석금을 갈취하도다 실로 그들을 추방하는 것은 불법이며 성서의 일부만 믿고 일부를 불신하는 자[1] 그들을 위한 현세의 보상은 무엇이겠느뇨 실로 이생에서 치욕이 있을 뿐이며 심판의 날 엄한 응벌이 있을 것이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이라

أُولَٰئِكَ الَّذِينَ اشْتَرَوُا الْحَيَاةَ الدُّنْيَا بِالْآخِرَةِ فَلَا يُخَفَّفُ عَنْهُمُ الْعَذَابُ وَلَا هُمْ يُنْصَرُونَ ﴿٨٦﴾

86. 그들은 내세를 팔아 현세를 사는 자들이니 그들의 죄는 경감되지 않으며 어떤 도움도 없을 것이라

وَلَقَدْ آتَيْنَا مُوسَى الْكِتَابَ وَقَفَّيْنَا مِنْ بَعْدِهِ بِالرُّسُلِ

87.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서를[1] 주었고 그를 이어 예언자들을 오

83-1) 유대인들이여! 우리(하나님)가 너희 선조들과 성약한 것을 상기하라!
2) 야타마: 아비지가 벌세한 어린아이
3) 마싸킨: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이 일용할 양식을 얻기 어려운 사람들

84-1) 서로가 서로를 살해하지 말라.

85-1) 구약(타우라)의 일부 규범만 믿고 일부 규범은 불신하는 사람

87-1) 구약성서

وَاٰتَيْنَا عِيْسَى ابْنَ مَرْيَمَ الْبَيِّنٰتِ وَاَيَّدْنٰهُ بِرُوْحِ الْقُدُسِ ؕ اَفَكُلَّمَا جَآءَكُمْ رَسُوْلٌۢ بِمَا لَا تَهْوٰٓى اَنْفُسُكُمُ اسْتَكْبَرْتُمْ ۚ فَفَرِيْقًا كَذَّبْتُمْ وَفَرِيْقًا تَقْتُلُوْنَ ﴿٨٧﴾

게 하였으며 마리아의 아들 예수에게 권능를 주어 성령으로[2] 그를 보호케 하였노라 너희들이[3] 바라지 않는 한 선지자가 왔을 때 너희들은 자태를 부리고 일부는 거짓을 일삼고[4] 일부는 살인을 행한다 말이뇨[5]

وَقَالُوْا قُلُوْبُنَا غُلْفٌ ؕ بَلْ لَّعَنَهُمُ اللّٰهُ بِكُفْرِهِمْ فَقَلِيْلًا مَّا يُؤْمِنُوْنَ ﴿٨٨﴾

88. 이때 그들은 저희의 마음이 굳었나이다 라고 대답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신함에[1] 저주를 내리시니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이라

وَلَمَّا جَآءَهُمْ كِتٰبٌ مِّنْ عِنْدِ اللّٰهِ مُصَدِّقٌ لِّمَا مَعَهُمْ ۙ وَكَانُوْا مِنْ قَبْلُ يَسْتَفْتِحُوْنَ عَلَى الَّذِيْنَ كَفَرُوْا ۚ فَلَمَّا جَآءَهُمْ مَّا عَرَفُوْا كَفَرُوْا بِهٖ ۚ فَلَعْنَةُ اللّٰهِ عَلَى الْكٰفِرِيْنَ ﴿٨٩﴾

89. 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성서가 도래하였을 때[1] 이는 이미 확증된 것이거늘[2] 이것은 불신자들에 대한 승리라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는 그분이 왔을 때 그들은 그것을[3] 불신하였나니 이들 불신자들에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라[4]

بِئْسَمَا اشْتَرَوْا بِهٖٓ اَنْفُسَهُمْ اَنْ يَّكْفُرُوْا بِمَآ اَنْزَلَ اللّٰهُ بَغْيًا اَنْ يُّنَزِّلَ اللّٰهُ مِنْ فَضْلِهٖ عَلٰى مَنْ يَّشَآءُ مِنْ عِبَادِهٖ ۚ

90. 자기의 영혼을 파는 사람과[1] 하나님이 계시한 것을 불신하는 자들에게[2] 하나님이 원하는 그분의 종에게 그분의 은혜가 내려지는 것을 시기하는 자들 위에 재앙

---

2) 가브리엘 천사, 신약성서인 인질 또는 살세포와 배등 형체가 형성되기 이전 예수의 영혼일 것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3) 유대인
4) 모세와 예수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5) 요한이나 자카리야를 살해하였듯이

88-1) "쿠푸르"는 여러가지 뉴앙스를 갖고 있다. 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할 줄 모르는 것, ② 하나님의 계시를 부정하는 것, ③ 하나님의 속성을 모독하는 것.

89-1) 그 성서는 마지막 선지자에게 계시된 꾸란을 말하며,
2) 마지막 선지자는 구약에 기록되어 확증되고 있다.
3)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 무함마드를 통해서 계시된 말씀
4) 하나님은 마지막 선지자를 불신한 죄악으로 유대인들에게 저주를 내렸고 앞으로 그럴 것이라.

90-1) 유대인들
2) 하나님께서 계시한 꾸란을 불신하는 자

فَبَآءُو بِغَضَبٍ عَلَىٰ غَضَبٍ ۚ وَلِلْكَٰفِرِينَ عَذَابٌ مُّهِينٌ ﴿٩٠﴾

이 있을 것이라[3] 그들은 분노에 분노를 초래하였으니 불신자들에게는 수치스러운 징벌이 있을 것이라

وَإِذَا قِيلَ لَهُمْ ءَامِنُوا۟ بِمَآ أَنزَلَ ٱللَّهُ قَالُوا۟ نُؤْمِنُ بِمَآ أُنزِلَ عَلَيْنَا وَيَكْفُرُونَ بِمَا وَرَآءَهُۥ وَهُوَ ٱلْحَقُّ مُصَدِّقًا لِّمَا مَعَهُمْ ۗ قُلْ فَلِمَ تَقْتُلُونَ أَنۢبِيَآءَ ٱللَّهِ مِن قَبْلُ إِن كُنتُم مُّؤْمِنِينَ ﴿٩١﴾

91. 하나님이 내린 게시를 믿으라 했을 때[1] 우리에게 게시된 것을 믿나이다[2] 라고 대답하되 그 이후의 것은 그것이 사실임을 확증하면서도 불신하도다[3] 그들이 믿는 자들이라면 그 이전의 선지자들을 왜 살해 하였는가 그들에게 물어보라

وَلَقَدْ جَآءَكُم مُّوسَىٰ بِٱلْبَيِّنَٰتِ ثُمَّ ٱتَّخَذْتُمُ ٱلْعِجْلَ مِنۢ بَعْدِهِۦ وَأَنتُمْ ظَٰلِمُونَ ﴿٩٢﴾

92. 모세가 예증들을 갖고 너희에게 왔으나 그가 없는 동안[1] 너희는 송아지를 숭배했나니 너희는 우매한 자들이라

وَإِذْ أَخَذْنَا مِيثَٰقَكُمْ وَرَفَعْنَا فَوْقَكُمُ ٱلطُّورَ خُذُوا۟ مَآ ءَاتَيْنَٰكُم بِقُوَّةٍ وَٱسْمَعُوا۟ ۖ قَالُوا۟ سَمِعْنَا وَعَصَيْنَا ۖ وَأُشْرِبُوا۟ فِى قُلُوبِهِمُ ٱلْعِجْلَ بِكُفْرِهِمْ ۚ قُلْ بِئْسَمَا يَأْمُرُكُم بِهِۦٓ إِيمَٰنُكُمْ إِن كُنتُم مُّؤْمِنِينَ ﴿٩٣﴾

93. 하나님이 너희와 성약을 한 것과 너희들 위로 시나이 산을 솟게하고 너희에게 내려준 것을 지키며 그 율법에 귀를 기울이라 했을때 우리는 들었으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거절하도다라고 말하니 그들은 자신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속에 암송아지 가루의[1] 물을 마셔야만

---

3) 유대인들의 인종적 오만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종복을 통해서 게시된 진리를 불신하였다. 유대인들만이 신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보는 오만! 어떻게 한 민족 또는 한 백성만이 신의 선택을 받도록 되어있단 말인가?

91-1) 하나님께서 게시한 꾸란을 믿고 따르라 하니,
2) "우리에게 게시된 구약으로 충족하도다"라고 그들은 대답하였도다.
3) 꾸란의 계시가 무함마드를 통하여 있을 것이라는 예언이 그들 성서인 구약에 기록되었음을 그들이 확증하면서도.

92-1)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으로 시나이 산상으로 가고 없는 동안.

93-1) 시나이 산상에서 십계명과 율법이 게시된 후 백성들은 엄숙히 지킬 것을 약속하였다. 그런데 모세가 산상으로 간후 그가 없는 동안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였다. 이 모습을 본 모세는 화가났다. "그는 그들이 만든 암송아지를 가져가 그것을 불에 태운후 가루로 만들어 물위에 뿌린다음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그것을 마시도록 했으니"(출애굽기. xxxiii. 20), 이 사건이 꾸란에서 비유하여 묘사되고 있다. 암송아지는 불신과 오만의 상징이

했더라 일러가로되 너희가 어떤 믿음을 가졌다 해도 너희의 믿음에는 저주가 있으리라

قُلْ إِنْ كَانَتْ لَكُمُ الدَّارُ الْآخِرَةُ عِنْدَ اللَّهِ خَالِصَةً مِنْ دُونِ النَّاسِ فَتَمَنَّوُا الْمَوْتَ إِنْ كُنْتُمْ صَادِقِينَ ﴿٩٤﴾

94. 일러가로되 하나님 편에 있는 내세의 집이 누구도 들어 갈 수 없는 너희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리고 너희가 진실한 자들이라면 천국으로 이르는 죽음을 동경하라

وَلَنْ يَتَمَنَّوْهُ أَبَدًا بِمَا قَدَّمَتْ أَيْدِيهِمْ وَاللَّهُ عَلِيمٌ بِالظَّالِمِينَ ﴿٩٥﴾

95. 그러나 그들은 전에 그들의 손으로 저지른 죄의 대가로 결코 죽음을 택하지 않을 것이라 실로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노라

وَلَتَجِدَنَّهُمْ أَحْرَصَ النَّاسِ عَلَى حَيَاةٍ وَمِنَ الَّذِينَ أَشْرَكُوا يَوَدُّ أَحَدُهُمْ لَوْ يُعَمَّرُ أَلْفَ سَنَةٍ وَمَا هُوَ بِمُزَحْزِحِهِ مِنَ الْعَذَابِ أَنْ يُعَمَّرَ وَاللَّهُ بَصِيرٌ بِمَا يَعْمَلُونَ ﴿٩٦﴾

96. 그대는 그들의[1] 현세 삶에 대한 탐욕과 불신자들의 탐욕을 발견하리라 그들 각자는 천년을 장수하고자 하나 그 장수는 그들을 재앙으로부터 구원하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라[2]

قُلْ مَنْ كَانَ عَدُوًّا لِجِبْرِيلَ فَإِنَّهُ نَزَّلَهُ عَلَى قَلْبِكَ

97. 일러가로되 가브리엘 천사의[1]

고 물에 뿌려진 그 암송아지의 가루는 독약과 같은 것이며, 유대인들은 그들이 불신한 죄의 대가로 물에 뿌려진 가루를 마셔야만 했다.

96-1) 유대인

2) 이 말씀이 계시된 동기는 다음과 같이 전하여지고 있다.
유대인들이 선지자에게 말하길, "주님으로부터 천사들가운데 한 천사가 메시지와 계시를 가져오지 아니하면 예언자가 아닌데 당신의 천사는 누구요? 우리가 따르고자 하오"라고 하니 선지자께서 말씀하시길, "가브리엘" 천사라고 대답했다. 그들이 말하길 "가브리엘은 전쟁과 살인을 일삼은 자로써 우리의 적이도다! 만일 당신이 비를 내리게 하고 자비를 가지온 "미카엘"천사가 당신께 왔다고 했다면 우리는 당신을 따랐을 것이오"라고 하자 이 말씀이 계시되었다(타프씨르 알꾸르뚜비 36/2).

97-1) 무함마드 시절 일부 유대인들은 가브리엘 천사가 말씀을 가지고 무함마드에게 나타났을때, 무슬림들의 믿음을 조롱하였다. "미카엘 천사는 이스라엘 자손을 대변하는 가장 훌륭한 왕자(다니엘. xii. 1)로 불리웠고, 가브리엘 천사의 출현은 두려움을 자아냈으니"(다니엘. viii. 16-17) 이러한 구실로 미카엘 천사는 그들의 친구였고 가브리엘 천사는 자기들의 적이라는 구실은 단순히 천사들과 예언자들을 불신한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한 것과 다를바 없었다.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한 천사를 믿고 다른 천사를 믿으려 하지 않는 그들의 신앙은 온전치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었다.

بِإِذْنِ اللّٰهِ مُصَدِّقًا لِّمَا بَيْنَ يَدَيْهِ وَهُدًى وَّبُشْرٰى لِلْمُؤْمِنِيْنَ ﴿٩٧﴾

적은 하나님의 적이라 말하라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그대에게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꾸란을 계시하셨나니 그것은 이전에 확증되었노라 그것은 믿음이 진실한 자의 길이요 복음이니라

مَنْ كَانَ عَدُوًّا لِّلّٰهِ وَمَلٰٓئِكَتِهٖ وَرُسُلِهٖ وَجِبْرِيْلَ وَمِيْكٰلَ فَإِنَّ اللّٰهَ عَدُوٌّ لِّلْكٰفِرِيْنَ ﴿٩٨﴾

98.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과 가브리엘과 미카엘에게의 적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적이거늘 실로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자들의 대적이시라

وَلَقَدْ أَنْزَلْنَآ إِلَيْكَ اٰيٰتٍۢ بَيِّنٰتٍ ۚ وَمَا يَكْفُرُ بِهَآ إِلَّا الْفٰسِقُوْنَ ﴿٩٩﴾

99. 하나님이 그대에게 분명한 징표를 보냈으니 이단자들 외에는 이를 불신하지 않으리라

أَوَكُلَّمَا عٰهَدُوْا عَهْدًا نَّبَذَهٗ فَرِيْقٌ مِّنْهُمْ ۚ بَلْ أَكْثَرُهُمْ لَا يُؤْمِنُوْنَ ﴿١٠٠﴾

100. 그들이 성약을 할 때마다 그들 가운데 일부가 그것을 불신했으니 그들 대다수는 믿음이 없었더라

وَلَمَّا جَآءَهُمْ رَسُوْلٌ مِّنْ عِنْدِ اللّٰهِ مُصَدِّقٌ لِّمَا مَعَهُمْ نَبَذَ فَرِيْقٌ مِّنَ الَّذِيْنَ أُوْتُوا الْكِتٰبَ كِتٰبَ اللّٰهِ وَرَآءَ ظُهُوْرِهِمْ كَأَنَّهُمْ لَا يَعْلَمُوْنَ ﴿١٠١﴾

101.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에게 한 선지자가[1] 왔을때 구약에서 확증 되었노라 그런데 그 성서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서를 불신하며[2] 뒤에서는 모르는 척 하였더라

وَاتَّبَعُوْا مَا تَتْلُوا الشَّيٰطِيْنُ عَلٰى مُلْكِ سُلَيْمٰنَ ۚ وَمَا كَفَرَ سُلَيْمٰنُ وَلٰكِنَّ الشَّيٰطِيْنَ كَفَرُوْا يُعَلِّمُوْنَ النَّاسَ السِّحْرَ ۗ وَمَآ أُنْزِلَ عَلَى الْمَلَكَيْنِ بِبَابِلَ

102. 그들은 사탄들이 솔로몬 왕의 권능에 대항하여 허위 진술한 것을 따랐노라 솔로몬은 이를 불신하였으나 사탄들은 거역하며 백성들에게 요술[1]과 또 바벨왕국 시절의 하루트와 마루트 두 천사에

101-1) 선지자 무함마드

2) 이 성서는 꾸란이라고도 해석될 수 있으나 본 절에서는 구약으로 풀이되고 있다. 즉 구약을 불신하였다 함은 최후의 선지자가 도래할 것이라는 예언이 기록된 그 말씀을 불신하였다는 뜻으로 본다.

102-1) 마술의 방법과 관습의 행위

هَارُوتَ وَمَارُوتَ ۚ وَمَا يُعَلِّمَانِ مِنْ أَحَدٍ حَتَّىٰ يَقُولَا إِنَّمَا
نَحْنُ فِتْنَةٌ فَلَا تَكْفُرْ ۖ فَيَتَعَلَّمُونَ مِنْهُمَا مَا يُفَرِّقُونَ
بِهِ بَيْنَ الْمَرْءِ وَزَوْجِهِ ۚ وَمَا هُمْ بِضَارِّينَ بِهِ مِنْ
أَحَدٍ إِلَّا بِإِذْنِ اللَّهِ ۚ وَيَتَعَلَّمُونَ مَا يَضُرُّهُمْ
وَلَا يَنْفَعُهُمْ ۚ وَلَقَدْ عَلِمُوا لَمَنِ اشْتَرَاهُ مَا لَهُ
فِي الْآخِرَةِ مِنْ خَلَاقٍ ۚ وَلَبِئْسَ مَا شَرَوْا بِهِ
أَنْفُسَهُمْ ۚ لَوْ كَانُوا يَعْلَمُونَ ﴿١٠٢﴾

게 내려졌던 것 같은 것을[2] 가르쳤으나 천사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그것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말하길 우리는 단지 시험에 들었으니 하나님의 인도를 불신하지 말라 이들로부터 백성들은 남자와 아내를 구별하는 불화의 요소를 배웠으나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들은 어느 누구도 해치지 못하노라 그리고 그들은 해치는 것과 그들에게 유용하지 않는 것도 배웠노라 유대인들은 요술을 선택한 자들이 내세에서 행복을 가질 수 없다는 것도 배웠노라 그들의 영혼을 팔아버린 그들위에 저주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으리라[3]

وَلَوْ أَنَّهُمْ آمَنُوا وَاتَّقَوْا لَمَثُوبَةٌ مِنْ عِنْدِ اللَّهِ خَيْرٌ ۖ
لَوْ كَانُوا يَعْلَمُونَ ﴿١٠٣﴾

103. 만일 그들이 믿음을 갖고 악을 멀리하였다면 그들에게는 마술을 배운 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보상이 있었을 것이라

يَا أَيُّهَا الَّذِينَ آمَنُوا لَا تَقُولُوا رَاعِنَا وَقُولُوا انْظُرْنَا
وَاسْمَعُوا ۗ وَلِلْكَافِرِينَ عَذَابٌ أَلِيمٌ ﴿١٠٤﴾

104. 믿는자들이여 선지자에게 애매모호한 말을 하지 말며 존칭어로 말하고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라 믿음이 없는 자들에겐 고통스러운 벌이 있을 것이라[1]

مَا يَوَدُّ الَّذِينَ كَفَرُوا مِنْ أَهْلِ الْكِتَابِ وَلَا الْمُشْرِكِينَ

105. 성서의 백성들 가운데 믿음

---

2) 바벨 왕국 쿠파의 땅에 거주 했던 하루트 왕과 마루트를 시험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계시했던것(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69).

3) 이 계시는 선지자 무함마드가 솔로몬을 언급했을 때 유대인의 교구장들은 "다윗의 아들이 예언자였다고 주장하는 무함마드가 이상하지 않는가!? 그는(솔로몬) 마술장이가 아니었는가?"라고 하자, (솔로몬이 마술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사탄들이 마술을 가르쳤느니라)라고 계시가 내려졌다.
이 당시는 여러 가지의 마술이 번성하였던 시기로 유대인들은 예언자들을 요술장이라고 하였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두 천사 하룬과 마룬을 보내어 백성에게 마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요술과 기적을 구별하도록 하였다(타프씨르 알꾸르뚜비 41/2).

104-1) "라~이나"를 "애매 모호한"말로 표현하였다. "라~이나"는 "리아~야"에서 유래한 것으로 "인류의 복지를 보살핀다"는 뜻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뜻을 조소하기 위하여 천자를 생략하여 "루우-나"에서 파생되고 있는 "라~이나"로 바꾸어 "어리석음"이란 뜻으로 만들어 버렸다.

اَنْ يُّنَزِّلَ عَلَيْكُمْ مِّنْ خَيْرٍ مِّنْ رَّبِّكُمْ ۗ وَاللّٰهُ يَخْتَصُّ بِرَحْمَتِهٖ مَنْ يَّشَآءُ ۗ وَاللّٰهُ ذُو الْفَضْلِ الْعَظِيْمِ ﴿١٠٥﴾

이 없는 자들이나 불신자들은 그들 주님으로부터 너희들 위에 복음이 계시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이 선택하여 자비를 베푸시니 하나님의 은총은 충만하심이라

مَا نَنْسَخْ مِنْ اٰيَةٍ اَوْ نُنْسِهَا نَاْتِ بِخَيْرٍ مِّنْهَآ اَوْ مِثْلِهَا ۗ اَلَمْ تَعْلَمْ اَنَّ اللّٰهَ عَلٰى كُلِّ شَيْءٍ قَدِيْرٌ ﴿١٠٦﴾

106. 어떤 말씀도 폐기하지 아니하며 망각케하지 아니하되 보다 나은 혹은 그와 동등한 말씀으로 대체하시나니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전지전능하심을 너희는 모르느뇨[1]

اَلَمْ تَعْلَمْ اَنَّ اللّٰهَ لَهٗ مُلْكُ السَّمٰوٰتِ وَالْاَرْضِ ۗ وَمَا لَكُمْ مِّنْ دُوْنِ اللّٰهِ مِنْ وَّلِيٍّ وَّلَا نَصِيْرٍ ﴿١٠٧﴾

107. 천지가 하나님께 있음을 너희는 알지 않느뇨 그분 외에는 보호자도 원조자도 없노라

اَمْ تُرِيْدُوْنَ اَنْ تَسْـَٔلُوْا رَسُوْلَكُمْ كَمَا سُئِلَ مُوْسٰى مِنْ قَبْلُ ۗ وَمَنْ يَّتَبَدَّلِ الْكُفْرَ بِالْاِيْمَانِ فَقَدْ ضَلَّ سَوَآءَ السَّبِيْلِ ﴿١٠٨﴾

108. 모세가 전에 질문을 받았던 것처럼 너희의 선지자께 질문을 하고자 하느뇨 믿음을 버리며 불신하는 자는 바른 길로부터 방황하노라

وَدَّ كَثِيْرٌ مِّنْ اَهْلِ الْكِتٰبِ لَوْ يَرُدُّوْنَكُمْ مِّنْۢ بَعْدِ اِيْمَانِكُمْ كُفَّارًا ۚ حَسَدًا مِّنْ عِنْدِ اَنْفُسِهِمْ مِّنْۢ بَعْدِ مَا تَبَيَّنَ لَهُمُ الْحَقُّ ۚ فَاعْفُوْا وَاصْفَحُوْا حَتّٰى يَاْتِيَ

109. 많은 성서의 백성들은[1] 너희가 믿음을 가지자 불신하기를 원하도다 이는 진실이 그대들에게 명시되매 그들 스스로가 시기하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106-1) 시대가 변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모세에게 계시된 말씀이나 예수나 무함마드에게 계시된 모든 말씀은 그 당시의 필요성과 시대의 요구에 따라 말씀의 표현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하나님 말씀의 윤범은 다를수가 없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에 계시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한 획이라도 폐기, 보완되거나 삭제되거나 변조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수차례 경고되고 있다.
한편 꾸란 2장 115절의 말씀이 2장 144절(끼블라 : 기도의 방향)의 말씀으로 폐기된 것처럼 보는 것은 큰 잘못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지 한 장소에만 계신다고 믿지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존재한다. 그래서 이 말씀은 보다 나은 또는 동등한 말씀으로 대체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절이 계시된 동기는 다음과 같이 전하여지고 있다. 유대인들이 말하길, "무함마드의 명령이 마음에 드는가? 그의 추종자들에게 명령도 했다가 금지도 하고 또 그들에게 서로 다르게 명령하니, 오늘은 이 말을 하고 내일은 그 말을 취소하니 이것은 꾸란이 아니고 무함마드 자신의 얘기가 아닌가"라고 하자 이 말씀이 계시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사파와트 타파-씨르. 제1권. p.71).

109-1) 유대인과 기독교인

اللهُ بِأَمْرِهِ ۗ إِنَّ اللهَ عَلَىٰ كُلِّ شَيْءٍ قَدِيرٌ ﴿١٠٩﴾

때까지 용서하고 간과 할지니 진실로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전지전능하시니라

وَأَقِيمُوا الصَّلَاةَ وَآتُوا الزَّكَاةَ ۚ وَمَا تُقَدِّمُوا لِأَنفُسِكُم مِّنْ خَيْرٍ تَجِدُوهُ عِندَ اللهِ ۗ إِنَّ اللهَ بِمَا تَعْمَلُونَ بَصِيرٌ ﴿١١٠﴾

110. 예배를 드리고 이슬람세를 바치라[1] 너희 스스로를 위해 자선을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상 할 것이라 하나님은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일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

وَقَالُوا لَن يَدْخُلَ الْجَنَّةَ إِلَّا مَن كَانَ هُودًا أَوْ نَصَارَىٰ ۗ تِلْكَ أَمَانِيُّهُمْ ۗ قُلْ هَاتُوا بُرْهَانَكُمْ إِن كُنتُمْ صَادِقِينَ ﴿١١١﴾

111.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이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그들은 말하나 그것은 그들의 상상에 불과하도다 일러가로되 그들이 진실이라면 증거를 제시하라 말하라

بَلَىٰ مَنْ أَسْلَمَ وَجْهَهُ لِلَّهِ وَهُوَ مُحْسِنٌ فَلَهُ أَجْرُهُ عِندَ رَبِّهِ وَلَا خَوْفٌ عَلَيْهِمْ وَلَا هُمْ يَحْزَنُونَ ﴿١١٢﴾

112. 그러나 하나님께 귀의하여[1] 자선을 베푼다면 주님으로부터 보상이 있을 것이며 그들에게는 두려움도 슬픔도 없을 것이라

وَقَالَتِ الْيَهُودُ لَيْسَتِ النَّصَارَىٰ عَلَىٰ شَيْءٍ وَقَالَتِ النَّصَارَىٰ لَيْسَتِ الْيَهُودُ عَلَىٰ شَيْءٍ وَهُمْ يَتْلُونَ الْكِتَابَ ۗ كَذَٰلِكَ قَالَ الَّذِينَ لَا يَعْلَمُونَ مِثْلَ قَوْلِهِمْ ۚ فَاللهُ يَحْكُمُ بَيْنَهُمْ يَوْمَ الْقِيَامَةِ فِيمَا كَانُوا فِيهِ يَخْتَلِفُونَ ﴿١١٣﴾

113.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이 진실이 아닌 것을 따르고 있다 라고 말하고[1] 기독교인은 유대인들이 진실이 아닌 것을 따르고 있다고 말하며[2] 성서를 읽고 있도다[3] 그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말처럼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도 그렇게들 말하도다[4] 그러나 하나님은 부활

110-1) 육체적 신앙의 상징인 예배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쓰여질 재물을 바쳐 실천하는 신앙.

112-1) 하나님을 믿고 선지자를 따르며

113-1) 유대인들은 예수를 불신하고 기독교는 원래의 종교가 변질된 종교라 말하고(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74-75)

2) 기독교인들은 반대로 유대교가 본래의 것이 아닌 것이라 말하고 있다.

3) 유대인은 예수를 불신하면서 그들의 종교를 이교도라 말하고, 기독교들은 모세를 불신하면서 그들의 종교를 불신하였다. "이브누 압바쓰"는 이 말씀이 계시된 동기를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나즈란 벽성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선지자를 찾아 왔을때 유대교의 교구장들은 선지자앞에서 논쟁을 하였다. 이때 "라피으 이븐 하르말라"가 말하길, "너희들은 이교도들이다."라고 하면서 예수와 신약을 불신하매, 기독교인들 중의 한 남자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길, "너희들이야 말로 이교도들이다"라고 하면서 모세와 구약을 불신했을때 하나님께서 이 진술을 계시하였다(무크타싸르 이브누 까씨르 108/1).

의 날 그들이 달리하는 것에 대해 심판을 하실 것이라

114. 하나님의 사원에서 하나님을 염원하는 것을 막는것 보다 더 우매한 자 누구뇨 그들의 질투가 그들을 파멸하고 있지 않느뇨 그들을 공포로 몰아 넣으며[1] 현세에서는 수치와 내세에서는 큰 응벌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라

وَمَنْ أَظْلَمُ مِمَّنْ مَّنَعَ مَسَٰجِدَ اللَّهِ أَن يُذْكَرَ فِيهَا اسْمُهُ وَسَعَىٰ فِي خَرَابِهَا ۚ أُولَٰئِكَ مَا كَانَ لَهُمْ أَن يَدْخُلُوهَا إِلَّا خَائِفِينَ ۚ لَهُمْ فِي الدُّنْيَا خِزْيٌ وَلَهُمْ فِي الْآخِرَةِ عَذَابٌ عَظِيمٌ ﴿١١٤﴾

115. 동쪽과 서쪽이 하나님에게 있나니 너희가 어느 방향에 있던 간에 하나님의 앞에 있노라 진실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이라[1]

وَلِلَّهِ الْمَشْرِقُ وَالْمَغْرِبُ ۚ فَأَيْنَمَا تُوَلُّوا فَثَمَّ وَجْهُ اللَّهِ ۚ إِنَّ اللَّهَ وَاسِعٌ عَلِيمٌ ﴿١١٥﴾

116. 그들은[1]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으니 그분께 찬미를 드리라고 말하나 그렇지 않노라 천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으며 이 모두가 하나님께 순종하노라[2]

وَقَالُوا اتَّخَذَ اللَّهُ وَلَدًا سُبْحَانَهُ ۖ بَل لَّهُ مَا فِي السَّمَاوَاتِ وَالْأَرْضِ ۖ كُلٌّ لَّهُ قَانِتُونَ ﴿١١٦﴾

117.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나니 어떤 목적을 두시고 있어라 말씀하시니 거기에 있더라

بَدِيعُ السَّمَاوَاتِ وَالْأَرْضِ ۖ وَإِذَا قَضَىٰ أَمْرًا فَإِنَّمَا يَقُولُ لَهُ كُن فَيَكُونُ ﴿١١٧﴾

118. 무지한 자들은 이렇게 말하도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말씀을 하지 않는가 왜 우리에게 계시

وَقَالَ الَّذِينَ لَا يَعْلَمُونَ لَوْلَا يُكَلِّمُنَا اللَّهُ أَوْ تَأْتِينَا

---

4) 그 성서의 백성들이 서로가 서로를 불신했듯이 마찬가지로 아랍인 가운데 불신자들은 무함마드를 불신하였다.

114-1) 사원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는 멸망하니 그것은 로마가 예루살렘에서, 메카 꾸라이쉬족이 카으바 신전에서 무슬림들의 신앙을 막아 그들이 멸망한 것과 다를바 없다.

115-1) 이 말씀은 "끼블라"(예배의 방향)를 잃어버린 자에게 계시된 것으로,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 아니 계신곳이 없기 때문에 여행중이거나 다른 이유로 말미암아 예배의 방향을 알 수 없을 경우에 자기가 서있는 방향을 향해서 예배를 행할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116-1) 유대인과 기독교인

2)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천국이 자기들 것이라 주장하면서, 유대인은 "아지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고,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며, 불신자들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딸들이라고 서로 주장하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부정하였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76).

آيَةً كَذَٰلِكَ قَالَ الَّذِينَ مِن قَبْلِهِم مِّثْلَ
قَوْلِهِمْ تَشَابَهَتْ قُلُوبُهُمْ قَدْ بَيَّنَّا الْآيَاتِ لِقَوْمٍ
يُوقِنُونَ ﴿١١٨﴾

를 내리지 않는가 라고 마치 이전의 우매한 자들이 그랬듯이 말하니 그들의 마음이 닮았도다 하나님은 신념을 가진 백성을 위해 계시를 내리셨노라

إِنَّا أَرْسَلْنَاكَ بِالْحَقِّ بَشِيرًا وَنَذِيرًا وَلَا تُسْأَلُ عَنْ
أَصْحَابِ الْجَحِيمِ ﴿١١٩﴾

119. 하나님은 그대를 진리의 복음자로써 그리고 경고자로써 보냈나니 지옥의 동반자들에게 관하여는 책임은 없노라[1]

وَلَن تَرْضَىٰ عَنكَ الْيَهُودُ وَلَا النَّصَارَىٰ حَتَّىٰ تَتَّبِعَ مِلَّتَهُمْ
قُلْ إِنَّ هُدَى اللَّهِ هُوَ الْهُدَىٰ وَلَئِنِ اتَّبَعْتَ أَهْوَاءَهُم بَعْدَ
الَّذِي جَاءَكَ مِنَ الْعِلْمِ مَا لَكَ مِنَ اللَّهِ مِن وَلِيٍّ وَلَا نَصِيرٍ ﴿١٢٠﴾

120.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그대를 기꺼이 맞지 아니하고 그들의 신앙을 따르라 할 것이니 하나님의 복음이 길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라 그대에게 내려준 지혜 이후에도 그들이 그들의 욕망을 따른다면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받지 못할것이라

الَّذِينَ آتَيْنَاهُمُ الْكِتَابَ يَتْلُونَهُ حَقَّ تِلَاوَتِهِ أُولَٰئِكَ يُؤْمِنُونَ
بِهِ وَمَن يَكْفُرْ بِهِ فَأُولَٰئِكَ هُمُ الْخَاسِرُونَ ﴿١٢١﴾

121. 성서를 받은 그들이[1] 이슬람에 귀의하여 올바르게 성서를 낭송할 때 그들이야말로 믿음을 올바로 가진 신앙인들이며 이를 불신한자 멸망하니라

يَا بَنِي إِسْرَائِيلَ اذْكُرُوا نِعْمَتِيَ الَّتِي أَنْعَمْتُ عَلَيْكُمْ وَأَنِّي
فَضَّلْتُكُمْ عَلَى الْعَالَمِينَ ﴿١٢٢﴾

122.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너희들에게 베푼 나의 은혜와 너희들을 다른 백성위에 두었던 나의 은혜[1]를 기억하라

وَاتَّقُوا يَوْمًا لَّا تَجْزِي نَفْسٌ عَن نَّفْسٍ شَيْئًا وَلَا يُقْبَلُ مِنْهَا

123. 어느 누구도 서로가 서로에게 유용하지 않고 어떤 보상도 수

119-1) 믿음이 진실한 신앙인들을 위한 복음으로써, 불신자들을 위한 경고로써 이 진리를 보내며, 그대가 그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데 최선을 다한 후에는 그들이 믿음을 갖든 또는 불신하든 그대의 책임이 아니라.

121-1) 성서의 백성(구약을 믿는 유대인과 신약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인식한다면 그들은 그들의 역사를 읽어 올바른 신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스라엘(야곱)이나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분에게만 순종한 교인이었다. 또한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상징의 장소로 "카으바"신전을 세워 전 인류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중심지로 만들었던 것이다.

122-1) 모세 시대에 있어 하나님을 경배한 이들에게 베푼 은혜

عَدْلٌ وَلَا تَنفَعُهَا شَفَاعَةٌ وَلَا هُمْ يُنصَرُونَ ﴿١٢٣﴾

락되지 아니하며 어떤 중재도 효용이 없으며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날을 두려워 하라

وَإِذِ ابْتَلَىٰ إِبْرَاهِيمَ رَبُّهُ بِكَلِمَاتٍ فَأَتَمَّهُنَّ قَالَ إِنِّي جَاعِلُكَ لِلنَّاسِ إِمَامًا ۖ قَالَ وَمِن ذُرِّيَّتِي ۖ قَالَ لَا يَنَالُ عَهْدِي الظَّالِمِينَ ﴿١٢٤﴾

124. 상기하라[1] 주님이 명령으로써 아브라함을 시험할때 그는[2] 그것들을 이행하였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사 보라 내가 너를 인류의 지도자로 임명하도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의 후손으로부터 지도자들이 있을 것입니까 물으니 말씀하사 나의 약속은 우매한 자들을 포함하지 않으리라 하시더라

وَإِذْ جَعَلْنَا الْبَيْتَ مَثَابَةً لِّلنَّاسِ وَأَمْنًا ۖ وَاتَّخِذُوا مِن مَّقَامِ إِبْرَاهِيمَ مُصَلًّى ۖ وَعَهِدْنَا إِلَىٰ إِبْرَاهِيمَ وَإِسْمَاعِيلَ أَن طَهِّرَا بَيْتِيَ لِلطَّائِفِينَ وَالْعَاكِفِينَ وَالرُّكَّعِ السُّجُودِ ﴿١٢٥﴾

125. 상기하라 하나님은 그 집을[1] 인류의 안식처 및 성역으로 만들었으니 기도를 드리기 위해 아브라함이 멈춘 그곳을 경배의 장소로 택하라 또한 신전을 도는 사람과[2] 엎드려 경배하는 자들을 위해 나의 집을 정화할 것을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에게 명령하였노라

وَإِذْ قَالَ إِبْرَاهِيمُ رَبِّ اجْعَلْ هَٰذَا بَلَدًا آمِنًا وَارْزُقْ أَهْلَهُ مِنَ الثَّمَرَاتِ مَنْ آمَنَ مِنْهُم بِاللَّهِ وَالْيَوْمِ الْآخِرِ ۖ قَالَ وَمَن كَفَرَ فَأُمَتِّعُهُ قَلِيلًا ثُمَّ أَضْطَرُّهُ إِلَىٰ عَذَابِ النَّارِ ۖ وَبِئْسَ الْمَصِيرُ ﴿١٢٦﴾

126. 아브라함이 기원하였더라 주여 이곳을 평화로운 곳으로 하여 주소서[1] 하나님을 믿고 내세를 믿는 이들에게 풍성한 과실들을 주옵소서[2] 이에 하나님이 말씀하

124-1) 앞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 되었지만 앞으로 나오는 우리말의 상기하라는 말은 무함마드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상기시키라는 뜻이며 "그대"는 모두가 최후의 선지자 무함마드를 가르킨다.

2) 아브라함

125-1) "카으바" 신전의 건축은 아브라함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신전은 다음 몇가지 의의를 갖고 있다.

① 그곳은 아람부족들의 상업 중심지, 시 낭송, 강연장 및 경배하는 중심지였고,

② 그곳은 성역이었으므로 어떤 일정한 시기에는 그 성역안에서 싸움이나 무기 반입이 금지되었고 살생도 금지되었다. 그것은 모세 율법시대에 살인자들이 은신 할 수 있었던 은신처와도 같았고(민수기. xxxv. 6), 또는 중세 유럽에서 범인들을 추적할 수 없었던 성역과도 같은 곳이었다.

③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였으며 오늘날까지도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던 장소로 보이는 아브라함 신전이 남아있다.

126-1) "이곳은" 멕카를 말하며,

2) "풍성한 과실들"이란, 멕카는 돌산의 계곡에 자리잡은 불모지였으므로 현세의 문질적번영을 추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불신자들을 불지옥으로 보낸다"는 계시로 미루어

사 불신하는 자들을 당분간 만족하게 하다가[3] 불지옥으로 비참한 여행이 되게 하리라

127.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그 집의 주춧돌을 세우며 주여 저희들로부터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소서 주여 당신이야 말로 들으시고 아시는 분이옵니다

وَإِذْ يَرْفَعُ إِبْرَٰهِيمُ ٱلْقَوَاعِدَ مِنَ ٱلْبَيْتِ وَإِسْمَٰعِيلُ رَبَّنَا تَقَبَّلْ مِنَّآ ۖ إِنَّكَ أَنتَ ٱلسَّمِيعُ ٱلْعَلِيمُ ﴿١٢٧﴾

128. 주여 저희가 무슬림으로서 당신께로 귀의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 후손들도 무슬림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당신께로 귀의케 하여 주소서 당신을 경배하는 방법을 알려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관용을 베푸소서 당신은 진실로 너그럽고 자비하십니다

رَبَّنَا وَٱجْعَلْنَا مُسْلِمَيْنِ لَكَ وَمِن ذُرِّيَّتِنَآ أُمَّةً مُّسْلِمَةً لَّكَ ۖ وَأَرِنَا مَنَاسِكَنَا وَتُبْ عَلَيْنَآ ۖ إِنَّكَ أَنتَ ٱلتَّوَّابُ ٱلرَّحِيمُ ﴿١٢٨﴾

129. 주여 당신의 말씀을 전하고 성서와 지혜를 가르쳐[1] 그들을 당신께로 인도할 선지자를 보내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청결케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주님은 위대하시고 지혜로 충만하십니다

رَبَّنَا وَٱبْعَثْ فِيهِمْ رَسُولًا مِّنْهُمْ يَتْلُوا۟ عَلَيْهِمْ ءَايَٰتِكَ وَيُعَلِّمُهُمُ ٱلْكِتَٰبَ وَٱلْحِكْمَةَ وَيُزَكِّيهِمْ ۚ إِنَّكَ أَنتَ ٱلْعَزِيزُ ٱلْحَكِيمُ ﴿١٢٩﴾

130. 아브라함의 신앙을 배반하는자 곧 자기 자신을 조롱하는 것과 같나니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사 세상에 보냈으니 그는 내세에서 정의의 편에 있을 것이라

وَمَن يَرْغَبُ عَن مِّلَّةِ إِبْرَٰهِـۧمَ إِلَّا مَن سَفِهَ نَفْسَهُۥ ۚ وَلَقَدِ ٱصْطَفَيْنَٰهُ فِى ٱلدُّنْيَا ۖ وَإِنَّهُۥ فِى ٱلْءَاخِرَةِ لَمِنَ ٱلصَّٰلِحِينَ ﴿١٣٠﴾

131. 주님께서 내게로 귀의하라고[1] 말씀하사 나는 만유의 주이신 주님께로 귀의했나이다 라고 하더라

إِذْ قَالَ لَهُۥ رَبُّهُۥٓ أَسْلِمْ ۖ قَالَ أَسْلَمْتُ لِرَبِّ ٱلْعَٰلَمِينَ ﴿١٣١﴾

보아서 "내세의 번영과 행복"을 의미 할 수 있다. 이슬람은 현세의 행복과 내세의 행복을 함께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3) "당분간 만족케 한다"함은 현세란 내세를 향하여 잠깐 지나가는 곳이므로 현세에서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물질적 양식을 주나 영원히 사는 내세에서는 불신자들에게 지옥의 벌이 온다는 뜻

129-1) "지혜"는 무함마드의 전통, 신앙에 관한 지식, 이슬람법과 규범을 가르킨다.

132. 아브라함은 그의 자손들에게 그의 종교를 따르라 했으며 야곱도[1] 그랬도다 실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신앙을 선택하여 주셨나니[2] 그 안에서 무슬림으로 일생을 마치라

وَوَصَّىٰ بِهَآ إِبْرَٰهِـۧمُ بَنِيهِ وَيَعْقُوبُ يَٰبَنِىَّ إِنَّ ٱللَّهَ ٱصْطَفَىٰ لَكُمُ ٱلدِّينَ فَلَا تَمُوتُنَّ إِلَّا وَأَنتُم مُّسْلِمُونَ ﴿١٣٢﴾

133. 야곱이 죽음에 이를때 너희가 지켜보고 있었나니 야곱이 그의 자손들에게 내 다음에 너희는 무엇을 경배할 것인가 라고 물으니 당신의 신이며 당신의 선지자인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이삭의 신인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그분에게만 순종할 것이라 대답하더라

أَمْ كُنتُمْ شُهَدَآءَ إِذْ حَضَرَ يَعْقُوبَ ٱلْمَوْتُ إِذْ قَالَ لِبَنِيهِ مَا تَعْبُدُونَ مِنۢ بَعْدِى قَالُوا۟ نَعْبُدُ إِلَٰهَكَ وَإِلَٰهَ ءَابَآئِكَ إِبْرَٰهِـۧمَ وَإِسْمَٰعِيلَ وَإِسْحَٰقَ إِلَٰهًا وَٰحِدًا ۖ وَنَحْنُ لَهُۥ مُسْلِمُونَ ﴿١٣٣﴾

134. 이들은 지나가버린 민족이라 그들의 것은 그들이 얻은 것이요 너희들의 것은 너희들이 얻은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에 관해서 질문을 받지 않을 것이라

تِلْكَ أُمَّةٌ قَدْ خَلَتْ ۖ لَهَا مَا كَسَبَتْ وَلَكُم مَّا كَسَبْتُمْ ۖ وَلَا تُسْـَٔلُونَ عَمَّا كَانُوا۟ يَعْمَلُونَ ﴿١٣٤﴾

135. 그들이 말하길[1] 유대인이나 기독교인들이 되어라 그러하면 너희가 옳은 길로 인도되리라 일러가로되 우리는 가장 올바른 아브라함의 종교를 따르노라 그분은 우상숭배자가 아니었노라[2]

وَقَالُوا۟ كُونُوا۟ هُودًا أَوْ نَصَٰرَىٰ تَهْتَدُوا۟ ۗ قُلْ بَلْ مِلَّةَ إِبْرَٰهِـۧمَ حَنِيفًا ۖ وَمَا كَانَ مِنَ ٱلْمُشْرِكِينَ ﴿١٣٥﴾

136. 말하라[1] 우리는 하나님을

قُولُوٓا۟ ءَامَنَّا بِٱللَّهِ وَمَآ أُنزِلَ إِلَيْنَا وَمَآ أُنزِلَ إِلَىٰٓ إِبْرَٰهِـۧمَ

131-1)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헌신하라

132-1) 야곱도 그의 자손들에게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르라 하였다.
2) 아브라함과 야곱이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슬람을 너희 종교로 선택했다는 이야기

135-1) 유대인과 기독교인, 즉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되어야 복을 받을것이라 말하고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 되어야 천국에 이를 수 있다는 각자의 주장
2) "하니프" : 정교의, 믿음이 온전한, 진실한 등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유대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여 통일성을 잃었고 기독교는 삼위일체설로써 유일신 사상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이슬람은 아브라함의 온전한 유일신 사상을 따른다.

136-1) 무슬림들이여

وَاِسْمٰعِيْلَ وَاِسْحٰقَ وَيَعْقُوْبَ وَالْاَسْبَاطِ وَمَآ اُوْتِيَ مُوْسٰى وَعِيْسٰى وَمَآ اُوْتِيَ النَّبِيُّوْنَ مِنْ رَّبِّهِمْ لَا نُفَرِّقُ بَيْنَ اَحَدٍ مِّنْهُمْ وَنَحْنُ لَهٗ مُسْلِمُوْنَ ﴿١٣٦﴾

믿고[2] 우리에게 계시된 것과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계시된 것과 모세와 예수가 계시 받은 것과 선지자들이 그들의 주님으로부터 계시받은 것을 믿나이다 우리는 그들 어느 누구도 선별치 아니하며 오직 그분에게만 순종할 따름이라

فَاِنْ اٰمَنُوْا بِمِثْلِ مَآ اٰمَنْتُمْ بِهٖ فَقَدِ اهْتَدَوْا ۚ وَاِنْ تَوَلَّوْا فَاِنَّمَا هُمْ فِيْ شِقَاقٍ ۚ فَسَيَكْفِيْكَهُمُ اللّٰهُ ۚ وَهُوَ السَّمِيْعُ الْعَلِيْمُ ﴿١٣٧﴾

137. 너희가 믿는 것처럼 그들이 믿을 때 그들은 올바른 길로 인도되리라 그러나 그들이 배반 한다면 그들은 지옥에 빠질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그들에 대항하도록 충만하게 할 것이니 그분은 들으시고 아시는 분이시라

صِبْغَةَ اللّٰهِ ۚ وَمَنْ اَحْسَنُ مِنَ اللّٰهِ صِبْغَةً ۚ وَّنَحْنُ لَهٗ عٰبِدُوْنَ ﴿١٣٨﴾

138.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나니 세례함에 하나님보다 나은자가 누구이뇨 우리는 그분에게 경배하는 종들이라[1]

قُلْ اَتُحَآجُّوْنَنَا فِي اللّٰهِ وَهُوَ رَبُّنَا وَرَبُّكُمْ ۚ وَلَنَآ اَعْمَالُنَا وَلَكُمْ اَعْمَالُكُمْ ۚ وَنَحْنُ لَهٗ مُخْلِصُوْنَ ﴿١٣٩﴾

139. 일러가로되 너희는 우리의 주님이요 너희의 주님이신 하나님에 관해 논쟁을 하느뇨 우리의 것은 우리의 일이요 너희의 일은 너희의 일이로다[1] 우리는 그분만을

---

2) 이 절은 바로 이슬람의 기본교리를 제시하고 있다.
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유일신 사상과
② 무함마드를 통하여 계시된 말씀, 즉 꾸란을 믿고
③ 모든 예언자들에게 계시된 말씀, 즉 아브라함에게 계시된 "수후프"와 모세에게 계시된 구약,
④ 모든 예언자들을 믿고 따른다.

138-1) "시브가"는 세례 또는 영세라는 뜻으로 언어적 해석은 염색 또는 색깔을 의미한다. 아랍 기독교인들은 물에다 색깔을 넣어 세례을 받았는데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인생의 새로운 색깔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이슬람에서의 영세 또는 세례라 함은 직접적인 하나님의 영세를 의미하며 "시브가"(색깔)는 하나의 상징일 뿐이다.
"시브가"가 "이슬람"으로 풀이 될 수도 있다.
기독교인들이 자손들을 물로써 세례를 하자 하나님께서 "시브가타 알라" 즉 이슬람으로 세례하라는 은유로 계시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한편으로는 세례를 함으로써 기독교인이 되는데 반하여 이슬람에 귀의하고자 할 때 "목욕"하는 것으로 "시브가"를 풀이하는 학자도 있다.

139-1)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보상과 책임은 우리가 질 것이며 너희가 행한 것에 대한 보상과 책

경배하노라

140.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유대인 혹은 기독교인들이라 말하느뇨 일러가로되 너희들이 하나님보다 더 잘 아느뇨 하나님으로부터 계시 받은 증언을 숨기는 자보다 더 사악한 자가 누구이뇨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는 일을 모르는 분이 아니시라

أَمْ تَقُولُونَ إِنَّ إِبْرٰهِمَ وَإِسْمٰعِيلَ وَإِسْحٰقَ وَيَعْقُوبَ
وَالْأَسْبَاطَ كَانُوا هُودًا أَوْ نَصٰرَىٰ ۗ قُلْ ءَأَنتُمْ أَعْلَمُ أَمِ
اللَّهُ ۗ وَمَنْ أَظْلَمُ مِمَّن كَتَمَ شَهٰدَةً عِندَهُۥ مِنَ اللَّهِ ۗ
وَمَا اللَّهُ بِغَٰفِلٍ عَمَّا تَعْمَلُونَ ﴿١٤٠﴾

141. 이들은 지나가버린 한 백성이라 그들은 그들이 행한 것을 얻을 것이요 너희는 너희가 행한 것을 얻을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에 관해서 질문을 받지 않을 것이라

تِلْكَ أُمَّةٌ قَدْ خَلَتْ ۖ لَهَا مَا كَسَبَتْ وَلَكُمْ مَّا كَسَبْتُمْ ۖ
وَلَا تُسْـَٔلُونَ عَمَّا كَانُوا يَعْمَلُونَ ﴿١٤١﴾

142.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도다 그들이 예배하던 예배의 방향을 무엇이 바꾸었느뇨 일러 가로되 동서가 하나님안에 있으며 그분께서는 믿음이 진실한 자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니라[1]

سَيَقُولُ السُّفَهَآءُ مِنَ النَّاسِ مَا وَلّٰىهُمْ عَن قِبْلَتِهِمُ الَّتِى
كَانُوا عَلَيْهَا ۚ قُل لِّلَّهِ الْمَشْرِقُ وَالْمَغْرِبُ ۚ يَهْدِى مَن يَشَآءُ
إِلٰى صِرَٰطٍ مُّسْتَقِيمٍ ﴿١٤٢﴾

143. 그리하여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중용의 한[1] 공동체를 선정했나니 너희는 그 공동체의 증인이 될 것이며 그 선지자가 너희들에게 한 증인이 되리라 또한 너희가 그 전에 향했던 기도의 방향을[2]

وَكَذٰلِكَ جَعَلْنٰكُمْ أُمَّةً وَسَطًا لِّتَكُونُوا شُهَدَآءَ عَلَى النَّاسِ وَيَكُونَ
الرَّسُولُ عَلَيْكُمْ شَهِيدًا ۗ وَمَا جَعَلْنَا الْقِبْلَةَ الَّتِى كُنتَ عَلَيْهَآ
إِلَّا لِنَعْلَمَ مَن يَتَّبِعُ الرَّسُولَ مِمَّن يَنقَلِبُ عَلٰى عَقِبَيْهِ ۚ

임은 너희가 책임진 것으로 어느 누구도 타인의 행위를 대신 할 수 없다는 뜻

142-1) "알바라"에 의해 전하여 오길, 선지자께서 메디나에 오셨을때 약 16개월에서 17개월 가량은 예루살렘을 향해 예배를 하였다. 그후 선지자께서 메카에 있는 카으바 신전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음의 계시를 내렸다.
우리는 그대의 얼굴이 하늘로 향한 것을 보고 있도다(2장 144절). 그러자 어리석은 유대인들이, "그들이 예배하던 기도의 방향을 무엇이 변경하는가?"라고 하자 이 절이 계시된 것으로 전하여지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87).

143-1) "중용의 공동체"라함은 이슬람의 본질가운데 하나로 중용은 편견과 아집을 배제한다는 의미와 함께, 하나님의 집 카으바 신전은 전세계 모든 인류를 위한 신전이므로 지역적으로도 동, 서, 남, 북의 한 중심지에 있게되어 "중앙"이란 지역적 개념도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وَإِن كَانَتْ لَكَبِيرَةً إِلَّا عَلَى الَّذِينَ هَدَى اللَّهُ ۗ وَمَا كَانَ اللَّهُ
لِيُضِيعَ إِيمَانَكُمْ ۚ إِنَّ اللَّهَ بِالنَّاسِ لَرَءُوفٌ رَّحِيمٌ ﴿١٤٣﴾

지정했나니 이는 선지자를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를 구별코자 함이라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한자들에게는 커다란 시험이나 하나님께서 너희의 믿음을 좌절시키지 아니했으니 하나님은 실로 온 인류에게 사랑과 자비로 충만한 분이시라[3]

قَدْ نَرَىٰ تَقَلُّبَ وَجْهِكَ فِي السَّمَاءِ ۖ فَلَنُوَلِّيَنَّكَ قِبْلَةً تَرْضَاهَا ۚ فَوَلِّ
وَجْهَكَ شَطْرَ الْمَسْجِدِ الْحَرَامِ ۚ وَحَيْثُ مَا كُنتُمْ فَوَلُّوا وُجُوهَكُمْ
شَطْرَهُ ۗ وَإِنَّ الَّذِينَ أُوتُوا الْكِتَابَ لَيَعْلَمُونَ أَنَّهُ الْحَقُّ مِن رَّبِّهِمْ ۗ
وَمَا اللَّهُ بِغَافِلٍ عَمَّا يَعْمَلُونَ ﴿١٤٤﴾

144. 하나님께서 하늘을 향한 그대의 얼굴을 보고 있었노라 그대가 원하는 기도의 방향을 향하게 하리라[1] 그대의 고개를 영원한 경배의 장소로 향하라 어디에 있든 그 쪽으로 고개를 향할지니 성서를 게시받은 이들은 이 계시가 그들의 주님으로부터 온 진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2]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것에 대해 모르는 분이 아니시라

وَلَئِنْ أَتَيْتَ الَّذِينَ أُوتُوا الْكِتَابَ بِكُلِّ آيَةٍ مَّا تَبِعُوا قِبْلَتَكَ ۚ
وَمَا أَنتَ بِتَابِعٍ قِبْلَتَهُمْ ۚ وَمَا بَعْضُهُم بِتَابِعٍ قِبْلَةَ بَعْضٍ ۚ
وَلَئِنِ اتَّبَعْتَ أَهْوَاءَهُم مِّن بَعْدِ مَا جَاءَكَ مِنَ
الْعِلْمِ ۙ إِنَّكَ إِذًا لَّمِنَ الظَّالِمِينَ ﴿١٤٥﴾

145. 그대가 성서의 백성들에게 모든 성약을 가져온다 해도 그들은 그대의 기도의 방향을 따르지 않을 것이며 또한 그대도 그들의 기도의 방향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 그들은[1] 서로가 서로의 기도의 방향을 따르지 않도다[2] 지혜가 그대에게 온 후에도 만약 그들의 회

---

2) 예배의 방향이 예루살렘에서 "카으바"로 변경되자 사람들이 묻기를, "이미 고인이 된 선조들은 예배의 방향이 변경되기 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배를 했는데 이 선조들은 어떻게 됩니까?"라고 묻자 "실로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사랑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라는 말씀이 게시되었다.

3) 예배의 방향이 메카 카으바 신전으로 옮겨지기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배를 근행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로 충만 하심이도다"라는 절이 게시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88).

144-1) 무함마드 그대가 원하는 방향을 그대의 선조 아브라함의 기도방향 "카으바"신전으로 향하게 하리라.

2) 예배의 방향을 예루살렘에서 메카 카으바 신전으로 전환한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서도 의심을 하였다.

145-1) 유대인과 기독교인

2) 기독교인은 유대인의 기도방향을 따르지 아니하고 또한 유대인은 기독교인의 기도방향을 따르지 아니하며 모두가 이스라엘 자손이면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적대감을 갖는 등 다른 점들이 많았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89).

망에 따른다면 그대 또 한 우매한 자 중의 한 사람이 될 것이라

146. 그 성서의 백성들은 그들의 자손들을 알고 있듯 그를[1]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2] 숨기고 있도다

الَّذِينَ آتَيْنَاهُمُ الْكِتَابَ يَعْرِفُونَهُ كَمَا يَعْرِفُونَ أَبْنَاءَهُمْ ۖ وَإِنَّ فَرِيقًا مِّنْهُمْ لَيَكْتُمُونَ الْحَقَّ وَهُمْ يَعْلَمُونَ ﴿١٤٦﴾

147.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계시된 진리이니 의심하는자 되지말라[1]

الْحَقُّ مِن رَّبِّكَ فَلَا تَكُونَنَّ مِنَ الْمُمْتَرِينَ ﴿١٤٧﴾

148. 모든 인간은 그가 지향하는 목적이[1] 있나니 선을 행함에 서로 경쟁하라 너희가 어디에 있던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함께 하시니라 진실로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전지 전능 하시니라

وَلِكُلٍّ وِجْهَةٌ هُوَ مُوَلِّيهَا ۖ فَاسْتَبِقُوا الْخَيْرَاتِ ۚ أَيْنَ مَا تَكُونُوا يَأْتِ بِكُمُ اللَّهُ جَمِيعًا ۚ إِنَّ اللَّهَ عَلَىٰ كُلِّ شَيْءٍ قَدِيرٌ ﴿١٤٨﴾

149. 그대가 어디로 여행을 하던 하람사원으로 고개를 돌리라 이것은 그대 주님으로부터의 진리이며 하나님은 너희가 행하는 모든 일을 알고 계시니라[1]

وَمِنْ حَيْثُ خَرَجْتَ فَوَلِّ وَجْهَكَ شَطْرَ الْمَسْجِدِ الْحَرَامِ ۖ وَإِنَّهُ لَلْحَقُّ مِن رَّبِّكَ ۗ وَمَا اللَّهُ بِغَافِلٍ عَمَّا تَعْمَلُونَ ﴿١٤٩﴾

150. 그대가 어느 곳으로 여행을 하던 그대의 얼굴을 하람사원으로 돌릴 것이며 너희가 어디에 있던 얼굴을 그 쪽으로 향할지니[1] 악을 지향하는자 외에는 아무도 이의를 제의치 않을 것이라 그대는 그들을 두려워 말며 나만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나의 은혜가 너희 위에

وَمِنْ حَيْثُ خَرَجْتَ فَوَلِّ وَجْهَكَ شَطْرَ الْمَسْجِدِ الْحَرَامِ ۖ وَحَيْثُ مَا كُنتُمْ فَوَلُّوا وُجُوهَكُمْ شَطْرَهُ لِئَلَّا يَكُونَ لِلنَّاسِ عَلَيْكُمْ حُجَّةٌ إِلَّا الَّذِينَ ظَلَمُوا مِنْهُمْ فَلَا تَخْشَوْهُمْ وَاخْشَوْنِي وَلِأُتِمَّ نِعْمَتِي عَلَيْكُمْ وَلَعَلَّكُمْ تَهْتَدُونَ ﴿١٥٠﴾

146-1) 무함마드
2) 구약과 신약에 "아흐마드"이란 이름으로 최후의 선지자가 온다는 사실

147-1) 하나님이 계시한 기도의 방향과 그 종교가 진리이니 이슬람 공동체는 이를 의심해서는 아니된다는 의미

148-1) "후와"(그것)을 "목적"으로 풀이하는 학자와, "끼블라"(예배의 방향)로 해석하면서 움마(이슬람의 공동체)가 지향할 방향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149-1) 여행자에 대한 예배의 방향이 계시되고 있다. 여행자도 거주민과 마찬가지로 예배의 방향은 하람사원으로 메카에 있는 카으바 신전을 가르킨다.

150-1) 예배를 드릴때는 카으바 신전을 향해야 한다는 것은 3번째 언급하고 있다.

충만케하여 옳은 길로 인도되게 하리라

151. 하나님은 너희들 중 한 사람을 한 선지자로 보내어 너희들에게 그분의 말씀[1]을 낭송하고 너희들을 성결케하며 율법과 지혜를 가르치니 너희들이 모르는 것을 일깨워 주도다

كَمَآ أَرْسَلْنَا فِيكُمْ رَسُولًا مِّنكُمْ يَتْلُوا عَلَيْكُمْ ءَايَٰتِنَا وَيُزَكِّيكُمْ وَيُعَلِّمُكُمُ ٱلْكِتَٰبَ وَٱلْحِكْمَةَ وَيُعَلِّمُكُم مَّا لَمْ تَكُونُوا۟ تَعْلَمُونَ ﴿١٥١﴾

152. 너희가 나를 염원하매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니 내게 감사하고 거역하지 말라[1]

فَٱذْكُرُونِىٓ أَذْكُرْكُمْ وَٱشْكُرُوا۟ لِى وَلَا تَكْفُرُونِ ﴿١٥٢﴾

153. 믿는자들이여 인내와 예배로써 구원하라 실로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 편에 있노라[1]

يَٰٓأَيُّهَا ٱلَّذِينَ ءَامَنُوا۟ ٱسْتَعِينُوا۟ بِٱلصَّبْرِ وَٱلصَّلَوٰةِ ۚ إِنَّ ٱللَّهَ مَعَ ٱلصَّٰبِرِينَ ﴿١٥٣﴾

154. 순교자들이 죽었다고 말하지 말라 그들은 살아 있으되 너희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을 뿐이라

وَلَا تَقُولُوا۟ لِمَن يُقْتَلُ فِى سَبِيلِ ٱللَّهِ أَمْوَٰتٌۢ ۚ بَلْ أَحْيَآءٌ وَلَٰكِن لَّا تَشْعُرُونَ ﴿١٥٤﴾

155. 하나님은 두려움과 기아로써 재산과 가족과 곡식들을 손실케하여 너희들을 시험할 것이라 그러나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있으리라

وَلَنَبْلُوَنَّكُمْ بِشَىْءٍ مِّنَ ٱلْخَوْفِ وَٱلْجُوعِ وَنَقْصٍ مِّنَ ٱلْأَمْوَٰلِ وَٱلْأَنفُسِ وَٱلثَّمَرَٰتِ ۗ وَبَشِّرِ ٱلصَّٰبِرِينَ ﴿١٥٥﴾

156. 재앙이 있을때 오 주여 우리는 주안에 있으며 주께로 돌아가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자 있나니

ٱلَّذِينَ إِذَآ أَصَٰبَتْهُم مُّصِيبَةٌ قَالُوٓا۟ إِنَّا لِلَّهِ وَإِنَّآ إِلَيْهِ رَٰجِعُونَ ﴿١٥٦﴾

157. 그들위에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어 그들은 올바른 길로 인도 되리라

أُو۟لَٰٓئِكَ عَلَيْهِمْ صَلَوَٰتٌ مِّن رَّبِّهِمْ وَرَحْمَةٌ ۟ وَأُو۟لَٰٓئِكَ هُمُ ٱلْمُهْتَدُونَ ﴿١٥٧﴾

151-1) 꾸란

152-1) 경배하고 순종함으로써 나 하나님을 염원하라. 그리하면 "나"는 보상과 관용으로 너희들을 기억하리라. 모세가, "주여! 제가 당신께 어떻게 감사 드려야 합니까?"라고 질문 했을때, "나만을 염원하되 잊지 아니하며, 나만을 염원 했다면 내게 감사한 것이 될 것이요 나를 망각 했다면 나를 불신한 것이 되느니라"라고 주님께서 대답하였다(이브누 까씨르 알무크타싸르 142/1).

153-1) 인내는 모든 은혜를 얻으며 예배는 모든 악을 제거하여 준다.

158. 사파와 마르와 동산은 하나님의 징표이나니 하나님의 집을 방문하여 대순례나 소순례를 하는 것은 죄악이 아니거늘 스스로 선을 실천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보상으로 응답하시니라[1]

إِنَّ الصَّفَا وَالْمَرْوَةَ مِنْ شَعَآئِرِ اللّٰهِ فَمَنْ حَجَّ الْبَيْتَ اَوِ اعْتَمَرَ فَلَا جُنَاحَ عَلَيْهِ اَنْ يَّطَّوَّفَ بِهِمَا ۭ وَمَنْ تَطَوَّعَ خَيْرًا ۙ فَاِنَّ اللّٰهَ شَاكِرٌ عَلِيْمٌ ﴿١٥٨﴾

159. 실로 성서[1]에서 확증한 말씀과 하나님이 계시한 진리를 감추는 자에게 하나님의 저주와 저주할 힘을 가진 자들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2]

اِنَّ الَّذِيْنَ يَكْتُمُوْنَ مَآ اَنْزَلْنَا مِنَ الْبَيِّنٰتِ وَالْهُدٰى مِنْۢ بَعْدِ مَا بَيَّنّٰهُ لِلنَّاسِ فِي الْكِتٰبِ ۙ اُولٰۗىِٕكَ يَلْعَنُهُمُ اللّٰهُ وَيَلْعَنُهُمُ اللّٰعِنُوْنَ ﴿١٥٩﴾

160. 그러나 속죄하고 수정하며 진리를 밝히는 자들은 제외가 되나니 나[1]는 그들 위에 관용을 베풀리라 실로 나는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니라

اِلَّا الَّذِيْنَ تَابُوْا وَاَصْلَحُوْا وَبَيَّنُوْا فَاُولٰۗىِٕكَ اَتُوْبُ عَلَيْهِمْ ۚ وَاَنَا التَّوَّابُ الرَّحِيْمُ ﴿١٦٠﴾

161. 믿음을 부정하며 불신자로 죽을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천사들과 진실한 사람들의 저주만이 있을 뿐이라

اِنَّ الَّذِيْنَ كَفَرُوْا وَمَاتُوْا وَهُمْ كُفَّارٌ اُولٰۗىِٕكَ عَلَيْهِمْ لَعْنَةُ اللّٰهِ وَالْمَلٰۗىِٕكَةِ وَالنَّاسِ اَجْمَعِيْنَ ﴿١٦١﴾

162. 그들은 지옥에서 영주하고 벌이 경감되지 않을 것이며 고통이 잠시도 모면 되지 않을 것이라

خٰلِدِيْنَ فِيْهَا ۚ لَا يُخَفَّفُ عَنْهُمُ الْعَذَابُ وَلَا هُمْ يُنْظَرُوْنَ ﴿١٦٢﴾

158-1) "사파"와 "마르와"는 조그마한 동산으로써 지금은 메카에 있는 하람사원(마쓰지둘하람)안에 있다. 성지순례(하지 및 우무라)로 이곳을 찾는 신도들은 "싸이"(사파와 마르와 두 동산사이를 7차례 걷다가 뛰다가 하는 것)를 한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부인 하갈이 어린 이스마엘이 사막의 열사와 갈증으로 사경에 이르자 이 두 동산 사이를 뛰면서 하나님께 물을 구원하였다.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하사 "잠잠"우물을 주었는데 이 두 동산 가까이에 있다.
이절은 그 당시 아랍 이교도들이 남, 여 우상을 이곳에 갖다두고서 초기 무슬림들을 욕되게 하자 "사파와 마르와 동산은 하나님의 상징이나니"라는 말씀이 계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59-1) 무함마드가 예언자로 올 것이라는 것이 그들의 성서(구약)에 기록되어 있다. 이 사실을 부인하는 자는
첫째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둘째 천사들의 저주를 받으며
셋째 진실한 신앙인들의 저주를 받게 되리라는 예시이다.

160-1) 본절의 "나"는 하나님을 가르킴

وَاِلٰهُكُمْ اِلٰهٌ وَّاحِدٌ ۚ لَآ اِلٰهَ اِلَّا هُوَ الرَّحْمٰنُ الرَّحِيْمُ ﴿١٦٣﴾

163. 너희들의 하나님은 한분이사 그분 외에는 신이 없으며 그분은 은혜와 지혜로 충만하시니라

اِنَّ فِيْ خَلْقِ السَّمٰوٰتِ وَالْاَرْضِ وَاخْتِلَافِ الَّيْلِ وَالنَّهَارِ وَالْفُلْكِ الَّتِيْ تَجْرِيْ فِي الْبَحْرِ بِمَا يَنْفَعُ النَّاسَ وَمَآ اَنْزَلَ اللّٰهُ مِنَ السَّمَآءِ مِنْ مَّآءٍ فَاَحْيَا بِهِ الْاَرْضَ بَعْدَ مَوْتِهَا وَبَثَّ فِيْهَا مِنْ كُلِّ دَآبَّةٍ ۖ وَّتَصْرِيْفِ الرِّيٰحِ وَالسَّحَابِ الْمُسَخَّرِ بَيْنَ السَّمَآءِ وَالْاَرْضِ لَاٰيٰتٍ لِّقَوْمٍ يَّعْقِلُوْنَ ﴿١٦٤﴾

164. 보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밤과 낮을 구별케 하셨으며 사람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바다를 달리는 배들을 두셨고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 죽은 땅을 재생하시며 그곳에 모든 종류의 짐승들을 퍼뜨리셨고 바람을 두시매 구름은 천지에서 하나님의 운용에 순종하나니 이것이 바로 이성을 가진 자를 위한 예증이라[1)]

وَمِنَ النَّاسِ مَنْ يَّتَّخِذُ مِنْ دُوْنِ اللّٰهِ اَنْدَادًا يُّحِبُّوْنَهُمْ كَحُبِّ اللّٰهِ ۖ وَالَّذِيْنَ اٰمَنُوْٓا اَشَدُّ حُبًّا لِّلّٰهِ ۗ وَلَوْ يَرَى الَّذِيْنَ ظَلَمُوْٓا اِذْ يَرَوْنَ الْعَذَابَ ۙ اَنَّ الْقُوَّةَ لِلّٰهِ جَمِيْعًا ۙ وَّاَنَّ اللّٰهَ شَدِيْدُ الْعَذَابِ ﴿١٦٥﴾

165. 그러나 무리가운데 하나님 외에 우상들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들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것들을 사랑하나 믿음이 있는 자의 신앙은 우상 숭배자보다 강하도다 우매한 자들은 응벌을 맛볼 것이라 모든 권능이 하나님께 있으며 실로 하나님의 벌은 강하니라

اِذْ تَبَرَّاَ الَّذِيْنَ اتُّبِعُوْا مِنَ الَّذِيْنَ اتَّبَعُوْا وَرَاَوُا الْعَذَابَ وَتَقَطَّعَتْ بِهِمُ الْاَسْبَابُ ﴿١٦٦﴾

166. 추종받던 자들이 그들을 따르던 추종자들을 의절하니 그들은 응벌을 맛본것이며 그들 사이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노라

وَقَالَ الَّذِيْنَ اتَّبَعُوْا لَوْ اَنَّ لَنَا كَرَّةً فَنَتَبَرَّاَ مِنْهُمْ كَمَا تَبَرَّءُوْا مِنَّا ۗ كَذٰلِكَ يُرِيْهِمُ اللّٰهُ اَعْمَالَهُمْ حَسَرٰتٍ عَلَيْهِمْ ۗ وَمَا هُمْ بِخٰرِجِيْنَ مِنَ النَّارِ ﴿١٦٧﴾

167. 추종자들이 말하도다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들이 우리를 의절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과 의절하리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들을 그들에게 밝히시니 그들은 불지옥으로부터 피하지 못하니라

164-1) 창조주는 그분의 형상을 직접 보이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지혜로써 창조주의 유일성과 창조주의 존재하심과 모든 만물이 창조주의 섭리에 순종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창조주가 한 분이 아니고 둘 이상이라면 서로의 경쟁으로 인하여 우주의 질서와 조화는 파괴 되었을 것이며, 책상이 있는 것은 그것을 만든 목수가 있었기 때문이었듯이, 이 우주와 만물이 있는 것은 그것을 창조한 창조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밤과 낮의 구별이 있고, 계절이 있으며, 눈이 오고 비가 오는 것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창조주의 섭리와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모든 만물이 창조주의 섭리에 순종함을 알 수 있다.

يَٰٓأَيُّهَا ٱلنَّاسُ كُلُوا۟ مِمَّا فِى ٱلْأَرْضِ حَلَٰلًا طَيِّبًا وَلَا تَتَّبِعُوا۟ خُطُوَٰتِ ٱلشَّيْطَٰنِ ۚ إِنَّهُۥ لَكُمْ عَدُوٌّ مُّبِينٌ ﴿١٦٨﴾

168. 사람들이여 지상에 있는 허용된 좋은 것을 먹되 사탄의 발자국을 따르지 말라 그는 실로 너희들의 반역자라

إِنَّمَا يَأْمُرُكُم بِٱلسُّوٓءِ وَٱلْفَحْشَآءِ وَأَن تَقُولُوا۟ عَلَى ٱللَّهِ مَا لَا تَعْلَمُونَ ﴿١٦٩﴾

169. 실로 사탄은 사악함과 수치스러운 일들을 너희들에게 명령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바를 중상하도다[1]

وَإِذَا قِيلَ لَهُمُ ٱتَّبِعُوا۟ مَآ أَنزَلَ ٱللَّهُ قَالُوا۟ بَلْ نَتَّبِعُ مَآ أَلْفَيْنَا عَلَيْهِ ءَابَآءَنَآ ۚ أَوَلَوْ كَانَ ءَابَآؤُهُمْ لَا يَعْقِلُونَ شَيْـًٔا وَلَا يَهْتَدُونَ ﴿١٧٠﴾

170.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시한 길을[1] 따르라 하니 선조의 길을 따르겠다고 말하더라 가로되 그들 선조들은 지혜도 없었으며 안내도 못 받았지 않했더뇨

وَمَثَلُ ٱلَّذِينَ كَفَرُوا۟ كَمَثَلِ ٱلَّذِى يَنْعِقُ بِمَا لَا يَسْمَعُ إِلَّا دُعَآءً وَنِدَآءً ۚ صُمٌّۢ بُكْمٌ عُمْىٌ فَهُمْ لَا يَعْقِلُونَ ﴿١٧١﴾

171. 불신자들을 비유하매 목동이 양떼를 고함질러 부르나 그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소리로 밖엔 들리지 아니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귀머거리요 벙어리며 장님이라

يَٰٓأَيُّهَا ٱلَّذِينَ ءَامَنُوا۟ كُلُوا۟ مِن طَيِّبَٰتِ مَا رَزَقْنَٰكُمْ وَٱشْكُرُوا۟ لِلَّهِ إِن كُنتُمْ إِيَّاهُ تَعْبُدُونَ ﴿١٧٢﴾

172. 믿음을 가진자들이여 하나님이 너희에게 부여한 양식중 좋은 것을 먹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만을 경배하라

إِنَّمَا حَرَّمَ عَلَيْكُمُ ٱلْمَيْتَةَ وَٱلدَّمَ وَلَحْمَ ٱلْخِنزِيرِ وَمَآ أُهِلَّ بِهِۦ لِغَيْرِ ٱللَّهِ ۖ فَمَنِ ٱضْطُرَّ غَيْرَ بَاغٍ وَلَا عَادٍ فَلَآ إِثْمَ عَلَيْهِ ۚ إِنَّ ٱللَّهَ غَفُورٌ رَّحِيمٌ ﴿١٧٣﴾

173. 죽은 고기와 피와 돼지고기를 먹지말라[1]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살되지 아니한 고기도 먹지말라[2] 그러나 고의가 아니고 어쩔수 없이 먹을 경우는 죄악이 아

169-1)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금지하고, 금지한 것은 권고하며 인간들로 하여금 유혹에 빠지도록 하는 행위.

170-1) 무지와 암흑과 방황속에서 선지자를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복음인 꾸란

173-1) 죽은 고기라 함은 육식동물로써 식용으로 도살된 고기가 아니며 어떤 이유로 인하여 죽은 동물의 고기. 물론 바다의 물고기 또는 바다 동물의 고기는 허용되는 것으로 대다수 학자들은 풀이하고 있으나, 일부 학자들은 육식동물과 유사한 바다 동물의 죽은 고기도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2) 제단에 올리기 위해 도살된 고기, 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살하지 않고 우상의 이름으로 도살된 고기도 금지되고 있다. 식용으로 짐승을 도살할 때는 "비쓰밀라"(하나님의 이름으로), 알라후 아크바르(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다)라는 꾸란 구절을 암송하고서 도살하게

니라 했거늘[3] 하나님은 진실로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

174. 하나님이 성서에서 계시한 것을 감추고[1] 하잘것 없는 것을 얻고자 하는 자 그들은 그의 복중에 유황불을 삼키는 것과 같으며 부활의 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하지 않고 그들을 순화시켜주지도 않으시니 그들에겐 엄한 벌이 있을 뿐이라

إِنَّ الَّذِينَ يَكْتُمُونَ مَا أَنْزَلَ اللَّهُ مِنَ الْكِتَابِ وَيَشْتَرُونَ بِهِ ثَمَنًا قَلِيلًا أُولَٰئِكَ مَا يَأْكُلُونَ فِي بُطُونِهِمْ إِلَّا النَّارَ وَلَا يُكَلِّمُهُمُ اللَّهُ يَوْمَ الْقِيَامَةِ وَلَا يُزَكِّيهِمْ وَلَهُمْ عَذَابٌ أَلِيمٌ ﴿١٧٤﴾

175. 그들은 진리를 버리고 방황을 택하였으며 관용을 마다하고 벌을 원하였나니 그들이 유황불 위에서 참을 수 있단 말이뇨

أُولَٰئِكَ الَّذِينَ اشْتَرَوُا الضَّلَالَةَ بِالْهُدَىٰ وَالْعَذَابَ بِالْمَغْفِرَةِ ۚ فَمَا أَصْبَرَهُمْ عَلَى النَّارِ ﴿١٧٥﴾

176. 그것은[1] 하나님께서 그 성서를 진리로 보내셨는데 그 성서에 이의를 제기하여 분열을 초래했기 때문이라

ذَٰلِكَ بِأَنَّ اللَّهَ نَزَّلَ الْكِتَابَ بِالْحَقِّ ۗ وَإِنَّ الَّذِينَ اخْتَلَفُوا فِي الْكِتَابِ لَفِي شِقَاقٍ بَعِيدٍ ﴿١٧٦﴾

177. 동서로 고개를 돌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 아니거늘[1] 진정한 신앙이란 하나님과 내세와 천사들과 성서들과 선지자들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가까운 친지들에게 고아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여비가 떨어진 여행자에게 구걸하는 자와 노예를 해방시켜준 자에게 예배를 드리고 이슬람세를 내며 약속을 했을때는 약속을 이행하고

لَيْسَ الْبِرَّ أَنْ تُوَلُّوا وُجُوهَكُمْ قِبَلَ الْمَشْرِقِ وَالْمَغْرِبِ وَلَٰكِنَّ الْبِرَّ مَنْ آمَنَ بِاللَّهِ وَالْيَوْمِ الْآخِرِ وَالْمَلَائِكَةِ وَالْكِتَابِ وَالنَّبِيِّينَ وَآتَى الْمَالَ عَلَىٰ حُبِّهِ ذَوِي الْقُرْبَىٰ وَالْيَتَامَىٰ وَالْمَسَاكِينَ وَابْنَ السَّبِيلِ وَالسَّائِلِينَ وَفِي الرِّقَابِ وَأَقَامَ الصَّلَاةَ وَآتَى الزَّكَاةَ وَالْمُوفُونَ بِعَهْدِهِمْ إِذَا عَاهَدُوا ۖ وَالصَّابِرِينَ فِي الْبَأْسَاءِ وَالضَّرَّاءِ وَحِينَ

되어있다. 자세한 도살법은 하디쓰 40선(최영길 번역 및 해석 p.74참조)

3) 기아의 상태에서 생명이 위험할 때, 목숨을 구할 때, 또는 알지못하고 무의식 중에 먹었을 때는 허용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174-1) 구약에 예언된 무함마드가 예언자로 온다는 기록을 숨겼던 유대인들의 교구장들에게 계시된 말씀이다(알파크르 알라-지 28/5).

176-1) 유황불속에서 벌을 받게 된 것은

177-1) 진실한 신앙이란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 하는 사람으로써 ① 신앙에 진실하고 성실하며, ② 진실과 성실은 자선을 실천 함으로써 행위의 모범이 되며, ③ 어떠한 환경속에서도 변함이 없는 강건하고 흔들리지 아니한 자세로써, ④ 사회조직에 협조하는 선량한 시민이 될 때 진실한 신앙인으로 묘사되고 있다.

البَابِ لَعَلَّكُمْ تَتَّقُونَ ﴿١٧٩﴾

고통과 역경에서는 참고 인내하는 것이 진정한 정의의 길이며[2] 이들 이야말로 진실하게 사는 의로운 사람들이라

يَا أَيُّهَا الَّذِينَ آمَنُوا كُتِبَ عَلَيْكُمُ الْقِصَاصُ فِي الْقَتْلَى الْحُرُّ بِالْحُرِّ وَالْعَبْدُ بِالْعَبْدِ وَالْأُنْثَى بِالْأُنْثَى فَمَنْ عُفِيَ لَهُ مِنْ أَخِيهِ شَيْءٌ فَاتِّبَاعٌ بِالْمَعْرُوفِ وَأَدَاءٌ إِلَيْهِ بِإِحْسَانٍ ذَٰلِكَ تَخْفِيفٌ مِنْ رَبِّكُمْ وَرَحْمَةٌ فَمَنِ اعْتَدَىٰ بَعْدَ ذَٰلِكَ فَلَهُ عَذَابٌ أَلِيمٌ ﴿١٧٨﴾

178. 믿는자들이여 살인의 경우 자유인 대 자유인 종복 대 종복 여성 대 여성으로 동등한 처벌규정이 기록되어 있노라 그러나 피해자의 형제로부터 용서를 받은 자는 감사의 보상을 해야 되나니 보호자는 계율을 따른 것이라 이것은 너희 주님으로부터 감형과 자비로다 그후 범행을 범한자는 고통스러운 징벌이 그에게 있을 것이라[1]

وَلَكُمْ فِي الْقِصَاصِ حَيَاةٌ يَا أُولِي الْأَلْبَابِ لَعَلَّكُمْ تَتَّقُونَ ﴿١٧٩﴾

179. 이 동등한 처벌법은 생명을 보호함에 있나니 현명한 사람들이여 스스로를 자제할 것이라

كُتِبَ عَلَيْكُمْ إِذَا حَضَرَ أَحَدَكُمُ الْمَوْتُ إِنْ تَرَكَ خَيْرًا الْوَصِيَّةُ لِلْوَالِدَيْنِ وَالْأَقْرَبِينَ بِالْمَعْرُوفِ حَقًّا عَلَى الْمُتَّقِينَ ﴿١٨٠﴾

180. 너희 가운데 죽음이 다가온 자는 재산을 남기게 되나니 그는 부모들과 가까운 친척들에게 글로서 유언을 남기라[1]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신앙인의 의무라

---

2) 지금까지는 종교의 원리와 이스라엘 자손의 창조주에 대한 불신에 관한 말씀이 계시되었다. 그러나 본 절부터는 바까라 장의 대다수가 이슬람법에 관한 계시다.

178-1) 이슬람이전 사회에서는 무서운 보복행위가 잦았으나 이슬람이 도래함으로써 경감 및 완화되었다. 보다 나은 정의사회를 구현하는데는 우선 자비와 관용의 촉구를 우선으로 하면서 동등한 권리가 보장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남성이 남성을, 여성이 여성을 살해 하였을 경우 그와 동등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동등한 권리로 부유한 사람이, 지위가 높은 사람이, 사회의 유명한 사람이 살해 당했다하여 그의 생명이 빈자, 또는 하류계급 사람들의 2-3명의 생명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것 만큼만 처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해자는 피해를 준 만큼의 처벌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양 당사자는 그 이상의 요구, 그 이상의 처벌은 지위고하를, 빈부의 차이를 막론하고 요구할 수 없으며 요구 될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다수의 번역된 꾸란에서는 "끼싸-쓰"를 보복(Retaliation)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앞서 풀이된 것으로 보아서는 "동등한 처벌"로 풀이해야함이 원래의 의미에 가까운 것으로 본다.
이 당시 이스라엘 자손 즉 유대인들은 동등한 처벌법(끼싸-쓰)만 있었고 보상제도(디야)가 없었으며, 기독교에서는 그 반대로 동등한 처벌(끼싸-쓰)은 없었고, 보상제도(디야)만 있었으나 이슬람에서는 동등한 처벌(끼싸-쓰), 보상제도(디야), 관용(아프우)의 세가지가 적용되고 있다.

180-1) 공정하게 양도하되 $\frac{1}{3}$를 넘지 아니하고 부유한 사람에게 양도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فَمَنْ بَدَّلَهُ بَعْدَمَا سَمِعَهُ فَإِنَّمَا إِثْمُهُ عَلَى الَّذِينَ
يُبَدِّلُونَهُ ۚ إِنَّ اللَّهَ سَمِيعٌ عَلِيمٌ ﴿١٨١﴾

181. 그러나 유언을 들고서 그것을 변조하는자 있나니 변조하는 것은 죄악이라 실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아시노라

فَمَنْ خَافَ مِن مُّوصٍ جَنَفًا أَوْ إِثْمًا فَأَصْلَحَ بَيْنَهُمْ
فَلَا إِثْمَ عَلَيْهِ ۚ إِنَّ اللَّهَ غَفُورٌ رَّحِيمٌ ﴿١٨٢﴾

182. 그러나 유언 작성자의 편견이나 부정으로 죄악스러움을 두려워 한다면 그 두 당사자 사이를 화해시킬 것이니 이는 죄악이 아니라 실로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

يَا أَيُّهَا الَّذِينَ آمَنُوا كُتِبَ عَلَيْكُمُ الصِّيَامُ كَمَا كُتِبَ
عَلَى الَّذِينَ مِن قَبْلِكُمْ لَعَلَّكُمْ تَتَّقُونَ ﴿١٨٣﴾

183. 너희 선임자들에게 단식이 의무화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너희에게도 단식은[1] 의무라 자제함을 통하여 의로워질 것이라

أَيَّامًا مَّعْدُودَاتٍ ۚ فَمَن كَانَ مِنكُم مَّرِيضًا أَوْ عَلَىٰ سَفَرٍ
فَعِدَّةٌ مِّنْ أَيَّامٍ أُخَرَ ۚ وَعَلَى الَّذِينَ يُطِيقُونَهُ فِدْيَةٌ
طَعَامُ مِسْكِينٍ ۖ فَمَن تَطَوَّعَ خَيْرًا فَهُوَ خَيْرٌ لَّهُ ۚ وَأَن
تَصُومُوا خَيْرٌ لَّكُمْ إِن كُنتُمْ تَعْلَمُونَ ﴿١٨٤﴾

184. 정하여진 날에 단식을 행하면 되나[1] 병중에 있거나 여행중에 있을 때는 다른 날로 대용하되 불쌍한 자를 배부르게하여 속죄하라 그러나 스스로 지킬 경우는 더 많은 보상이 있으며 단식을 행함은 너희에게 더욱 좋으니라 실로 너희는 알게 될 것이라[2]

사람들에게 양도되는 것이다. 본절이 계시될 때까지의 유산 분배법이었으나 후에 재산분배법에 관한 다른 말씀이 계시되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105).

183-1) 라마단 달의 단식의 언어적 의미는, 무엇을 정지 또는 중단 하는 것으로 아부 우베이다는 음식이나 대화 또는 활용하는 것을 중지하는 모든 행위로 풀이하고 있다. 한편 이슬람에서의 단식은 단식을 하는 의도와 더불어 낮에 음식과 음료수와 부부생활을 중단하는 것을 가르킨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106-107).

184-1) 하나님께서는 라마단 달에 유대인이나 기독교인들에게도 단식한 것을 명령하였다. 그런데 유대인은 한달 동안을 지키지 아니하고 일년중 하루, 즉 그들이 말하는 파라오가 익사한 그날 하루만 단식 하였으며, 기독교인들은 라마단 달 단식을 실천하고 있었는데 열사의 무더위가 그들을 엄습하자 기후 변화가 없는 다른 기간으로 바꾸었다. 그대신 10일을 더 추가했다. 그후 오랜 세월이 지난 후 그들의 왕이 병을 앓게되자 7일동안 더 단식할 것을 맹세하였다. 그후 다른 왕이 군림하여 말하길, 3일을 더 추가하는 것이 어떤가? 라고 말하자 3일을 추가하여 50일이 되었다.
(하싼에 의해서 전하여 지고 있음 : 알타프씨르 알카비르 76/5)

2) 어려움을 무릅쓰고 단식을 실천하는 자에게 보상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즉 나이가 많은 노인들, 또는 특수 환경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단식을 했을때 보상이 있음을 의미한다. 샤피 법학자는 임신중이거나 어린이에게 젖을 먹이는 유모까지도 포함하고 있으나, 샤피를 제외한 다른 학자들은 임신중이거나 젖을 먹이는 유모가 단식을 할 수 있더라도 단식을 연기하는 것이 더 낫다는데 의견을 일치하고 있다.

185. 사람을 위한 복음으로 그리고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라마단 달에 꾸란이 계시되었나니 그달에 임하는 너희 모두는 단식을 하라 그러나 병중이거나 여행중일 경우는 다른 날로 대체하면 되니라 하나님은 너희로 하여금 고충을 원치 않으시니 그 일정을[1] 채우고 너희로 하여금 편의를 원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감사하라

شَهْرُ رَمَضَانَ الَّذِيٓ أُنزِلَ فِيهِ الْقُرْآنُ هُدًى لِّلنَّاسِ وَبَيِّنَاتٍ مِّنَ الْهُدَىٰ وَالْفُرْقَانِ ۚ فَمَن شَهِدَ مِنكُمُ الشَّهْرَ فَلْيَصُمْهُ ۖ وَمَن كَانَ مَرِيضًا أَوْ عَلَىٰ سَفَرٍ فَعِدَّةٌ مِّنْ أَيَّامٍ أُخَرَ ۗ يُرِيدُ اللَّهُ بِكُمُ الْيُسْرَ وَلَا يُرِيدُ بِكُمُ الْعُسْرَ وَلِتُكْمِلُوا الْعِدَّةَ وَلِتُكَبِّرُوا اللَّهَ عَلَىٰ مَا هَدَاكُمْ وَلَعَلَّكُمْ تَشْكُرُونَ ﴿١٨٥﴾

186. 나의 종복들이 그대에게 나에 관해 물을때 나는 너희들 가까이서 내게 예배하는 자들의 소원에 응답하노라 그러므로 나의 부름에 따르라 나를 믿는 자들은 올바른 길로 인도되리라[1]

وَإِذَا سَأَلَكَ عِبَادِي عَنِّي فَإِنِّي قَرِيبٌ ۖ أُجِيبُ دَعْوَةَ الدَّاعِ إِذَا دَعَانِ ۖ فَلْيَسْتَجِيبُوا لِي وَلْيُؤْمِنُوا بِي لَعَلَّهُمْ يَرْشُدُونَ ﴿١٨٦﴾

187. 단식날 밤 너희 아내에게 다가가는 것을 허락하노라 그녀들은 너희들을 위한 의상이요 너희들은 그녀들을 위한 의상이니라[1]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을 알고 계시나[2] 너희들에게 용서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셨노라 그러나 지금은 그녀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되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추구하고 하얀실이 검은실과 구별되는 아침 새벽까지 먹고 마시라 그런다음 밤이 올때까지 단식

أُحِلَّ لَكُمْ لَيْلَةَ الصِّيَامِ الرَّفَثُ إِلَىٰ نِسَائِكُمْ ۚ هُنَّ لِبَاسٌ لَّكُمْ وَأَنتُمْ لِبَاسٌ لَّهُنَّ ۗ عَلِمَ اللَّهُ أَنَّكُمْ كُنتُمْ تَخْتَانُونَ أَنفُسَكُمْ فَتَابَ عَلَيْكُمْ وَعَفَا عَنكُمْ ۖ فَالْآنَ بَاشِرُوهُنَّ وَابْتَغُوا مَا كَتَبَ اللَّهُ لَكُمْ ۚ وَكُلُوا وَاشْرَبُوا حَتَّىٰ يَتَبَيَّنَ لَكُمُ الْخَيْطُ الْأَبْيَضُ مِنَ الْخَيْطِ الْأَسْوَدِ مِنَ الْفَجْرِ ۖ ثُمَّ أَتِمُّوا الصِّيَامَ إِلَى اللَّيْلِ ۚ وَلَا تُبَاشِرُوهُنَّ وَأَنتُمْ عَاكِفُونَ فِي الْمَسَاجِدِ ۗ تِلْكَ حُدُودُ اللَّهِ فَلَا تَقْرَبُوهَا

185-1) 라마단 달의 일수대로 단식해야 한다는 뜻.

186-1) 한 무리의 아랍인들이 선지자께 묻기를, 무함마드여! 우리들의 주님은 가까이에 계시는가? 아니면 멀리 계시는가? 가까이 계시면 그분께 속삭여 보고 멀리 계시면 불러보자 라고 하자 "나는 그대들 가까이 있어 내게 예배하는 자들의 소원에 응답하도다"라는 말씀이 계시된 것으로 전하여지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107).

187-1) 의복이 인간의 몸을 감싸주고 덮어주며 보호하여 주듯 남편은 부인을, 부인은 남편을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은유법으로 묘사하고 있다. 성 생활도 상부상조함을 내포하고 있다.

2) 이슬람초기 라마단 달에는 밤이나 낮이나 라마단 기간이 끝날때까지 부부생활이 금지되었다. 이로인해 남성들은 여성들을 기만하거나 배신한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을 알고 있느니라"라는 계시가 내린 것으로 "부카리"가 전하고 있다.

كَذٰلِكَ يُبَيِّنُ اللّٰهُ اٰيٰتِهٖ لِلنَّاسِ لَعَلَّهُمْ يَتَّقُوْنَ ﴿١٨٧﴾

을 지키고[3] 그녀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말것이며 사원에서 경건한 신앙 생활을 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한한 것이니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듯 하나님은 인간들이 자제함을 배울 수 있도록 계시 하였노라

وَلَا تَاْكُلُوْٓا اَمْوَالَكُمْ بَيْنَكُمْ بِالْبَاطِلِ وَتُدْلُوْا بِهَآ اِلَى الْحُكَّامِ لِتَاْكُلُوْا فَرِيْقًا مِّنْ اَمْوَالِ النَّاسِ بِالْاِثْمِ وَاَنْتُمْ تَعْلَمُوْنَ ﴿١٨٨﴾

188. 너희 가운데 너희의 재산을 무익하게 삼키지 말 것이며[1] 또 타인의 재산을 탐내어[2] 교만스럽게 재판의 미끼로서 사용치 말라 너희는 다 알고 있지 않느뇨

يَسْـَٔلُوْنَكَ عَنِ الْاَهِلَّةِ ۭ قُلْ هِىَ مَوَاقِيْتُ لِلنَّاسِ وَالْحَجِّ ۭ وَلَيْسَ الْبِرُّ بِاَنْ تَاْتُوا الْبُيُوْتَ مِنْ ظُهُوْرِهَا وَلٰكِنَّ الْبِرَّ مَنِ اتَّقٰى ۚ وَاْتُوا الْبُيُوْتَ مِنْ اَبْوَابِهَا ۠ وَاتَّقُوا اللّٰهَ لَعَلَّكُمْ تُفْلِحُوْنَ ﴿١٨٩﴾

189. 그들이 그대에게 초생달에 관해 질문 할때[1] 그것은 인간과 순례를 위한 시간이라[2] 말하여라 너희가 뒤 편으로 집에 오는 것은 옳지 아니하며[3] 의로운 사람은 정문으로 오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번성하리라

وَقَاتِلُوْا فِىْ سَبِيْلِ اللّٰهِ الَّذِيْنَ يُقَاتِلُوْنَكُمْ

190. 너희에게 도전하는 하나님의 적들에게 도전하되 그러나 먼

---

3) 샤리프 리다에 따르면 하얀실이라 함은 아침 동녘을, 검은실이라 함은 어두운 저녁을 은유법으로 묘사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시간에는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부부생활 등 모든 일상생활이 허락되나 낮동안(아침 동녘부터 저녁해가 서산에 질 때까지)은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부부생활을 금지하고 있다.

188-1) 인간의 기본적 욕망은 먹는것과 마시는 것 그리고 성생활외에도 부와 재산에 대한 욕망이 있다. 그래서 단식의 궁극적 목적은 언급한 3가지를 지키는 것은 말할것도 없지만 부와 재산에 대한 욕망을 자제함으로써 단식이 추구하는 목적이 실현된다고 본다. 본절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의 재산을 무익하게 삼키지 말것이며-"의 의도는 자기 재산을 가지고 권력을 매수하여 자기 재산을 더욱 증식하려는 것과 돈으로써 타인들을 타락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 남의 재산과 단체 및 국가의 공익재산의 부정축재 금지

189-1) 선지자의 일부 추종자들이 선지자께 질문하길, 실처럼 가늘었다가 점점커져 온달이 되고 다시 줄어드는 저 초생달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변함이 없는 태양이 어떻습니까? 라고 하자 이 말씀이 계시된 것으로 전하여지고 있다(타프씨르 알라지 132/5).

2) 단식과 성지순례 그리고 축제(이둘 피트르와 이둘아드하) 및 이슬람세의 지불시기 등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의 시간을 초생달을 통해서 알 수 있다.

3) 아랍인들은 옛풍습과 미신에 따라 성지순례 기간이나 순례직후에 사람들이 자기집을 들어올때 뒷문으로 들어오도록 하였다. 이것은 하나의 미신이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정문으로 들어오도록 계시를 내림으로써 미신을 타파하였다.

وَلَا تَعْتَدُوا إِنَّ اللَّهَ لَا يُحِبُّ الْمُعْتَدِينَ ﴿١٩٠﴾

저 공격하지 말라 하나님은 공격하는 자들을 사랑하지 않으시니라[1]

وَاقْتُلُوهُمْ حَيْثُ ثَقِفْتُمُوهُمْ وَأَخْرِجُوهُم مِّنْ حَيْثُ أَخْرَجُوكُمْ وَالْفِتْنَةُ أَشَدُّ مِنَ الْقَتْلِ ۚ وَلَا تُقَاتِلُوهُمْ عِندَ الْمَسْجِدِ الْحَرَامِ حَتَّىٰ يُقَاتِلُوكُمْ فِيهِ ۖ فَإِن قَاتَلُوكُمْ فَاقْتُلُوهُمْ ۗ كَذَٰلِكَ جَزَاءُ الْكَافِرِينَ ﴿١٩١﴾

191. 그들을 발견한 곳에서 그들에게 투쟁하고 그들이 너희들을 추방한 곳으로부터 그들을 추방하라 박해는 살해보다 더 가혹하니라[1] 그들이 하람사원에서 너희들을 살해하지 않는한 그들을 살해하지 말라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서 살해할 때는 살해하라 이것은 불신자들에 대한 보상이라

فَإِنِ انتَهَوْا فَإِنَّ اللَّهَ غَفُورٌ رَّحِيمٌ ﴿١٩٢﴾

192. 만약 그들이 싸움을 단념한다면[1] 하나님은 그들을 관용과 은총으로 충만케 하시니라

وَقَاتِلُوهُمْ حَتَّىٰ لَا تَكُونَ فِتْنَةٌ وَيَكُونَ الدِّينُ لِلَّهِ ۖ فَإِنِ انتَهَوْا فَلَا عُدْوَانَ إِلَّا عَلَى الظَّالِمِينَ ﴿١٩٣﴾

193. 박해가 사라질 때까지 그들에게 대항하라[1] 이는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니라 그들이 박해를 단념한다면[2] 우매한 자들을 제외하고는 적대시 하지 말라

الشَّهْرُ الْحَرَامُ بِالشَّهْرِ الْحَرَامِ وَالْحُرُمَاتُ قِصَاصٌ ۚ فَمَنِ اعْتَدَىٰ عَلَيْكُمْ فَاعْتَدُوا عَلَيْهِ بِمِثْلِ مَا اعْتَدَىٰ عَلَيْكُمْ ۚ وَاتَّقُوا اللَّهَ وَاعْلَمُوا أَنَّ اللَّهَ مَعَ الْمُتَّقِينَ ﴿١٩٤﴾

194. 살생이 금지된 달은 성스러운 달이거늘 살생을 금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공격할 때는 그들이 공격했던 것처럼 그들을 공격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신앙인들과 함께 하시니라[1]

190-1) 이슬람에서는 먼저 공격하는 것은 배제되어 있으나 적이 선제 공격을 했을 경우는 자체방어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적의 여성, 어린이, 노인, 허약자 그리고 나무나 곡식등에는 피해를 주지 말라고 하였다.

191-1) 헤즈라 6년 "후데이비야"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가 있었다. 이 당시 이슬람이 번성하기 시작함으로서 영향력을 가진 무슬림 공동사회가 조성되자 많은 불신자 및 이교도들이 멕카로부터 추방을 당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이들은 무슬림들을 학살하고 우무라 및 성지순례를 방해하는 등 무슬림들과의 휴전조약을 깨뜨리고 그곳의 무슬림에 대한 박해가 심하여지자 이 계시가 내려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192-1) 불신을 버리고 회개하여 믿음을 갖게 될 때

193-1) 지상에서 불신자가 없어져 하나님의 종교가 다른 종교들을 지배 할 때까지
2) 불신을 버리고 회개하여 믿음을 가질 때까지

وَأَنفِقُوا فِي سَبِيلِ اللَّهِ وَلَا تُلْقُوا بِأَيْدِيكُمْ إِلَى التَّهْلُكَةِ ۛ وَأَحْسِنُوا ۛ إِنَّ اللَّهَ يُحِبُّ الْمُحْسِنِينَ ﴿١٩٥﴾

195. 하나님을 위해서 재산을 사용하되 너희 스스로 파괴를 초래하지 말라 자선을 행하라 하나님은 자선을 행하는 그들을 사랑하시니라

وَأَتِمُّوا الْحَجَّ وَالْعُمْرَةَ لِلَّهِ ۚ فَإِنْ أُحْصِرْتُمْ فَمَا اسْتَيْسَرَ مِنَ الْهَدْيِ ۖ وَلَا تَحْلِقُوا رُءُوسَكُمْ حَتَّىٰ يَبْلُغَ الْهَدْيُ مَحِلَّهُ ۚ فَمَن كَانَ مِنكُم مَّرِيضًا أَوْ بِهِ أَذًى مِّن رَّأْسِهِ فَفِدْيَةٌ مِّن صِيَامٍ أَوْ صَدَقَةٍ أَوْ نُسُكٍ ۚ فَإِذَا أَمِنتُمْ فَمَن تَمَتَّعَ بِالْعُمْرَةِ إِلَى الْحَجِّ فَمَا اسْتَيْسَرَ مِنَ الْهَدْيِ ۚ فَمَن لَّمْ يَجِدْ فَصِيَامُ ثَلَاثَةِ أَيَّامٍ فِي الْحَجِّ وَسَبْعَةٍ إِذَا رَجَعْتُمْ ۗ تِلْكَ عَشَرَةٌ كَامِلَةٌ ۗ ذَٰلِكَ لِمَن لَّمْ يَكُنْ أَهْلُهُ حَاضِرِي الْمَسْجِدِ الْحَرَامِ ۚ وَاتَّقُوا اللَّهَ وَاعْلَمُوا أَنَّ اللَّهَ شَدِيدُ الْعِقَابِ ﴿١٩٦﴾

196. 하나님을 위해 대순례와 소순례를 행하라[1] 할 수 없을 경우는 네가 할 수 있는 제물을 바칠 것이요[2] 그 제물이 제단에 오를때까지는 머리를 깍지 말것이며 너희 가운데 몸이 아프거나 머리에 상처가 있을때는 머리를 깍아도 되나 단식으로써 또는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을 주거나 혹은 제물로 바쳐 보상토록 하라[3] 너희가 평안할 때 희망하는 자는 소순례로부터 대순례까지 계속하고 할 수 있는 제물을 바쳐야 되며 만일 그렇게 할 수 없을 경우는 순례기간 중 삼일간을 단식하고 집에 돌아와 일곱날을 단식하여 열흘을 채워야 하니 이것은 성역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벌이 엄하심을 알라

الْحَجُّ أَشْهُرٌ مَّعْلُومَاتٌ ۚ فَمَن فَرَضَ فِيهِنَّ الْحَجَّ فَلَا رَفَثَ

197. 대순례는 명시된 달에 행하되[1] 순례를 행하는 자는 성욕과

194-1) "하람"이란 "금지된" 또는 "성스러운"이란 뜻이다. 성지순례 달(둘핫지)은 성스러운 달로 아랍관습에 의하여 모든 전쟁행위가 금지되었다. 역시 헤즈라력 11월(둘 까으다)과 1월(무하르람)도 성스러운 달로 전쟁행위 및 살생 행위가 금지되었다.
헤즈라력 7월 "라잡"월에도 전쟁은 금지되었다. 그러나 이 기간이라 할지라도 적이 공격을 했거나 휴전 및 평화조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적이 공격한 만큼은 공격을 할 수 있다.

196-1) 이슬람의 다섯가지 실천사항(이슬람의 5행 이라고도 함) 중의 5번째 사항으로 능력이 있는자는 일생에 한번 이상은 하나님의 집(바이투 알라)을 순례하게 되어있다. 소순례는 성지순례(하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일년중 아무때나 할 수 있는 소순례이지만, 성지순례(하지)는 성지순례 달(둘핫지) 첫 10일 동안에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자세한 것은 "우무라 및 성지순례"(최영길 번역) 참조바람.
2) 몸이 아프거나 적의 공격이 있거나 어떤 사정으로 우무라나 성지순례를 완전히 마칠 수 없을 경우에 소나 양을 잡아 희생제를 지내면 된다.
3) 3일간 단식을 하거나 60명의 불쌍한 자들을 배불리 먹이거나 양 한 마리를 잡으면 된다.

197-1) 성지순례기간은 샤왈(헤즈라 10월), 둘까으다(11월), 둘힛자(12월) 첫 10일간이다.

وَلَا فُسُوقَ وَلَا جِدَالَ فِي الْحَجِّ ۗ وَمَا تَفْعَلُوا مِنْ خَيْرٍ يَعْلَمْهُ
اللَّهُ ۗ وَتَزَوَّدُوا فَإِنَّ خَيْرَ الزَّادِ التَّقْوَىٰ ۚ
وَاتَّقُونِ يَا أُولِي الْأَلْبَابِ ﴿١٩٧﴾

간사하고 사악한 마음을 갖지 말것이며 언쟁도 하지 말라 그리고 선행을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아실 것이라 내세를 위한 양식을 마련하되 가장 좋은 양식은 이성이 있는 자들의 정직한 품행이라 그러므로 현명한 자들아 나[2]를 두려워 하라

لَيْسَ عَلَيْكُمْ جُنَاحٌ أَنْ تَبْتَغُوا فَضْلًا مِنْ رَبِّكُمْ ۚ
فَإِذَا أَفَضْتُمْ مِنْ عَرَفَاتٍ فَاذْكُرُوا اللَّهَ عِنْدَ
الْمَشْعَرِ الْحَرَامِ ۖ وَاذْكُرُوهُ كَمَا هَدَاكُمْ ۚ وَإِنْ
كُنْتُمْ مِنْ قَبْلِهِ لَمِنَ الضَّالِّينَ ﴿١٩٨﴾

198. 순례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구하는 것은[1] 죄가 아니니 아라파트로부터 군집하여 나올때 성비[2]에서 하나님을 염원하고 비록 이전에 우매한 자들 가운데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분을 염원하라

ثُمَّ أَفِيضُوا مِنْ حَيْثُ أَفَاضَ النَّاسُ وَاسْتَغْفِرُوا
اللَّهَ ۚ إِنَّ اللَّهَ غَفُورٌ رَحِيمٌ ﴿١٩٩﴾

199. 그런후 사람들이 서두르는 곳으로부터 서둘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 실로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시니라

فَإِذَا قَضَيْتُمْ مَنَاسِكَكُمْ فَاذْكُرُوا اللَّهَ
كَذِكْرِكُمْ آبَاءَكُمْ أَوْ أَشَدَّ ذِكْرًا ۗ فَمِنَ النَّاسِ
مَنْ يَقُولُ رَبَّنَا آتِنَا فِي الدُّنْيَا وَمَا لَهُ فِي

200. 순례의 의식을 행하면서 너희 선조들이 그랬듯이 더욱 염원하라 무리중에는 하나님이여 현세의 축복을 주소서[1] 라고만 구하

첫 순례예식은 샤월 초부터 시작되나 주요 의식은 다음과 같다.
① 순례복(이흐람)은 메카로 이르는 지정된 장소(마와 끼뜨)에서 입고,
② 메카에 있는 하람사원으로가 카으바 신전을 7차례 돈후(따와프), 카으바 신전에 있는 검은 돌(하자르 알아쓰와드)에 입을 맞춘다.
③ 아브라함 신전에서 기도를 드리고(2장 125절), 사파와 마르와 동산 사이를 왕복 싸이하고(2장 158절),
④ 둘힛자 7일난 대설교에 참석하여 설교를 들으며,
⑤ 8일째는 미나계곡을 방문하여 그곳에 머무르면서 밤을 세운다. 9일째 계속해서 아라파트에 있는 조그마한 동산(자발 라흐만 : 자비의 산)에 올라 아담과 하와의 재회를 기념한 후
⑥ 10일째는 "이둘아드하"로 미나 계곡에서 양이나 소를 잡아 희생제를 지내면서 사탄에 7개의 조약돌을 그 다음날까지 연이어 던진다. 물론 이런 의식들은 아브라함의 행적에 따른 것이다. 여기까지의 의식을 마침으로써 대순례는 끝난 것이나 다름없으나 2-3일간 더 체류하면 더 복이 있다고 한다. 자세한 것은 우무와 성지순례(최영길 번역) 참조.

2) 하나님

198-1) 성지 순례기간 중에 장사 및 무역 등의 거래행위

200-1) 내세에서 있을 행복보다는 현세에서 많은 행복만을 추구하는 자.

الْاٰخِرَةِ مِنْ خَلَاقٍ ﴿٢٠٠﴾

는자 있으나 그들에게는 내세에서 몫이 없을 것이라

وَمِنْهُمْ مَّنْ يَّقُوْلُ رَبَّنَآ اٰتِنَا فِى الدُّنْيَا حَسَنَةً وَّفِى الْاٰخِرَةِ حَسَنَةً وَّقِنَا عَذَابَ النَّارِ ﴿٢٠١﴾

201. 또 이렇게 말하는 무리가 있나니 주여 현세에서 축복하여 주시고 내세에서도 축복하여 주시며[1] 불지옥의 고충으로부터 구하여 주소서

اُولٰٓئِكَ لَهُمْ نَصِيْبٌ مِّمَّا كَسَبُوْا ۭ وَاللّٰهُ سَرِيْعُ الْحِسَابِ ﴿٢٠٢﴾

202. 이들에게는 그들이 노력한 만큼 몫이 할당 되리니 하나님은 계산하심에 빠르시니라

وَاذْكُرُوا اللّٰهَ فِىْٓ اَيَّامٍ مَّعْدُوْدٰتٍ ۭ فَمَنْ تَعَجَّلَ فِىْ يَوْمَيْنِ فَلَآ اِثْمَ عَلَيْهِ ۚ وَمَنْ تَاَخَّرَ فَلَآ اِثْمَ عَلَيْهِ ۙ لِمَنِ اتَّقٰى ۭ وَاتَّقُوا اللّٰهَ وَاعْلَمُوْٓا اَنَّكُمْ اِلَيْهِ تُحْشَرُوْنَ ﴿٢٠٣﴾

203. 지정된 날[1] 하나님을 염원하라 이틀전에 서둘러 떠났어도 잘못이 아니며 뒤늦게 떠났어도 잘못이[2] 아니거늘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너희가 그분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وَمِنَ النَّاسِ مَنْ يُّعْجِبُكَ قَوْلُهٗ فِى الْحَيٰوةِ الدُّنْيَا وَيُشْهِدُ اللّٰهَ عَلٰى مَا فِىْ قَلْبِهٖ ۙ وَهُوَ اَلَدُّ الْخِصَامِ ﴿٢٠٤﴾

204. 현세의 기쁜 말로 그대를 놀라게 할 무리가 있으리라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 드러나니 그는 논쟁을 일삼는 위선자라[1]

وَاِذَا تَوَلّٰى سَعٰى فِى الْاَرْضِ لِيُفْسِدَ فِيْهَا وَيُهْلِكَ الْحَرْثَ وَالنَّسْلَ ۭ وَاللّٰهُ لَا يُحِبُّ الْفَسَادَ ﴿٢٠٥﴾

205. 그가 그대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은 농작물과 가축에 피해를 입혀 재앙을 가져오려하나 하나님은 어떤 재해도 좋아하지 아니하시니라

201-1) 현세와 내세의 행복을 동시에 기원하는 자가 지혜있는 신앙인이라 풀이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116).

203-1) 희생제 지내는 날(야우무 안나흐르) 이후 3일(아이얌 앗타스리-끄)간 사탄에 조약돌을 던지는 그 기간

2) 미나에서 완전 이틀을 보낸 후 서둘러 떠나거나 3일째 조약돌을 던질때까지 남아 있는 것.

204-1) "알아크나쓰 이븐 샤리-끄"가 선지자에게 찾아와 이슬람을 믿는척 이슬람을 좋아한다고 명세하였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거짓으로 가득찼으니 위선자(무나-피크) 임에는 틀림없었다. 얼마후 선지자로부터 나와 한 무슬림 형제의 농작물과 당나귀들이 있는 곳을 지나가면서 그 농작물에 불을 지르고 그 당나귀들을 죽여버렸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내린 것으로 전하여지고 있다(알파크르 알라지 215/5).

وَإِذَا قِيلَ لَهُ اتَّقِ اللَّهَ أَخَذَتْهُ الْعِزَّةُ بِالْإِثْمِ
فَحَسْبُهُ جَهَنَّمُ وَلَبِئْسَ الْمِهَادُ ﴿٢٠٦﴾

206. 하나님을 공경하라 일렀거늘 거만으로 죄악을 낳았으니 악마의 휴식처인 지옥에서 기거할 것이라

وَمِنَ النَّاسِ مَنْ يَشْرِي نَفْسَهُ ابْتِغَاءَ مَرْضَاتِ
اللَّهِ ۗ وَاللَّهُ رَءُوفٌ بِالْعِبَادِ ﴿٢٠٧﴾

207. 자기의 생명을 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무리가 있나니 하나님은 그 종을 사랑하시니라

يَا أَيُّهَا الَّذِينَ آمَنُوا ادْخُلُوا فِي السِّلْمِ
كَافَّةً ۖ وَلَا تَتَّبِعُوا خُطُوَاتِ الشَّيْطَانِ ۚ إِنَّهُ
لَكُمْ عَدُوٌّ مُبِينٌ ﴿٢٠٨﴾

208. 믿음을 가진자들이여 이슬람으로 온전히 귀의하라[1] 그리고 사탄의 발자국을 따르지 말라 그 야말로 사악한 너희의 분명한 적이라

فَإِنْ زَلَلْتُمْ مِنْ بَعْدِ مَا جَاءَتْكُمُ الْبَيِّنَاتُ
فَاعْلَمُوا أَنَّ اللَّهَ عَزِيزٌ حَكِيمٌ ﴿٢٠٩﴾

209. 너희에게 말씀이 있었는데도 이슬람에 귀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심을 너희는 알게 되리라[1]

هَلْ يَنْظُرُونَ إِلَّا أَنْ يَأْتِيَهُمُ اللَّهُ فِي ظُلَلٍ مِنَ
الْغَمَامِ وَالْمَلَائِكَةُ وَقُضِيَ الْأَمْرُ ۚ
وَإِلَى اللَّهِ تُرْجَعُ الْأُمُورُ ﴿٢١٠﴾

210. 그들은 하나님이 구름의 그림자를 타고 천사들과 함께 너희들에게 강림함을 기다리며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느뇨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니라[1]

سَلْ بَنِي إِسْرَائِيلَ كَمْ آتَيْنَاهُمْ مِنْ آيَةٍ بَيِّنَةٍ ۗ
وَمَنْ يُبَدِّلْ نِعْمَةَ اللَّهِ مِنْ بَعْدِ مَا جَاءَتْهُ
فَإِنَّ اللَّهَ شَدِيدُ الْعِقَابِ ﴿٢١١﴾

211.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물어보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분명한 예증을 그들에게 주었더뇨[1]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을 불신하니 실로 하나님의 벌이 엄할 것이라

زُيِّنَ لِلَّذِينَ كَفَرُوا الْحَيَاةُ الدُّنْيَا وَيَسْخَرُونَ مِنَ الَّذِينَ

212. 속세의 삶이 불신자들을 유

208-1) 이슬람에 귀의한 후 모든 이슬람 법에 순종해야 한다는 뜻이다.

209-1)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벌이 있음 것이라는 경고

210-1)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은 여러 가지 변명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려 한다. "만일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반하고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겠노라" 또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믿음을 부정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한다.

211-1) 모세에게 계시된 복음과 기적들

اٰمَنُوْا وَالَّذِيْنَ اتَّقَوْا فَوْقَهُمْ يَوْمَ الْقِيٰمَةِ ۗ وَاللّٰهُ يَرْزُقُ مَنْ يَّشَآءُ بِغَيْرِ حِسَابٍ ﴿٢١٢﴾

혹하니 그들은 믿음이 진실한 신앙인들을 조롱하도다 그러나 심판의 날에는 믿음이 진실한 자들이 그들 위에 있으며 하나님은 그분의 의지에 따라 풍성한 양식을 주시니라[1]

كَانَ النَّاسُ اُمَّةً وَّاحِدَةً ۟ فَبَعَثَ اللّٰهُ النَّبِيّٖنَ مُبَشِّرِيْنَ وَمُنْذِرِيْنَ ۪ وَاَنْزَلَ مَعَهُمُ الْكِتٰبَ بِالْحَقِّ لِيَحْكُمَ بَيْنَ النَّاسِ فِيْمَا اخْتَلَفُوْا فِيْهِ ۭ وَمَا اخْتَلَفَ فِيْهِ اِلَّا الَّذِيْنَ اُوْتُوْهُ مِنْۢ بَعْدِ مَا جَآءَتْهُمُ الْبَيِّنٰتُ بَغْيًۢا بَيْنَهُمْ ۚ فَهَدَى اللّٰهُ الَّذِيْنَ اٰمَنُوْا لِمَا اخْتَلَفُوْا فِيْهِ مِنَ الْحَقِّ بِاِذْنِهٖ ۭ وَاللّٰهُ يَهْدِيْ مَنْ يَّشَآءُ اِلٰى صِرَاطٍ مُّسْتَقِيْمٍ ﴿٢١٣﴾

213. 인류는 하나의 공동체였으며 이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복음의 전달자로서 경고자로서 그곳에 보내셨도다[1] 또한 그들과 함께 진리의 성서를 보내어 이로 하여금 그들이 달리하는 사람들을 다스리도록 하였더라 그리하매 그 성서의 백성들은 분명한 예증이 있은 후 그들 사이에 아무 이견이 없었으나 불신자들의 증오는 그렇지 아니했더라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로 그들이 달리했던것에 대하여 진리로 믿는 자들을 인도하였나니 하나님은 그분의 뜻으로 옳은 길을 가고자 하는 자를 인도하심이라

اَمْ حَسِبْتُمْ اَنْ تَدْخُلُوا الْجَنَّةَ وَلَمَّا يَاْتِكُمْ مَّثَلُ الَّذِيْنَ خَلَوْا مِنْ قَبْلِكُمْ ۭ مَسَّتْهُمُ الْبَاْسَآءُ وَالضَّرَّآءُ وَزُلْزِلُوْا حَتّٰى يَقُوْلَ الرَّسُوْلُ وَالَّذِيْنَ اٰمَنُوْا مَعَهٗ مَتٰى نَصْرُ اللّٰهِ ۭ اَلَآ اِنَّ نَصْرَ اللّٰهِ قَرِيْبٌ ﴿٢١٤﴾

214. 너희 이전에 떠난 선조들에게 있었던 그러한 시련없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생각하느뇨 그들에게 고통과 역경과 정신적 진통이 있었으니 선지자 그리고 그분과 함께했던 믿음이 진실한 자들도 언제 하나님의 승리가 오느냐고 물더라 실로 하나님의 승리는 가까이 있노라

يَسْـَٔلُوْنَكَ مَاذَا يُنْفِقُوْنَ ۭ قُلْ مَآ اَنْفَقْتُمْ مِّنْ خَيْرٍ

215. 그들이 그대에게 어떻게[1] 자선을 베풀어야 합니까 라고 할

212-1) 비록 현세에서는 가난하지만 믿음이 진실하면 내세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위에 있다는 말씀

213-1) 믿음이 진실한 신앙인들에게는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로써, 불신자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지옥이 있음을 경고하기 위해 예언자들을 보내셨다.

215-1) (1) 무엇을 (2) 누구에게 (3) 어떻게 자선을 베풀것인가? 라고 선지자의 추종자들이 질문을 하자 이 계시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123).

فَلِلْوَالِدَيْنِ وَالْأَقْرَبِيْنَ وَالْيَتٰمٰى وَالْمَسٰكِيْنِ وَابْنِ السَّبِيْلِ ۗ وَمَا تَفْعَلُوْا مِنْ خَيْرٍ فَاِنَّ اللّٰهَ بِهٖ عَلِيْمٌ ﴿٢١٥﴾

때 대답하여 가로되 부모를 위해서 친척과 고아와 구걸하는 자와 여행자들을 위해서 자선을 베풀어라 그리하면 자선을 행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라

كُتِبَ عَلَيْكُمُ الْقِتَالُ وَهُوَ كُرْهٌ لَّكُمْ ۚ وَعَسٰٓى اَنْ تَكْرَهُوْا شَيْـًٔا وَّهُوَ خَيْرٌ لَّكُمْ ۚ وَعَسٰٓى اَنْ تُحِبُّوْا شَيْـًٔا وَّهُوَ شَرٌّ لَّكُمْ ۗ وَاللّٰهُ يَعْلَمُ وَاَنْتُمْ لَا تَعْلَمُوْنَ ﴿٢١٦﴾

216. 비록 싫어하는 것이지만 너희에게 성전이 허락되었노라 그러나 너희가 싫어해서 복이 되는 것이 있고 너희가 좋아해서 너희에게 악이 되는 것이 있나니 하나님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시니라

يَسْـَٔلُوْنَكَ عَنِ الشَّهْرِ الْحَرَامِ قِتَالٍ فِيْهِ ۗ قُلْ قِتَالٌ فِيْهِ كَبِيْرٌ ۗ وَصَدٌّ عَنْ سَبِيْلِ اللّٰهِ وَكُفْرٌ بِهٖ وَالْمَسْجِدِ الْحَرَامِ وَاِخْرَاجُ اَهْلِهٖ مِنْهُ اَكْبَرُ عِنْدَ اللّٰهِ ۚ وَالْفِتْنَةُ اَكْبَرُ مِنَ الْقَتْلِ ۗ وَلَا يَزَالُوْنَ يُقَاتِلُوْنَكُمْ حَتّٰى يَرُدُّوْكُمْ عَنْ دِيْنِكُمْ اِنِ اسْتَطَاعُوْا ۗ وَمَنْ يَّرْتَدِدْ مِنْكُمْ عَنْ دِيْنِهٖ فَيَمُتْ وَهُوَ كَافِرٌ فَاُولٰٓئِكَ حَبِطَتْ اَعْمَالُهُمْ فِى الدُّنْيَا وَالْاٰخِرَةِ ۚ وَاُولٰٓئِكَ اَصْحٰبُ النَّارِ ۚ هُمْ فِيْهَا خٰلِدُوْنَ ﴿٢١٧﴾

217. 그들은 성스러운 달 동안에 살생에 관하여 그대에게 물을지니 그 기간에 살생은 죄악이라 하되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고 하나님과 하람사원에 가까이 있는 것을 방해하는 것과 그곳으로부터 그의 주민들을 추방하는 것은 더 큰 죄악이며 교사하고 박해하는 것은 살생 보다 더 나쁜 죄악이라 그들은 너희가 너희의 종교를 배반할 때까지 너희들과 투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배반자가 되고 믿음을 갖지 않고 죽는다면 그들의 일은 현세와 내세에서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불지옥의 거주자가 되어 그곳에서 영원히 기거할 것이라[1]

اِنَّ الَّذِيْنَ اٰمَنُوْا وَالَّذِيْنَ هَاجَرُوْا وَجٰهَدُوْا فِىْ سَبِيْلِ اللّٰهِ ۙ اُولٰٓئِكَ يَرْجُوْنَ رَحْمَتَ اللّٰهِ ۗ وَاللّٰهُ غَفُوْرٌ رَّحِيْمٌ ﴿٢١٨﴾

218. 믿음을 가진자 이주를 한자 하나님의 길에서 투쟁한자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나니 하나님은 관용과 은혜로 충만하심이라

217-1) 선지자께서 "압둘라 이븐 자하쉬"를 분대로 하여 꾸라이쉬족의 대상을 관측하도록 하였다. 꾸라이쉬족의 대상은 "아므루 이븐 알하뜨라미"를 포함 3명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1명을 살해하고 2명은 포로로 생포하였으며 그들의 상품은 노획물로 가져갔다. 이때의 날짜는 "라잡"달 첫째 날이었는데 그들은 이 날이 "주마다 아~키라"달 마지막 날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때 꾸라이쉬족이 말하길 "무함마드는 살생이 금지된 성스러운 달에 살생을 하고 전리품은 합법화 했도다"라고 하자(그들은 성스러운 달 동안에 살생에 관하여 그대에게 물을지니…)라고 계시가 내렸다.

يَسْـَٔلُونَكَ عَنِ الْخَمْرِ وَالْمَيْسِرِ ۖ قُلْ فِيهِمَآ إِثْمٌ كَبِيرٌ
وَمَنَافِعُ لِلنَّاسِ وَإِثْمُهُمَآ أَكْبَرُ مِن نَّفْعِهِمَا ۗ
وَيَسْـَٔلُونَكَ مَاذَا يُنفِقُونَ ۖ قُلِ الْعَفْوَ ۗ كَذَٰلِكَ
يُبَيِّنُ اللَّهُ لَكُمُ الْآيَاتِ لَعَلَّكُمْ تَتَفَكَّرُونَ ﴿٢١٩﴾

219. 술과 도박에 관하여 그대에게 물을때 일러가로되[1] 그 두 곳에는 큰 죄악과 인간에 유용한 것이[2] 있으나 그것의 죄악은 효용보다 크다 이르되 또 그들이 무엇으로 자선을 베풀어야 되느냐고 물을때 일러가로되 그것은 여분이라 일러라 그리하여 하나님은 너희에게 계명을 주신 후 너희로 하여금 숙고하도록 하였노라

فِي الدُّنْيَا وَالْآخِرَةِ ۗ وَيَسْـَٔلُونَكَ عَنِ الْيَتَامَىٰ ۖ قُلْ إِصْلَاحٌ
لَّهُمْ خَيْرٌ ۖ وَإِن تُخَالِطُوهُمْ فَإِخْوَانُكُمْ ۚ وَاللَّهُ يَعْلَمُ الْمُفْسِدَ
مِنَ الْمُصْلِحِ ۚ وَلَوْ شَاءَ اللَّهُ لَأَعْنَتَكُمْ ۚ إِنَّ اللَّهَ عَزِيزٌ حَكِيمٌ ﴿٢٢٠﴾

220. 현세와 내세에서 그들이 고아들에 대해 그대에게 물을지니 일러가로되 그들을 위한 복지는 자선이며 너희가 그들과 함께 할 때는 그들은 너희들의 형제들이라 그러나 하나님은 선행을 행하는 척 하는자들 가운데 해악을 의도하는 자를 알고 계시나니[1]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희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주리라 하나님은 실로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심이라

وَلَا تَنكِحُوا الْمُشْرِكَاتِ حَتَّىٰ يُؤْمِنَّ ۚ وَلَأَمَةٌ مُّؤْمِنَةٌ خَيْرٌ مِّن
مُّشْرِكَةٍ وَلَوْ أَعْجَبَتْكُمْ ۗ وَلَا تُنكِحُوا الْمُشْرِكِينَ حَتَّىٰ يُؤْمِنُوا ۚ
وَلَعَبْدٌ مُّؤْمِنٌ خَيْرٌ مِّن مُّشْرِكٍ وَلَوْ أَعْجَبَكُمْ ۗ أُولَٰئِكَ
يَدْعُونَ إِلَى النَّارِ ۖ وَاللَّهُ يَدْعُو إِلَى الْجَنَّةِ وَالْمَغْفِرَةِ

221. 믿음이 없는 여성과 결혼하지 말라 믿음을 가진 여자 노예가 믿음이 없는 유혹하는 매혹의 여자보다 나으니라 또한 믿음이 없는 남성들이 믿음을 가질때까지 딸들을 결혼시키지 말라 믿음을 가진 노예가 믿음이 없는 유혹하

219-1) 메디나에 거주하던 "안사리"(메카에서 메디나로 도움을 옮기어 이주하여 온 메카 주민들을 도와주었던 메디나 주민들)의 단체가 "우마르 이븐 알카땁"과 선지자에게 찾아와 말하길 술과 도박이 우리의 이성을 잃게하였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이성을 흐리게 하였고 우리의 재산을 탕진케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자 이 계시가 내려졌다.

2) 판매에서 오는 금전적 소득으로 이슬람 율법에서는 음주가 금지되고 있다. "술은 모든 악의 모체"라고 하디스에서 묘사되고 있으며 따라서 인간의 육체, 건강, 정신, 재산 등은 물론 공동사회의 윤리를 해치는 요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말리키, 샤피, 아흐맏 학파는 술 자체는 물론 원로 자체가 발효되어서 알콜의 효능을 발효할 때 술로 간주하며, 아부 하니파 학파는 그것을 마셔서 취할 경우 술로 간주하고 있다.

220-1) 고아를 돌본다는 핑계로 영리를 생각하는 것은 더 큰 죄악이니 이를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다는 뜻.

بِاِذْنِهٖ ۗ وَيُبَيِّنُ اٰيٰتِهٖ لِلنَّاسِ لَعَلَّهُمْ يَتَذَكَّرُوْنَ ﴿٢٢١﴾

는 매혹의 남성보다 나으니라 이들은 지옥으로 유혹하도다[1] 그러나 하나님은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관용을 베푸시며 사람들에게 그분의 계시를 설명하나니 이를 기억하고 찬양하라

وَيَسْـَٔلُوْنَكَ عَنِ الْمَحِيْضِ ۗ قُلْ هُوَ اَذًى ۙ فَاعْتَزِلُوا النِّسَآءَ فِى الْمَحِيْضِ ۙ وَلَا تَقْرَبُوْهُنَّ حَتّٰى يَطْهُرْنَ ۚ فَاِذَا تَطَهَّرْنَ فَاْتُوْهُنَّ مِنْ حَيْثُ اَمَرَكُمُ اللّٰهُ ۗ اِنَّ اللّٰهَ يُحِبُّ التَّوَّابِيْنَ وَيُحِبُّ الْمُتَطَهِّرِيْنَ ﴿٢٢٢﴾

222. 사람들이 그대에게 여성의 생리에 관해 묻거든 이는 깨끗한 것이 아니라 일러가로되 생리중에 있는 여성과 멀리하고 생리가 끝날 때까지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나 생리가 끝났을 때는 가까이 하라 이는 하나님의 명령이니라 하나님은 항상 회개하는 자와 함께 있으며 청결을 기뻐하시니라

نِسَآؤُكُمْ حَرْثٌ لَّكُمْ ۠ فَاْتُوْا حَرْثَكُمْ اَنّٰى شِئْتُمْ ۖ وَقَدِّمُوْا لِاَنْفُسِكُمْ ۗ وَاتَّقُوا اللّٰهَ وَاعْلَمُوْٓا اَنَّكُمْ مُّلٰقُوْهُ ۗ وَبَشِّرِ الْمُؤْمِنِيْنَ ﴿٢٢٣﴾

223. 여성들은 너희들이 가꾸어야 할 경작지와 같나니 너희가 원할때 경작지로 가까이 가라 그리하여 씨를 뿌리되 너희 스스로를 위해 조심스러워야 하고 하나님을 공경할 것이며 언젠가 그분을 영접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믿음을 가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وَلَا تَجْعَلُوا اللّٰهَ عُرْضَةً لِّاَيْمَانِكُمْ اَنْ تَبَرُّوْا وَتَتَّقُوْا وَتُصْلِحُوْا بَيْنَ النَّاسِ ۗ وَاللّٰهُ سَمِيْعٌ عَلِيْمٌ ﴿٢٢٤﴾

224. 선행이거나 정의의 일이거나 사람 사이에 화해시키는 일이 아닌 맹세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변명치 말라 하나님은 들으심과 아심으로 충만하시니라

لَا يُؤَاخِذُكُمُ اللّٰهُ بِاللَّغْوِ فِىْٓ اَيْمَانِكُمْ وَلٰكِنْ يُّؤَاخِذُكُمْ بِمَا كَسَبَتْ قُلُوْبُكُمْ ۗ وَاللّٰهُ غَفُوْرٌ حَلِيْمٌ ﴿٢٢٥﴾

225. 너희의 맹세속에 비의도적인 것에 대해서는 책망 하시지 아니하시나 너의 심중에 있는 의도적 맹세는 책망하시니라 하나님은 관용과 은혜로우심으로 충만하심이라

221-1)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형제들간의 결혼을 우선적으로 한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경배하는 무슬림 형제들간의 결혼이 이상적이나 무슬림형제가 없을 경우는 기독교나 유대교 형제들과의 결혼은 허락하되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한 무신론자들과는 결혼을 금지하고 있다.

لِلَّذِينَ يُؤْلُونَ مِن نِّسَآئِهِمْ تَرَبُّصُ أَرْبَعَةِ أَشْهُرٍ ۖ فَإِن فَآءُو فَإِنَّ اللَّهَ غَفُورٌ رَّحِيمٌ ﴿٢٢٦﴾

226. 아내와 멀리하고자 하는 자는 사개월을 기다려야 되니라[1] 만일 그간에 다시 돌아온다면 실로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를 베푸실 것이라

وَإِنْ عَزَمُوا الطَّلَاقَ فَإِنَّ اللَّهَ سَمِيعٌ عَلِيمٌ ﴿٢٢٧﴾

227. 만일 이혼을 하고자 맹세했다면 실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니라[1]

وَالْمُطَلَّقَاتُ يَتَرَبَّصْنَ بِأَنفُسِهِنَّ ثَلَاثَةَ قُرُوءٍ ۚ وَلَا يَحِلُّ لَهُنَّ أَن يَكْتُمْنَ مَا خَلَقَ اللَّهُ فِي أَرْحَامِهِنَّ إِن كُنَّ يُؤْمِنَّ بِاللَّهِ وَالْيَوْمِ الْآخِرِ ۚ وَبُعُولَتُهُنَّ أَحَقُّ بِرَدِّهِنَّ فِي ذَٰلِكَ إِنْ أَرَادُوا إِصْلَاحًا ۚ وَلَهُنَّ مِثْلُ الَّذِي عَلَيْهِنَّ بِالْمَعْرُوفِ ۚ وَلِلرِّجَالِ عَلَيْهِنَّ دَرَجَةٌ ۗ وَاللَّهُ عَزِيزٌ حَكِيمٌ ﴿٢٢٨﴾

228. 이혼한 여성은 삼개월을 기다리게 되나니[1] 이는 하나님이 태내에 창조한 것을 숨기는 것을 막고자 함이라 만일 그들이 하나님과 내세를 믿어 남편이 돌아올 의사가 있을 때는 남편은 이 기간에 돌아올 권리가 있으며 또한 여성과 남성이 똑같은 권리가 있으나 남성이 여성보다 위에 있나니 하나님은 만사형통 하심이라[2]

الطَّلَاقُ مَرَّتَانِ ۖ فَإِمْسَاكٌ بِمَعْرُوفٍ أَوْ تَسْرِيحٌ بِإِحْسَانٍ ۗ وَلَا يَحِلُّ لَكُمْ أَن تَأْخُذُوا مِمَّا آتَيْتُمُوهُنَّ شَيْئًا إِلَّا أَن يَخَافَا أَلَّا يُقِيمَا حُدُودَ اللَّهِ ۖ فَإِنْ خِفْتُمْ أَلَّا يُقِيمَا حُدُودَ اللَّهِ فَلَا جُنَاحَ عَلَيْهِمَا

229. 화해를 통한 두 번의 이혼은 허락되나 그후의 두 당사자는 동등한 조건으로 재결합을 하던지 아니면 이혼을 해야되며 너희가 그녀들에게 주었던 지참금을 되돌려 가져오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두 당사자가 하나님의 율법

226-1) 부부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 맹세할 경우

227-1) 만일 이혼한 마음으로 그런 맹세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를 모를리가 없다는 뜻으로 남편이 아내에게 가까이 하지 아니할 때 부인이 4개월을 기다리며, 만일 이 기간에 남편이 아내에게 가까이 한다면 그것은 복이되며 남편의 의도적 맹세는 무효가 되고 그에게는 보상이 있으나 그 기간에 부인에게 가까이 하지 않을 경우 그것은 이별과 이혼을 의미한다.(아부 하니파) 한편 4개월 동안 남편이 부부생활을 회피할 경우 법관에게 이 문제를 상정하여 재결합을 하던지 아니면 이혼을 조정하도록 하면되나 만일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는 이혼으로 간주된다(샤 피).

228-1)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저주받을 일은 이혼하는 것이라고 이슬람은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어쩔수 없는 사유로 이혼을 했을 경우 여성은 이혼한 날자로부터 3개월이 넘어야 재혼이 허락된다. 그 이유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임신이 되어있을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2) "남성이 여성위에 있다"함은 신체의 구조상 여성보다 강하고 통솔력과 지도력이 감성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냉철하며 양식은 대부분 남성의 노동력으로 얻어진다는 점에서 남성이 여성위에 있다는 뜻이다.

فِيمَا افْتَدَتْ بِهِ ۗ تِلْكَ حُدُودُ اللَّهِ فَلَا تَعْتَدُوهَا ۚ وَمَن يَتَعَدَّ حُدُودَ اللَّهِ فَأُولَٰئِكَ هُمُ الظَّالِمُونَ ﴿٢٢٩﴾

수행을 두려워 할 경우는 제외라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수행치 못할까 두려워하여 그녀가 그녀의 자유를 위해 되돌려 주었다 하더라도 두 당사자에게는 죄악이 아니며[1]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라 그러나 그 이상의 한계를 넘어서는 아니되며 하나님의 율법을 초월하는 자는 우매한 자들이라

فَإِن طَلَّقَهَا فَلَا تَحِلُّ لَهُ مِن بَعْدُ حَتَّىٰ تَنكِحَ زَوْجًا غَيْرَهُ ۗ فَإِن طَلَّقَهَا فَلَا جُنَاحَ عَلَيْهِمَا أَن يَتَرَاجَعَا إِن ظَنَّا أَن يُقِيمَا حُدُودَ اللَّهِ ۗ وَتِلْكَ حُدُودُ اللَّهِ يُبَيِّنُهَا لِقَوْمٍ يَعْلَمُونَ ﴿٢٣٠﴾

230. 만일 한 남편이 세번째로 이혼을 했다면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여 다시 그 남편이 그녀와 결혼 할 때까지는 그녀와 결혼 할 수 없노라 그 경우에 그들이 재 결합을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나니 그것이 바로 지혜를 가진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율법이라

وَإِذَا طَلَّقْتُمُ النِّسَاءَ فَبَلَغْنَ أَجَلَهُنَّ فَأَمْسِكُوهُنَّ بِمَعْرُوفٍ أَوْ سَرِّحُوهُنَّ بِمَعْرُوفٍ ۚ وَلَا تُمْسِكُوهُنَّ ضِرَارًا لِّتَعْتَدُوا ۚ وَمَن يَفْعَلْ ذَٰلِكَ فَقَدْ ظَلَمَ نَفْسَهُ ۚ وَلَا تَتَّخِذُوا آيَاتِ اللَّهِ هُزُوًا ۚ وَاذْكُرُوا نِعْمَتَ اللَّهِ عَلَيْكُمْ وَمَا أَنزَلَ

231. 아내와 이혼을 하고 법정기간을 채웠을 때[1] 그녀들에게 돌아오거나 또는 그녀들을 자유롭게하여 줄것이며 그녀들을 괴롭히기 위해 또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 그녀들에게 돌아오지 말라 그것을 위반하는 자는 곧 자기 자기 자신을 우롱한 것이라 그리고

229-1) 여성의 경제적 또는 어떤 이익을 위해 이혼을 거절하는 남편이 횡포와 폭행 및 비행으로 여성을 괴롭힘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권리와 그녀의 자유가 보장되지 못한 경우 여성은 그녀가 받은 지참금이나 또는 일정한 금액의 물질을 남편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허락되어 있다. 그러나 여성이 그것을 주어야 하는 필요성과 공평성을 판할 법원에 제출하여 그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한다. 이 종류의 이혼을 "쿨라으"이혼이라 한다.
이슬람이전 암흑시대에는 한 남성이 이혼 후에도 부인이 기다리는 법정기간 만료 전에 자기 마음대로 천번 이상이라도 부인과 이혼했다가 또 재혼할 수 있었다. 어느날 이 남자는 자기 부인에게 와서 말하길, "나는 당신을 가정에 들어오게 할 수 없소. 그러나 당신을 버리지는 않겠소"라고 하자 부인이, "어떻게 이럴수가 있습니까?"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 남자가 말하길, "당신과 이혼하기 전에 다시 당신께로 돌아가겠소"라고 대답하였다. 이때 부인은 이 사실을 선지자께서 상정하였다. 이에 하나님께서(이혼은 두 번이거늘…)이라는 계시를 내리게 되었다.

231-1) 남편이 죽어 과부가 될 경우 또는 이혼을 한 여성은 전 남편과의 사이에 임신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정기간을 기다린 다음에야 재혼할 수 있는 기간

عَلَيْكُمْ مِّنَ الْكِتٰبِ وَالْحِكْمَةِ يَعِظُكُمْ بِهٖ ۚ وَاتَّقُوا اللّٰهَ وَاعْلَمُوْٓا اَنَّ اللّٰهَ بِكُلِّ شَيْءٍ عَلِيْمٌ ﴿٢٣١﴾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지 말며 너희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성서와 지혜를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하나님은 너희에게 이를 권고하시니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은 모든 일을 알고 계시니라

وَاِذَا طَلَّقْتُمُ النِّسَآءَ فَبَلَغْنَ اَجَلَهُنَّ فَلَا تَعْضُلُوْهُنَّ اَنْ يَّنْكِحْنَ اَزْوَاجَهُنَّ اِذَا تَرَاضَوْا بَيْنَهُمْ بِالْمَعْرُوْفِ ۗ ذٰلِكَ يُوْعَظُ بِهٖ مَنْ كَانَ مِنْكُمْ يُؤْمِنُ بِاللّٰهِ وَالْيَوْمِ الْاٰخِرِ ۗ ذٰلِكُمْ اَزْكٰى لَكُمْ وَاَطْهَرُ ۗ وَاللّٰهُ يَعْلَمُ وَاَنْتُمْ لَا تَعْلَمُوْنَ ﴿٢٣٢﴾

232. 아내와 이혼하고 법정기간을 채웠을 때 당사자의 상호 동의에 의해 합당한 조건하에 그녀들이 전 남편들과 재혼하고자 한다면 이를 방해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내세를 믿는 신앙인들을 위한 교훈이며 그것은 또한 너희들을 위해 보다 고결하고 청결케 하기 위한 과정이라 하나님은 너희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계시니라[1)]

وَالْوَالِدٰتُ يُرْضِعْنَ اَوْلَادَهُنَّ حَوْلَيْنِ كَامِلَيْنِ ۖ لِمَنْ اَرَادَ اَنْ يُّتِمَّ الرَّضَاعَةَ ۗ وَعَلَى الْمَوْلُوْدِ لَهٗ رِزْقُهُنَّ وَكِسْوَتُهُنَّ بِالْمَعْرُوْفِ ۗ لَا تُكَلَّفُ نَفْسٌ اِلَّا وُسْعَهَا ۚ لَا تُضَآرَّ وَالِدَةٌ ۢ بِوَلَدِهَا وَلَا مَوْلُوْدٌ لَّهٗ بِوَلَدِهٖ ۚ وَعَلَى الْوَارِثِ مِثْلُ ذٰلِكَ ۗ فَاِنْ اَرَادَا فِصَالًا عَنْ تَرَاضٍ مِّنْهُمَا وَتَشَاوُرٍ فَلَا جُنَاحَ عَلَيْهِمَا ۗ وَاِنْ اَرَدْتُّمْ اَنْ تَسْتَرْضِعُوْٓا اَوْلَادَكُمْ فَلَا جُنَاحَ عَلَيْكُمْ اِذَا سَلَّمْتُمْ مَّآ اٰتَيْتُمْ

233. 어머니들은 아버지가 원할 때 자녀들을 이년 동안 젖을 먹어야 되나니[1)] 이때 아버지는 그녀들의 양식과 의복의 비용을 부담해야 되노라 그의 능력이 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어머니는 그녀의 자녀로 인해서 고생을 해서는 아니되며 아버지도 그의 자녀로 인해 고생을 해서는 아니되나니 상속인에게도 그와 마찬가지라 젖을 떼고 싶을 경우는 상호

232-1) 선지자 무함마드 시절에 "무으깔 이븐 야샤르"는 그의 여동생을 한 무슬림 청년에게 결혼시켰다. 얼마의 기간이 지난후 그 청년은 부인과 별거하였다. 기다리는 법정기간이 지났다. 그런데 두 사람은 다시 서로 사랑하게 되어 그 남자는 재결합을 원했다. 이때 "무으깔"이 그 남자에게 말하길, "나쁜 사람아! 내가 자네를 존경하고 사랑하여 자네에게 여동생을 결혼시켰는데 자네는 별거를 했단 말인가! 내가 맹세하건대 절대로 자네에게 여동생을 돌려보내지 않겠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남자는 그녀를 필요로 하고 그녀도 역시 남편을 필요로 함을 아시고 계셨으므로,(아내와 이혼을 하고 합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당사자의 상호 동의에 의해 합당한 조건하에 그녀들이 전 남편과 재혼하고자 한다면 이를 방해해서는 아니되나니…)라고 계시를 내리자 이 말씀을 들은 "무으깔"은 "주여! 들었나이다. 그리고 순종하나이다"라고 말하고 그를 불러 재혼을 시켰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134).

233-1) 2년동안 자녀를 양육 할 어머니의 의무

بِالْمَعْرُوفِ ۗ وَاتَّقُوا اللَّهَ وَاعْلَمُوا أَنَّ اللَّهَ بِمَا
تَعْمَلُونَ بَصِيرٌ ﴿٢٣٣﴾

동의를 얻을 것이니 이는 당사자에게 죄악이 아니라 너희가 유모에게 너희의 자녀를 양육할 경우도 정당한 사례만 지불하였다면 너희에게 아무런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너희는 알라

وَالَّذِينَ يُتَوَفَّوْنَ مِنكُمْ وَيَذَرُونَ أَزْوَاجًا يَتَرَبَّصْنَ بِأَنفُسِهِنَّ
أَرْبَعَةَ أَشْهُرٍ وَعَشْرًا ۖ فَإِذَا بَلَغْنَ أَجَلَهُنَّ فَلَا جُنَاحَ عَلَيْكُمْ
فِيمَا فَعَلْنَ فِي أَنفُسِهِنَّ بِالْمَعْرُوفِ ۗ وَاللَّهُ بِمَا تَعْمَلُونَ خَبِيرٌ ﴿٢٣٤﴾

234. 남편이 죽어 과부를 남길때 그 과부는 사개월 십일을 기다려야 하노라[1] 만약 법정기간에 이르렀을때 과부가 자신들을 위해서 행하는 것에는 죄가 없나니 하나님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وَلَا جُنَاحَ عَلَيْكُمْ فِيمَا عَرَّضْتُم بِهِ مِنْ خِطْبَةِ النِّسَاءِ أَوْ أَكْنَنتُمْ
فِي أَنفُسِكُمْ ۚ عَلِمَ اللَّهُ أَنَّكُمْ سَتَذْكُرُونَهُنَّ وَلَٰكِن لَّا تُوَاعِدُوهُنَّ
سِرًّا إِلَّا أَن تَقُولُوا قَوْلًا مَّعْرُوفًا ۚ وَلَا تَعْزِمُوا عُقْدَةَ النِّكَاحِ
حَتَّىٰ يَبْلُغَ الْكِتَابُ أَجَلَهُ ۚ وَاعْلَمُوا أَنَّ اللَّهَ يَعْلَمُ مَا فِي
أَنفُسِكُمْ فَاحْذَرُوهُ ۚ وَاعْلَمُوا أَنَّ اللَّهَ غَفُورٌ حَّلِيمٌ ﴿٢٣٥﴾

235. 과부 여성과 약혼을 하거나 마음에 뜻을 두는 것은 죄가 아니거늘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마음에 새기고 있음을 알고 계심이라 그러나 기다리는 법정기간 동안에 비밀이 약혼을 해서는 안되며 그 법정기간이 끝날 때까지 결혼을 해서도 아니 되니라 하나님은 너희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나니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은 관용과 은혜로 충만하심이라

لَّا جُنَاحَ عَلَيْكُمْ إِن طَلَّقْتُمُ النِّسَاءَ مَا لَمْ تَمَسُّوهُنَّ أَوْ
تَفْرِضُوا لَهُنَّ فَرِيضَةً ۖ وَمَتِّعُوهُنَّ عَلَى الْمُوسِعِ قَدَرُهُ وَ
عَلَى الْمُقْتِرِ قَدَرُهُ مَتَاعًا بِالْمَعْرُوفِ ۖ حَقًّا عَلَى الْمُحْسِنِينَ ﴿٢٣٦﴾

236. 여성과 동침하기전 또는 여성에게 지참금을 결정하기 전에는 이혼을 하여도 죄악이 아니나 그녀들에게 합당한 선물을 하라 부유한 자는 부유한대로 가난한 자

234-1) 이혼을 한 여성은 3개월의 법정기간을 기다려야 하나(2장 228절), 남편이 사망하여 홀로된 과부는 4단 10일의 법정기간을 기다려야 한다. 과부가 이혼한 여성보다 10일을 더 많이 기다리는 이유는
첫째, 남편과의 사이에 임신의 여부를 알아야 하고
둘째, 남편이 사망함으로써 오는 부인의 슬픔과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이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며,
셋째, 남편이 남긴 유언이나 재산 등의 관리를 위해서는 이혼을 한 여성보다는 시일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는 가난한 대로 자기의 능력에 따르되 합당한 선물은 의로운 자들에 대한 의무라[1]

237. 만일 너희가 그녀들과 동침하지 아니하고 지참금을 결정한 후 이혼을 했다면 결정된 지참금의 절반을 지불해야 되거늘[1] 그러나 여성이나 보호자가[2] 용서한다면 제외라 또한 그 용서는 정의에 가장 가까운 것이거늘 양자 사이에 서로가 관대 할 것을 잊지말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이라

وَإِنْ طَلَّقْتُمُوهُنَّ مِنْ قَبْلِ أَنْ تَمَسُّوهُنَّ وَقَدْ فَرَضْتُمْ لَهُنَّ فَرِيضَةً فَنِصْفُ مَا فَرَضْتُمْ إِلَّا أَنْ يَعْفُونَ أَوْ يَعْفُوَ الَّذِي بِيَدِهِ عُقْدَةُ النِّكَاحِ ۚ وَأَنْ تَعْفُوا أَقْرَبُ لِلتَّقْوَىٰ ۚ وَلَا تَنْسَوُا الْفَضْلَ بَيْنَكُمْ ۚ إِنَّ اللَّهَ بِمَا تَعْمَلُونَ بَصِيرٌ ﴿٢٣٧﴾

238. 예배를 잘 지키고 중간 예배를[1] 지킬것이며 경건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라[2]

حَافِظُوا عَلَى الصَّلَوَاتِ وَالصَّلَاةِ الْوُسْطَىٰ وَقُومُوا لِلَّهِ قَانِتِينَ ﴿٢٣٨﴾

239. 만일 적의 두려움이 있을 때는 선 자세에서 또는 승마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되 안전할 때는 하나님이 가르친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는 너희가 알지 못했던 것이니라

فَإِنْ خِفْتُمْ فَرِجَالًا أَوْ رُكْبَانًا ۖ فَإِذَا أَمِنْتُمْ فَاذْكُرُوا اللَّهَ كَمَا عَلَّمَكُمْ مَا لَمْ تَكُونُوا تَعْلَمُونَ ﴿٢٣٩﴾

240. 너희들 중에 아내를 남기고 임종하는 자는 아내를 위해 유언을 하고[1] 일년간 아내는 나가지 아니하고 부양을 받노라[2] 만일 그

وَالَّذِينَ يُتَوَفَّوْنَ مِنْكُمْ وَيَذَرُونَ أَزْوَاجًا وَصِيَّةً لِأَزْوَاجِهِمْ مَتَاعًا إِلَى الْحَوْلِ غَيْرَ إِخْرَاجٍ ۚ فَإِنْ خَرَجْنَ

236-1) "안사-리" 출신의 한 남자가 "하니파" 자손가운데 한 여성과 아직 지참금도 지불하지 않고 결혼한 후 그녀와 동침하기전 이혼 하였다. 이에(여성과 동침하기전 또는 여성에게 지참금을 결정하기 전에는 이혼을 하여도 죄악이 아니거늘…)라고 말씀이 계시된 것으로 전하여지고 있다(타파씨르 알꾸르뚜비 202/3).

237-1) 동침 하기전의 이혼이므로 약속된 지참금(마흐르)의 절반을 지불하는 것이 남성의 의무다.
2) 동침하기 전의 여성과 그 여성의 보호자

238-1) 아스르 예배
2) 사람이 가장 게을리 하기 쉬운 예배시간이 "아스르" 시간이며 또한 이 "아스르" 예배시간에는 천사들이 예배를 지켜보는 시간이므로 예배에 게을리 하지 말라는 교훈이다.

240-1) 임종하기 전에 유언을 하고
2) 초기 이슬람에서는 남편이 사망한 부인은 가정에서 1년을 기다렸으나 후에 4개월 10일로 되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140).

فَلَا جُنَاحَ عَلَيْكُمْ فِي مَا فَعَلْنَ فِي أَنفُسِهِنَّ مِن مَّعْرُوفٍ ۗ وَاللَّهُ عَزِيزٌ حَكِيمٌ ﴿٢٤٠﴾

녀들이 스스로 떠나거나 또는 스스로를 위해 도덕에 어긋나지 않는 일을 한다 해도 죄악이 아니거늘 하나님은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심이라

وَلِلْمُطَلَّقَاتِ مَتَاعٌ بِالْمَعْرُوفِ ۖ حَقًّا عَلَى الْمُتَّقِينَ ﴿٢٤١﴾

241. 이혼한 여성들에게도 능력에 따라 부양금을 주어야 하거늘 이것은 의로운 신앙인들의 의무라

كَذَٰلِكَ يُبَيِّنُ اللَّهُ لَكُمْ آيَاتِهِ لَعَلَّكُمْ تَعْقِلُونَ ﴿٢٤٢﴾

242. 이와같이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말씀을 밝히셨나니 너희는 이해할 것이라

أَلَمْ تَرَ إِلَى الَّذِينَ خَرَجُوا مِن دِيَارِهِمْ وَهُمْ أُلُوفٌ حَذَرَ الْمَوْتِ فَقَالَ لَهُمُ اللَّهُ مُوتُوا ثُمَّ أَحْيَاهُمْ ۗ إِنَّ اللَّهَ لَذُو فَضْلٍ عَلَى النَّاسِ وَلَٰكِنَّ أَكْثَرَ النَّاسِ لَا يَشْكُرُونَ ﴿٢٤٣﴾

243. 수천이나 되면서 죽음이 두려워 그들의 집을 떠난 이들을 보지 아니했느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순교하라 그리하면 다시 소생케 하리라[1] 하셨노라 실로 하나님은 인류에 은혜를 주시나 많은 백성이 감사할 줄 모르더라

وَقَاتِلُوا فِي سَبِيلِ اللَّهِ وَاعْلَمُوا أَنَّ اللَّهَ سَمِيعٌ عَلِيمٌ ﴿٢٤٤﴾

244. 하나님의 길에서 성전하라[1]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라

مَّن ذَا الَّذِي يُقْرِضُ اللَّهَ قَرْضًا حَسَنًا فَيُضَاعِفَهُ لَهُ أَضْعَافًا كَثِيرَةً ۗ وَاللَّهُ يَقْبِضُ وَيَبْصُۜطُ ۖ وَإِلَيْهِ تُرْجَعُونَ ﴿٢٤٥﴾

245. 하나님을 위해 대부[1]하여 준 그에게 수십 배의 보상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궁핍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니 너희는 그분에게로 귀의 하니라

أَلَمْ تَرَ إِلَى الْمَلَإِ مِن بَنِي إِسْرَائِيلَ مِن بَعْدِ مُوسَىٰ إِذْ

246. 모세 이후 이스라엘 자손들의 얘기가 그대에게 이르지 아니

243-1)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성전하라 호소했을 때 그들은 죽음이 두려워 도주하였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8일 동안 그들의 생명을 앗아갔다가 다시 그들의 예언자 "자즈 껠"을 보내어 그들을 소생케 한후 100년을 평화롭게 살았다고 전하여지고 있으며, "이브누 카씨르"는 혹사병이 두려워 도주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즉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하나님의 계시로 해석된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142).

244-1) 하나님의 적인 불신자들에 대항하여 투쟁하라.

245-1) 하나님 사업을 위해 바치는 재산

قَالُوْا لِنَبِيٍّ لَّهُمُ ابْعَثْ لَنَا مَلِكًا نُّقَاتِلْ فِيْ سَبِيْلِ اللّٰهِ ۭ قَالَ هَلْ عَسَيْتُمْ اِنْ كُتِبَ عَلَيْكُمُ الْقِتَالُ اَلَّا تُقَاتِلُوْا ۭ قَالُوْا وَمَا لَنَآ اَلَّا نُقَاتِلَ فِيْ سَبِيْلِ اللّٰهِ وَقَدْ اُخْرِجْنَا مِنْ دِيَارِنَا وَاَبْنَاۗىِٕنَا ۭ فَلَمَّا كُتِبَ عَلَيْهِمُ الْقِتَالُ تَوَلَّوْا اِلَّا قَلِيْلًا مِّنْهُمْ ۭ وَاللّٰهُ عَلِيْمٌۢ بِالظّٰلِمِيْنَ ۝

했느뇨 그때 그들은 예언자에게[1] 우리에게 한분의 통치자를 보내 주소서 그와 함께 하나님의 길에서 적에 대항하여 성전하리라 하더라 예언자 가로되 성전하라는 명령을 받을 때 너희는 성전하지 아니하려 했더라 그들이 말하길 우리의 가정과 가족으로부터 추방된 우리가 왜 성전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성전을 명령 받았을 때는 도주하고 그들 가운데 소수만 남았더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알고 계시노라

وَقَالَ لَهُمْ نَبِيُّهُمْ اِنَّ اللّٰهَ قَدْ بَعَثَ لَكُمْ طَالُوْتَ مَلِكًا ۭ قَالُوْٓا اَنّٰى يَكُوْنُ لَهُ الْمُلْكُ عَلَيْنَا وَنَحْنُ اَحَقُّ بِالْمُلْكِ مِنْهُ وَلَمْ يُؤْتَ سَعَةً مِّنَ الْمَالِ ۭ قَالَ اِنَّ اللّٰهَ اصْطَفٰىهُ عَلَيْكُمْ وَزَادَهٗ بَسْطَةً فِي الْعِلْمِ وَالْجِسْمِ ۭ وَاللّٰهُ يُؤْتِيْ مُلْكَهٗ مَنْ يَّشَاۗءُ ۭ وَاللّٰهُ وَاسِعٌ عَلِيْمٌ ۝

247. 그들의 예언자가 그들에게 말하더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사울을 왕으로 보냈노라 그들이 말하길 우리가 그보다 탁월한데 그가 우리의 왕이 되어 어떻게 우리를 통치한단 말이요 그에게는 재산도 넉넉하지 못하오 그분이[1] 이르되 너희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으니 그에게 풍만한 지혜와 신체를 주셨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권능을 주시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وَقَالَ لَهُمْ نَبِيُّهُمْ اِنَّ اٰيَةَ مُلْكِهٖٓ اَنْ يَّاْتِيَكُمُ التَّابُوْتُ فِيْهِ سَكِيْنَةٌ مِّنْ رَّبِّكُمْ وَبَقِيَّةٌ مِّمَّا تَرَكَ اٰلُ مُوْسٰى وَاٰلُ هٰرُوْنَ

248. 또 그들의 예언자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의 권능의 한 예증으로 너희에게 계약의 상자가 오니[1] 그 안에는 너희 주님으로부터의

246-1) 모세와 아론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요르단을 건너 팔레스타인에 정착하였다. 그는 그곳에서 25년을 통치하였고, 그 뒤 320년 동안은 메디안족과 아말리크족과 팔레스타인 부족에 의해 여러 차례의 고난과 수난을 당하였다. 또한 우상을 섬기게 되면서부터 공동사회의 혼란과 분열과 부패는 계속되어 그의 백성들은 아론의 현통인 사무엘 예언자로 하여금 한 통치자를 임명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247-1) 그들의 예어자

248-1) "타-부뜨" : 하나님의 증언과 십계명이 새겨진 석판과 함께 모세와 아론의 성물이 들어있는 순금무늬가 새겨진 5ft×3ft×3ft 크기의 아카시아 나무상자(출애굽기 xxv. 10-22),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남겨진 성물의 제산으로써 초기 사뮤엘 통치기간중에 적에게 잃었다가 그것을 다시 찾아 어느 시골에 20년을 간직한 후 왕권이 확립되면서 다시 그것을 수도로 옮김으로써 단결과 전능의 한 예증이 되었다.

تَحْمِلُهُ الْمَلٰٓئِكَةُ ۚ إِنَّ فِي ذٰلِكَ لَآيَةً لَّكُمْ إِن كُنتُم مُّؤْمِنِينَ ﴿٢٤٨﴾

평안과 모세의 가문과 아론의 가문이 남긴 천사들이 운반한 성물이 예증으로 있더라 너희가 진실한 믿음을 갖게 될 때 너희들을 위한 상징이 그 안에 있을 것이라

فَلَمَّا فَصَلَ طَالُوتُ بِالْجُنُودِ قَالَ إِنَّ اللَّهَ مُبْتَلِيكُم بِنَهَرٍ فَمَن شَرِبَ مِنْهُ فَلَيْسَ مِنِّي وَمَن لَّمْ يَطْعَمْهُ فَإِنَّهُ مِنِّي إِلَّا مَنِ اغْتَرَفَ غُرْفَةً بِيَدِهِ ۚ فَشَرِبُوا مِنْهُ إِلَّا قَلِيلًا مِّنْهُمْ ۚ فَلَمَّا جَاوَزَهُ هُوَ وَالَّذِينَ آمَنُوا مَعَهُ قَالُوا لَا طَاقَةَ لَنَا الْيَوْمَ بِجَالُوتَ وَجُنُودِهِ ۚ قَالَ الَّذِينَ يَظُنُّونَ أَنَّهُم مُّلَاقُو اللَّهِ كَم مِّن فِئَةٍ قَلِيلَةٍ غَلَبَتْ فِئَةً كَثِيرَةً بِإِذْنِ اللَّهِ ۗ وَاللَّهُ مَعَ الصَّابِرِينَ ﴿٢٤٩﴾

249. 사울이 군대를 지휘하여 나가며 이르길 하나님이 강에서[1] 너희를 시험하사 그 물을 마시는 자는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며 그것을 맛보지 아니한 자만이 나와 함께 동행하리라 그러나 한줌의 물을 뜨는 것은 제외라 그런데 소수를 제외한 무리가 그것을 마셔 버리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 강을 건널때 믿음을 가졌던 자들이 함께하니 그들이 말하길 오늘 우리는 골리앗과 그의 군대에 대항할 힘이 없다 라고 하더라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리라 확신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때 소수가 대부대를 정복한 적이 있지 않더뇨 하나님은 인내한 자와 항상 함께 하시니라

وَلَمَّا بَرَزُوا لِجَالُوتَ وَجُنُودِهِ قَالُوا رَبَّنَا أَفْرِغْ عَلَيْنَا صَبْرًا وَثَبِّتْ أَقْدَامَنَا وَانصُرْنَا عَلَى الْقَوْمِ الْكَافِرِينَ ﴿٢٥٠﴾

250. 그들이 골리앗과 그의 군대에 대항하여 진격 했을 때 그들은 기도하였나니[1] 주여 저희들에게 인내를 주시고 거점을 확보하여 주시며 불신자들로부터 승리케하여 주소서 라고 기도하니

فَهَزَمُوهُم بِإِذْنِ اللَّهِ وَقَتَلَ دَاوُودُ جَالُوتَ وَآتَاهُ اللَّهُ الْمُلْكَ

251. 하나님의 의지로 그들을 패배시키고 다윗은 골리앗을 살해했

249-1) 사울이 80,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요르단과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리파 강을 건느면서 그들의 신앙과 지도자를 따르는 그들의 자세에 대한 시험을 받게 되었다. 사막의 열사로 갈증에 지친 군인들에게 물을 마시지 말라 하였으나 76,000명이 그 명령을 어기고 물을 마심으로써 불신자가 되어 적이 되었으나 명령에 따라 물을 마시지 아니한 군인은 비록 4,000명에 불과했으나 승리는 믿음을 갖고 명령에 따른 소수에게로 돌아갔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144).

250-1) 다음 3가지를 하나님께 기원 하였다. 첫째는 인내하도록 하여주시고, 둘째는 전쟁에서 거점을 확보하는 것과, 셋째는 불신자들을 제압하여 승리하도록 하여 달라는 기도였다.

وَالْحِكْمَةَ وَعَلَّمَهُ مِمَّا يَشَآءُ ۗ وَلَوْلَا دَفْعُ اللّٰهِ النَّاسَ
بَعْضَهُمْ بِبَعْضٍ لَّفَسَدَتِ الْاَرْضُ وَلٰكِنَّ اللّٰهَ
ذُوْ فَضْلٍ عَلَى الْعٰلَمِيْنَ ﴿٢٥١﴾

으며[1] 하나님은 그에게 권능과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더라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토록하여 인류를 보호하지 아니했다면 이 지구는 멸망했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한 은혜를 베푸는 분이시라

تِلْكَ اٰيٰتُ اللّٰهِ نَتْلُوْهَا عَلَيْكَ بِالْحَقِّ ۗ وَاِنَّكَ لَمِنَ
الْمُرْسَلِيْنَ ﴿٢٥٢﴾

252. 이것이 그대에게 계시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는 선지자들 중의 한 사람이라

تِلْكَ الرُّسُلُ فَضَّلْنَا بَعْضَهُمْ عَلٰى بَعْضٍ ۘ مِنْهُمْ
مَّنْ كَلَّمَ اللّٰهُ وَرَفَعَ بَعْضَهُمْ دَرَجٰتٍ ۗ وَاٰتَيْنَا عِيْسَى ابْنَ
مَرْيَمَ الْبَيِّنٰتِ وَاَيَّدْنٰهُ بِرُوْحِ الْقُدُسِ ۗ وَلَوْ شَآءَ اللّٰهُ مَا اقْتَتَلَ
الَّذِيْنَ مِنْۢ بَعْدِهِمْ مِّنْۢ بَعْدِ مَا جَآءَتْهُمُ الْبَيِّنٰتُ وَلٰكِنِ اخْتَلَفُوْا
فَمِنْهُمْ مَّنْ اٰمَنَ وَمِنْهُمْ مَّنْ كَفَرَ ۗ وَلَوْ شَآءَ اللّٰهُ مَا اقْتَتَلُوْا ۗ
وَلٰكِنَّ اللّٰهَ يَفْعَلُ مَا يُرِيْدُ ﴿٢٥٣﴾

253. 이들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달리하였나니 어떤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1] 계셨고 다른 선지자들은 지휘를 올렸나니[2] 하나님은 마리아의 아들 예수에게 예증[3]을 주어 그를 성령[4]으로 강하게 하였노라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면 그들에게 말씀이 있은 후 다음 세대들은 서로 싸우지 아니했으리라 그런데 그들은 달리했으니 그들 가운데는 믿는자와 믿지 아니한 자가 있었노라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면 그들은 싸우지 아니했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주관하시니라[5]

251-1) 다윗은 어떤 무기나 투구로 무장을 해본적도 없었고 양을 치는데도 경험이 미숙한 한 청년이었다. 그는 이스라엘 진영에도 알려지지 아니한 무명의 청년이었으므로 거인 골리앗은 다윗을 비웃고 조롱할 뿐이었다. 게다가 다윗의 큰 형까지도 양을 잘 돌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다윗을 꾸짖고 나무랄뿐… 그러나 다윗은 외형적으로 초라한 목동으로 밖엔 보이지 아니했으나 그의 깊은 신앙은 유대인의 강적이었던 팔레스타인 상대자로써 대적하는 지혜를 준 것이다. 사울 왕이 그의 투구와 무기를 다윗에게 주었을 때 그는 그 투구와 무기를 다루어 본 경험이 없었으므로 그것을 거절하고 강가에서 5개의 조약돌을 주어 목동의 기술인 돌팔매질로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렸다. 그리고는 골리앗의 칼을 빼앗아 그것으로 골리앗을 살해하였다.

253-1) 모세게에 어떤 중개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구름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다.
2) 선지자 무함마드는 최후의 선지자로써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받게 되었으며
3) 여러가지 기적, 즉 죽은자를 살리고 나병환자를 치료하고 장님으로 하여금 앞을 보게 하였으며,
4) 성령이라 함은 가브리엘 천사를 가르킴

254. 믿는자들이여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푼 양식으로 자선을 베풀라 심판의 날이 오면 그때는 거래도 우정도 중재도 효용이 없나니 이를 배반한자 진실로 우매한 자들이라

يَٰٓأَيُّهَا ٱلَّذِينَ ءَامَنُوٓا۟ أَنفِقُوا۟ مِمَّا رَزَقْنَٰكُم مِّن قَبْلِ أَن يَأْتِىَ يَوْمٌ لَّا بَيْعٌ فِيهِ وَلَا خُلَّةٌ وَلَا شَفَٰعَةٌ ۗ وَٱلْكَٰفِرُونَ هُمُ ٱلظَّٰلِمُونَ ﴿٢٥٤﴾

255.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나니 그분은 살아계시사 영원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 하시도다 졸음도 잠도 그분을 엄습하지 못하도다[1] 천지의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니 그분의 허락없이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중재할 수 있으랴 그분은 그들의 안중과 뒤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그들은 그분에 대하여 그분이 허락한 것 외에는 그분의 지식을 아무것도 모르니라[2] 권자가 천지위에 편쳐져 있어 그것을 보호하는데 피곤하지 아니하시니 그분은 가장 위에 계시며 장엄하시노라

ٱللَّهُ لَآ إِلَٰهَ إِلَّا هُوَ ٱلْحَىُّ ٱلْقَيُّومُ ۚ لَا تَأْخُذُهُۥ سِنَةٌ وَلَا نَوْمٌ ۚ لَّهُۥ مَا فِى ٱلسَّمَٰوَٰتِ وَمَا فِى ٱلْأَرْضِ ۗ مَن ذَا ٱلَّذِى يَشْفَعُ عِندَهُۥٓ إِلَّا بِإِذْنِهِۦ ۚ يَعْلَمُ مَا بَيْنَ أَيْدِيهِمْ وَمَا خَلْفَهُمْ ۖ وَلَا يُحِيطُونَ بِشَىْءٍ مِّنْ عِلْمِهِۦٓ إِلَّا بِمَا شَآءَ ۚ وَسِعَ كُرْسِيُّهُ ٱلسَّمَٰوَٰتِ وَٱلْأَرْضَ ۖ وَلَا يَـُٔودُهُۥ حِفْظُهُمَا ۚ وَهُوَ ٱلْعَلِىُّ ٱلْعَظِيمُ ﴿٢٥٥﴾

256. 종교에는 강요가 없나니[1] 진리는 암흑속으로부터 구별 되니라 사탄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لَآ إِكْرَاهَ فِى ٱلدِّينِ ۖ قَد تَّبَيَّنَ ٱلرُّشْدُ مِنَ ٱلْغَىِّ ۚ فَمَن يَكْفُرْ بِٱلطَّٰغُوتِ وَيُؤْمِنۢ بِٱللَّهِ فَقَدِ ٱسْتَمْسَكَ بِٱلْعُرْوَةِ

---

5) 하나님이 구름속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니 모세는 황야에서 40년동안 그의 백성을 인도하였고, 다윗에게는 돌팔매로써 대적을 무찌르는 은혜를 주었다. 또한 마리아의 아들 예수에게는 죽은자를 살게하고, 장님이 눈을 뜨게하고 문둥병 환자를 낫게 하는 등 많은 기적을 낳는 지혜를 주었으며, 선지자 무함마드에게는 최후의 예언자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된 최후의 복음서 꾸란을 주어 인류를 구원하는 등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들에게 서로 다른 형태의 은혜를 베풀었다.

255-1) 하나님은 잠을자지 아니하며 눈한번 깜박할 필요조차도 없으신 분이라고 하디스는 전하고 있다.

2) 예언자들을 통하여 가르쳐준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며,

256-1) 한 안사리 가족 가운데 두 아들을 가진 남자가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은 기독교인이 되었다. 이때는 무함마드가 선지자로 오기 이전이다. 이들 두 사람은 장사를 하기 위해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메디나로 왔는데 이때 두 아들의 아버지께서 두 아들에게 말하길 "너희가 이슬람에 귀의 할 때까지 너희를 그대로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자(종교에는 강요가 없나니 진리는 암흑으로부터 구별되노라…)라고 계시가 있었다.
신앙은 강요되어서는 아니되며 또한 강요될 필요도 없다는 것이 이슬람의 원리다. 그 이유는 첫째 종교란 자기 신앙과 의지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강제에 의한 유인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둘째 진리와 죄악은 하나님에 의해 분명히 선별되며, 셋째는 하나님의 보호가 영속하므로 하나님은 항상 인간을 암흑에서 광명으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الْوُثْقٰى ۗ لَا انْفِصَامَ لَهَا ۗ وَاللّٰهُ سَمِيْعٌ عَلِيْمٌ ﴿٢٥٦﴾

자 끊기지 않는 단단한 동아줄을 잡았노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اَللّٰهُ وَلِيُّ الَّذِيْنَ اٰمَنُوْا يُخْرِجُهُمْ مِّنَ الظُّلُمٰتِ اِلَى النُّوْرِ ۗ وَالَّذِيْنَ كَفَرُوْٓا اَوْلِيٰٓـُٔهُمُ الطَّاغُوْتُ يُخْرِجُوْنَهُمْ مِّنَ النُّوْرِ اِلَى الظُّلُمٰتِ ۗ اُولٰٓئِكَ اَصْحٰبُ النَّارِ ۚ هُمْ فِيْهَا خٰلِدُوْنَ ﴿٢٥٧﴾

257. 하나님은 신앙인의 보호자이사 그들을 암흑에서 광명으로 인도하시노라 그러나 신앙이 없는 자들의 보호자는 사탄들이니 이들은 광명에서 암흑으로 유혹하매 그들은 불지옥의 주인이 되어 그곳에서 영주하노라

اَلَمْ تَرَ اِلَى الَّذِيْ حَآجَّ اِبْرٰهٖمَ فِيْ رَبِّهٖٓ اَنْ اٰتٰىهُ اللّٰهُ الْمُلْكَ ۘ اِذْ قَالَ اِبْرٰهٖمُ رَبِّيَ الَّذِيْ يُحْيٖ وَيُمِيْتُ ۙ قَالَ اَنَا اُحْيٖ وَاُمِيْتُ ۗ قَالَ اِبْرٰهٖمُ فَاِنَّ اللّٰهَ يَاْتِيْ بِالشَّمْسِ مِنَ الْمَشْرِقِ فَاْتِ بِهَا مِنَ الْمَغْرِبِ فَبُهِتَ الَّذِيْ كَفَرَ ۗ وَاللّٰهُ لَا يَهْدِي الْقَوْمَ الظّٰلِمِيْنَ ﴿٢٥٨﴾

258.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능을 주었다 해서 그의 주님에 관하여 아브라함과 논쟁을 하려 하느뇨, 이때 아브라함 가로되 나의 주님은 생명을 부여하고 또 생명을 앗아가는 분이시라 하니 이에 그가 대답하길 내가 생명을 부여하고 생명을 빼앗아 가노라 이에 아브라함 가로되 그분은 동에서 태양을 뜨게하시니 당신은 서쪽에서 태양이 뜨도록 하라 하니 믿음을 불신한 그들은 당황하였노라 이처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인도하지 아니 하시니라[1]

اَوْ كَالَّذِيْ مَرَّ عَلٰى قَرْيَةٍ وَّهِيَ خَاوِيَةٌ عَلٰى عُرُوْشِهَا ۚ قَالَ اَنّٰى يُحْيٖ هٰذِهِ اللّٰهُ بَعْدَ مَوْتِهَا ۚ فَاَمَاتَهُ اللّٰهُ مِائَةَ عَامٍ ثُمَّ بَعَثَهٗ ۗ قَالَ كَمْ لَبِثْتَ ۗ قَالَ لَبِثْتُ يَوْمًا

259. 황폐한 촌락을 지나는 사람을 비유들어 말하길[1]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마을을 소생시킬 것인가[2] 라고 물으니 백년전 하나님께서 그를 죽게하여 그를 다시 소생

258-1) 가나안의 자손 니모르데는 하나님의 존재에 관하여 아브라함에게 논쟁 하였다. 그 당시 국가가 번성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부터 창조주의 존재와 모든 만물의 창조성을 부인하려 함으로써 수세기를 지난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을 부정하려는 불신자들이 있음을 예시하고 있다.

259-1) 벽들이 넘어지고 지붕들이 무너져 황폐된 예루살렘의 한 촌락을 당나귀를 타고 지나던 아지-르의 질문으로 이 사건은 유대인 예언자였던 에스겔의 말라비린 뼈의 환상의 얘기거나 (에스겔 xxxvii, 1-10), 기원전 5세기의 히브리의 지도자였던 느헤미아가 황폐된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그 도시를 다시 재건하는 얘기거나(느헤미아, i. 12-20)., 유대인의 바빌론 유수이후 페르시아왕이 예루살렘으로 보낸 우제이르 또는 에스라에 관한 얘기라고도 전하여지고 있다.

2) 어떻게 그리고 언제 소생시킬 것인가?

أَوْ بَعْضَ يَوْمٍ ۖ قَالَ بَل لَّبِثْتَ مِائَةَ عَامٍ فَانظُرْ إِلَىٰ طَعَامِكَ وَشَرَابِكَ لَمْ يَتَسَنَّهْ ۖ وَانظُرْ إِلَىٰ حِمَارِكَ وَلِنَجْعَلَكَ آيَةً لِّلنَّاسِ ۖ وَانظُرْ إِلَى الْعِظَامِ كَيْفَ نُنشِزُهَا ثُمَّ نَكْسُوهَا لَحْمًا ۚ فَلَمَّا تَبَيَّنَ لَهُ ۚ قَالَ أَعْلَمُ أَنَّ اللَّهَ عَلَىٰ كُلِّ شَيْءٍ قَدِيرٌ ﴿٢٥٩﴾

시킨 후 주님께서 너는 얼마동안 체류했느뇨 라고 물으니 그 사람 말하되 하루나 반낮쯤 체류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하니 주님께서 이르시길[3] 너는 백년을 체류하였노라 하시며 너의 음식과 음료수를 바로 보라 이는 변하지 아니하였으며 너의 당나귀를 보아라 이렇듯 하나님은 그대로 하여금 인류를 위한 예증으로 하였노라 뼈들을 보라 어떻게 그 뼈들을 맞추어 그 위에 살을 부합시켰는가 라고 말씀 하시자 그는 말하길 실로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전지전능 하십니다 라고 하더라

وَإِذْ قَالَ إِبْرَاهِيمُ رَبِّ أَرِنِي كَيْفَ تُحْيِي الْمَوْتَىٰ ۖ قَالَ أَوَلَمْ تُؤْمِن ۖ قَالَ بَلَىٰ وَلَٰكِن لِّيَطْمَئِنَّ قَلْبِي ۖ قَالَ فَخُذْ أَرْبَعَةً مِّنَ الطَّيْرِ فَصُرْهُنَّ إِلَيْكَ ثُمَّ اجْعَلْ عَلَىٰ كُلِّ جَبَلٍ مِّنْهُنَّ جُزْءًا ثُمَّ ادْعُهُنَّ يَأْتِينَكَ سَعْيًا ۚ وَاعْلَمْ أَنَّ اللَّهَ عَزِيزٌ حَكِيمٌ ﴿٢٦٠﴾

260. 이때 아브라함이 강구하길 주여 죽은 자를 어떻게 소생시키나이까 이에 가로되 네가 믿지 못하겠단 말이뇨 아닙니다 그러나 제 마음이 평안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가로되 네 마리의 새를 잡아 그들을 길들여 각 언덕위에 두고서 그들을 다시 불러보라 그 새들이 서둘러 너에게로 오리라 그리하여 권능과 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되리라[1]

مَّثَلُ الَّذِينَ يُنفِقُونَ أَمْوَالَهُمْ فِي سَبِيلِ اللَّهِ كَمَثَلِ حَبَّةٍ أَنبَتَتْ سَبْعَ سَنَابِلَ فِي كُلِّ سُنۢبُلَةٍ مِّائَةُ حَبَّةٍ ۗ وَاللَّهُ يُضَاعِفُ لِمَن يَشَاءُ ۗ وَاللَّهُ وَاسِعٌ عَلِيمٌ ﴿٢٦١﴾

261. 하나님을 위해 재물을 바치는 사람은 한 알의 밀알과 같으니 이 낱알이 일곱 개의 이삭으로 번식할 것이요 매 이삭마다 백여개의 낱알로 풍성하게하여 주리라 하나님은 그 분이 원하는 자에게 몇배의 보상을 주나니 하나님은

---

3)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길.

260-1) 다른 학자는 이렇게 풀이하고 있다. : 새들을 죽여 여러 갈래로 자른 다음 머리만 손에 쥐고 있으면서 다른 날개며 발, 살등 다른 부분은 뒤섞어 각각 다른 산꼭대기에 갔다 두고서 하나님이 명령하였듯이 그것들을 부르면 날개는 날아와 날개가 되고, 피는 피가되고, 살은 살이 되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백성들이 지켜봄으로써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소생시키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시하고 있다(이브누 까씨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1]

262. 하나님을 위해서 재산을 바치되 그 재산을 뒤따르지 아니하며 모욕을 가하지 않는 자는 주님의 보상이 있으며 그들에게는 두려움도 슬픔도 없노라

اَلَّذِيْنَ يُنْفِقُوْنَ اَمْوَالَهُمْ فِىْ سَبِيْلِ اللّٰهِ ثُمَّ لَا يُتْبِعُوْنَ مَآ اَنْفَقُوْا مَنًّا وَّلَآ اَذًى ۙ لَّهُمْ اَجْرُهُمْ عِنْدَ رَبِّهِمْ ۚ وَلَا خَوْفٌ عَلَيْهِمْ وَلَا هُمْ يَحْزَنُوْنَ ﴿٢٦٢﴾

263. 겸손한 말 한마디와 관용은 마음에 괴로움을 주는 회사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며 관대하시니라

قَوْلٌ مَّعْرُوْفٌ وَّمَغْفِرَةٌ خَيْرٌ مِّنْ صَدَقَةٍ يَّتْبَعُهَآ اَذًى ۗ وَاللّٰهُ غَنِىٌّ حَلِيْمٌ ﴿٢٦٣﴾

264. 믿음을 가진 자들이여 네가 바치는 회사를 상기시키거나 모욕하여 이를 헛되게 하지 말라 이는 곧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회사를 하는 것과 같으며 이는 하나님과 심판의 날을 믿지 않는 것과 같노라 또한 그들은 매끄러운 돌과 같나니 그 위에 한줌의 흙이 덮여 있으나 폭우가 내려 그것을 쓸어가 버리고 벌거벗은 돌만 남은 것과 다를바 없도다 그리하여 그들이 얻은 것은 아무런 효용이 없으니 하나님은 믿음을 배반한 자들을 인도하지 않으시니라

يٰٓاَيُّهَا الَّذِيْنَ اٰمَنُوْا لَا تُبْطِلُوْا صَدَقٰتِكُمْ بِالْمَنِّ وَالْاَذٰى كَالَّذِىْ يُنْفِقُ مَالَهٗ رِئَآءَ النَّاسِ وَلَا يُؤْمِنُ بِاللّٰهِ وَالْيَوْمِ الْاٰخِرِ ۖ فَمَثَلُهٗ كَمَثَلِ صَفْوَانٍ عَلَيْهِ تُرَابٌ فَاَصَابَهٗ وَابِلٌ فَتَرَكَهٗ صَلْدًا ۗ لَا يَقْدِرُوْنَ عَلٰى شَىْءٍ مِّمَّا كَسَبُوْا ۗ وَاللّٰهُ لَا يَهْدِى الْقَوْمَ الْكٰفِرِيْنَ ﴿٢٦٤﴾

265.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기 위해 재산을 바치고 그들의 마음이 강직함은[1] 기름진 과수원과 같아 많은 비가 내려 곱절의 수확을 가져오도다 만일 비가 내리지 않으

وَمَثَلُ الَّذِيْنَ يُنْفِقُوْنَ اَمْوَالَهُمُ ابْتِغَآءَ مَرْضَاتِ اللّٰهِ وَتَثْبِيْتًا مِّنْ اَنْفُسِهِمْ كَمَثَلِ جَنَّةٍ ۢ بِرَبْوَةٍ اَصَابَهَا وَابِلٌ فَاٰتَتْ اُكُلَهَا ضِعْفَيْنِ ۚ فَاِنْ لَّمْ يُصِبْهَا وَابِلٌ فَطَلٌّ ۗ وَاللّٰهُ

261-1) 이것은 타북전쟁시 "우스만 이븐 아판"과 "압두 라흐만 이븐 아우프"에 관하여 계시된 말씀이다. 그곳에서 우스만은 1,000 마리의 낙타와 1,000 디나르의 돈을 선지자 양손에 놓아 드렸다. 그러자 선지자께서 거기에 입을 맞추시고 말씀하시길, "우스만이 행한 것은 오늘 이후 우스만에게 아무런 손상이 없으리"라고 하셨다. 또 "압두 라흐만 이븐 아우프"가 선지자에게 4,000 디르함을 가지고 와서 말하길, "선지자여, 저에게 8,000디르함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저와 저의 가족을 위해서 4,000 디르함을 제가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 4,000 디르함은 저의 주님을 위해서 빌려 주었습니다"라고 하자, 선지자께서는 그에게 말하길, "네가 가진것과 네가 빌려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자(하나님의 길을 위해 재물을 희사한자는 한알의 밀알과 같으니…)라고 계시가 내려졌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154).

265-1) 자선을 베풀 때 그에 대한 보상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을 때.

بِمَا تَعْمَلُونَ بَصِيرٌ ﴿٢٦٥﴾

면 가벼운 습기로 흡족시켜 주시니 하나님은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것도 알고 계시니라

أَيَوَدُّ أَحَدُكُمْ أَنْ تَكُونَ لَهُ جَنَّةٌ مِنْ نَخِيلٍ وَأَعْنَابٍ تَجْرِي مِنْ تَحْتِهَا الْأَنْهَارُ لَهُ فِيهَا مِنْ كُلِّ الثَّمَرَاتِ وَأَصَابَهُ الْكِبَرُ وَلَهُ ذُرِّيَّةٌ ضُعَفَاءُ فَأَصَابَهَا إِعْصَارٌ فِيهِ نَارٌ فَاحْتَرَقَتْ كَذَٰلِكَ يُبَيِّنُ اللَّهُ لَكُمُ الْآيَاتِ لَعَلَّكُمْ تَتَفَكَّرُونَ ﴿٢٦٦﴾

266. 너희 가운데 종려나무와 포도나무가 있고 그 밑으로 물이 흐르며 모든 종류의 열매가 열리는 과수원을 갖고 있으나 인생이 늙고 자식들이 어려 돌보지 못해 강한 폭풍우속에 휩싸여 유황불의 밥이 될 희망자가 있겠느뇨 그처럼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징후를 밝혀 너희가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시니라[1]

يَا أَيُّهَا الَّذِينَ آمَنُوا أَنْفِقُوا مِنْ طَيِّبَاتِ مَا كَسَبْتُمْ وَمِمَّا أَخْرَجْنَا لَكُمْ مِنَ الْأَرْضِ ۖ وَلَا تَيَمَّمُوا الْخَبِيثَ مِنْهُ تُنْفِقُونَ وَلَسْتُمْ بِآخِذِيهِ إِلَّا أَنْ تُغْمِضُوا فِيهِ ۚ وَاعْلَمُوا أَنَّ اللَّهَ غَنِيٌّ حَمِيدٌ ﴿٢٦٧﴾

267. 믿는자들이여 너희가 얻는 좋은 양식 가운데서[1]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땅으로부터 거두워 준 것 가운데 좋은 것들로 회사를 할 것이며 너희가 눈을 감지 않고는 받지 아니하는 나쁜 것들로 회사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은 풍요하시고 모든 찬미를 홀로 받으심을 알라

الشَّيْطَانُ يَعِدُكُمُ الْفَقْرَ وَيَأْمُرُكُمْ بِالْفَحْشَاءِ ۖ وَاللَّهُ يَعِدُكُمْ مَغْفِرَةً مِنْهُ وَفَضْلًا ۗ وَاللَّهُ وَاسِعٌ عَلِيمٌ ﴿٢٦٨﴾

268. 사탄은 빈곤으로써 너희를 위협하여 악을 행하도록 명령하나 하나님은 너희에게 용서와 은혜를 약속하였나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يُؤْتِي الْحِكْمَةَ مَنْ يَشَاءُ ۚ وَمَنْ يُؤْتَ الْحِكْمَةَ فَقَدْ أُوتِيَ خَيْرًا كَثِيرًا ۗ وَمَا يَذَّكَّرُ إِلَّا أُولُو الْأَلْبَابِ ﴿٢٦٩﴾

269. 그분은 그분의 뜻이 있는자에게 그리고 지혜를 받을 자에게 지혜를 주시니라 진실로 은혜가 넘쳐 흐르도다 그러나 이성을 가진자 외에는 그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도다

266-1) 제2장 216, 264, 265절에 이어 4번째로 언급되는 자선으로 자선은 일생을 통하여 해야 할 의무임을 제시하고 있다.

267-1) 허락된 좋은 양식 가운데서 해야 한다는 뜻으로 다음 3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좋고 유용하고 가치있는 것으로 자선을 베풀고, 둘째는 정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셋째는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에서 생산된 것 등으로 자선을 베풀어야 한다는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وَمَآ أَنفَقْتُم مِّن نَّفَقَةٍ أَوْ نَذَرْتُم مِّن نَّذْرٍ فَإِنَّ اللَّهَ يَعْلَمُهُۥ ۗ وَمَا لِلظَّٰلِمِينَ مِنْ أَنصَارٍ ﴿٢٧٠﴾

270. 너희가 자선으로 베풀었던 모든 것과 너희가 결심한 신앙심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 우매한 자 도움을 받을 길이 없도다

إِن تُبْدُوا۟ ٱلصَّدَقَٰتِ فَنِعِمَّا هِىَ ۖ وَإِن تُخْفُوهَا وَتُؤْتُوهَا ٱلْفُقَرَآءَ فَهُوَ خَيْرٌ لَّكُمْ ۚ وَيُكَفِّرُ عَنكُم مِّن سَيِّـَٔاتِكُمْ ۗ وَٱللَّهُ بِمَا تَعْمَلُونَ خَبِيرٌ ﴿٢٧١﴾

271. 너희가 자선을 공개하는 것도 좋으나[1] 남몰래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자선이 더 나으니라 이는 너희의 죄를 속죄하여 주나니 하나님은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لَيْسَ عَلَيْكَ هُدَىٰهُمْ وَلَٰكِنَّ ٱللَّهَ يَهْدِى مَن يَشَآءُ ۗ وَمَا تُنفِقُوا۟ مِنْ خَيْرٍ فَلِأَنفُسِكُمْ ۚ وَمَا تُنفِقُونَ إِلَّا ٱبْتِغَآءَ وَجْهِ ٱللَّهِ ۚ وَمَا تُنفِقُوا۟ مِنْ خَيْرٍ يُوَفَّ إِلَيْكُمْ وَأَنتُمْ لَا تُظْلَمُونَ ﴿٢٧٢﴾

272.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그대의 의무가 아니거늘 그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시니라[1] 너희가 베푼 선행은 너희 스스로를 위한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선이라 너희가 베푼 선행은 너희에게 충만하여 돌아오나니 너희는 불공평한 대접을 받지 않을 것이라

لِلْفُقَرَآءِ ٱلَّذِينَ أُحْصِرُوا۟ فِى سَبِيلِ ٱللَّهِ لَا يَسْتَطِيعُونَ ضَرْبًا فِى ٱلْأَرْضِ ۖ يَحْسَبُهُمُ ٱلْجَاهِلُ أَغْنِيَآءَ مِنَ ٱلتَّعَفُّفِ ۚ تَعْرِفُهُم بِسِيمَٰهُمْ ۖ لَا يَسْـَٔلُونَ ٱلنَّاسَ إِلْحَافًا ۗ وَمَا تُنفِقُوا۟ مِنْ خَيْرٍ فَإِنَّ ٱللَّهَ بِهِۦ عَلِيمٌ ﴿٢٧٣﴾

273. 자선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있나니 하나님을 위해 성전의 여행에 제한을 받아 일을 찾아 지상에서 움직일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있거늘 지각이 없는 사람은 그들이[1] 궁핍하지 아니하다 생각하나 이는 그들의 겸손 때문이라 너희들은 표적으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은 집요한 구걸을 하지 않노

271-1) 오른 손으로 자선을 베풀되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 했듯이 남몰래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이 더 나으나 베푼 자선을 공개하여도 된다. 이때는 그 사람의 자선을 공개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선을 베풀 수 있는 동기를 일깨워 줄 경우이다.

272-1) "싸이드 이븐 주베이르"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전하여지고 있다.
무슬림들은 "아흘루 딤마"(기독교인 및 유대인들)에게 자선(사다까)을 베풀었다. 그런데 무슬림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지자 선지자께서(너희들의 종교를 가진 형제들 외에는 자선을 베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자, (무함마드여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그대의 의무가 아니거늘 그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하시니라…, 라고 계시가 내려짐으로써 이슬람 종교외의 타종교인에게도 자선(사다까)이 허락되고 있다(2장 256절 해설참조).

273-1) 궁핍한 이들

라 너희가 베푸는 어떤 자선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라[2]

274. 언제나 밤낮으로 알게 모르게 자선을 베푸는 자들에게는 주님으로부터 보상이 있으며 두려움도 슬픔도 없노라

اَلَّذِيْنَ يُنْفِقُوْنَ اَمْوَالَهُمْ بِالَّيْلِ وَالنَّهَارِ سِرًّا وَّعَلَانِيَةً فَلَهُمْ اَجْرُهُمْ عِنْدَ رَبِّهِمْ وَلَا خَوْفٌ عَلَيْهِمْ وَلَا هُمْ يَحْزَنُوْنَ ﴿٢٧٤﴾

275. 고리대금을 취하는 자들은 악마가 스치므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어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나며 말하길 장사는 고리대금과 같도다라고 그들은 말하나 하나님께서 장사는 허락 하였으되 고리대금은 금지하셨노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고리업을 단념한 자는 지난 그의 과거가 용서될 것이며 그의 일은 하나님과 함께 하니라 그러나 고리업으로 다시 돌아가는자 그들은 불 지옥의 동반자로써 그곳에서 영주하리라[1]

اَلَّذِيْنَ يَاْكُلُوْنَ الرِّبٰوا لَا يَقُوْمُوْنَ اِلَّا كَمَا يَقُوْمُ الَّذِيْ يَتَخَبَّطُهُ الشَّيْطٰنُ مِنَ الْمَسِّ ذٰلِكَ بِاَنَّهُمْ قَالُوْٓا اِنَّمَا الْبَيْعُ مِثْلُ الرِّبٰوا وَاَحَلَّ اللّٰهُ الْبَيْعَ وَحَرَّمَ الرِّبٰوا فَمَنْ جَآءَهٗ مَوْعِظَةٌ مِّنْ رَّبِّهٖ فَانْتَهٰى فَلَهٗ مَا سَلَفَ وَاَمْرُهٗٓ اِلَى اللّٰهِ وَمَنْ عَادَ فَاُولٰٓئِكَ اَصْحٰبُ النَّارِ هُمْ فِيْهَا خٰلِدُوْنَ ﴿٢٧٥﴾

276. 하나님은 이자의 폭리로부터 모든 축복을 앗아가 자선의 행위에 더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모든 불신자들을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니라

يَمْحَقُ اللّٰهُ الرِّبٰوا وَيُرْبِي الصَّدَقٰتِ وَاللّٰهُ لَا يُحِبُّ كُلَّ كَفَّارٍ اَثِيْمٍ ﴿٢٧٦﴾

277. 믿음을 갖고 선을 행하며

اِنَّ الَّذِيْنَ اٰمَنُوْا وَعَمِلُوا الصّٰلِحٰتِ وَاَقَامُوا الصَّلٰوةَ

---

2) 소위 분별없는 자선은 오히려 악을 초래함으로써 비난을 받는다(2장 262절 참조). 진실한 자선이란 필요한 사람에게 베풀어져야 한다고 본절은 묘사하고 있다.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란 성전으로 전쟁에 나가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며 진단하는 사람, 진실한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등이 다른 부류의 사람들보다 필요하지만 그들의 겸손과 진실과 신앙 때문에 이집 저집 문전구걸을 하지 않는다. 도움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자선이 베풀어질 때 진실한 자선임을 묘사하고 있다.

275-1) 리바는 중액이란 언어적 뜻에서 고리대금, 부당이익 또는 사기성 상행위 등으로 풀이된다. 대출된 원금 외에 그 이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이자 행위도 포함된다. "리바"란 불법적인 거래 행위이다. 고리대금이 초래하는 빈익빈 부익부를 이슬람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고리대금 행위는 나태한 습성을 조장해 주며 이기적인 자기 본위로 사로 잡히게 됨으로써 공동사회의 윤리와 도덕의 질서를 문란케 하기 때문이다.(빌는자들이여, 2배 3배의 이자를 탐내지 말며,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진실로 번성하리라 : 3장 130절) 이 계시는 이슬람이 오기 이전에는 아랍인들의 관례에 따라 복식 이자로 행하여 지고 있을 때 계시된 것으로 사려된다.

وَاٰتَوُا الزَّكٰوةَ لَهُمْ اَجْرُهُمْ عِنْدَ رَبِّهِمْ ۚ وَلَا خَوْفٌ عَلَيْهِمْ وَلَا هُمْ يَحْزَنُوْنَ ﴿٢٧٧﴾

예배를 드리고 이슬람세를 바치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보상이 있으며 그들에게는 두려움도 슬픔도 없노라

يٰٓاَيُّهَا الَّذِيْنَ اٰمَنُوا اتَّقُوا اللّٰهَ وَذَرُوْا مَا بَقِيَ مِنَ الرِّبٰٓوٓا اِنْ كُنْتُمْ مُّؤْمِنِيْنَ ﴿٢٧٨﴾

278. 믿는자들이여 하나님을 공경하라 만일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면 추구하는 이자를 포기하라

فَاِنْ لَّمْ تَفْعَلُوْا فَاْذَنُوْا بِحَرْبٍ مِّنَ اللّٰهِ وَرَسُوْلِهٖ ۚ وَاِنْ تُبْتُمْ فَلَكُمْ رُءُوْسُ اَمْوَالِكُمْ ۚ لَا تَظْلِمُوْنَ وَلَا تُظْلَمُوْنَ ﴿٢٧٩﴾

279. 만일 너희가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선지자께서 너희에게 경고할 것이며 너희가 회개한다면 원금을 가질 것이니 부정을 저지르지 말 것이며 부정을 당해서도 아니 되니라[1)]

وَاِنْ كَانَ ذُوْ عُسْرَةٍ فَنَظِرَةٌ اِلٰى مَيْسَرَةٍ ۚ وَاَنْ تَصَدَّقُوْا خَيْرٌ لَّكُمْ اِنْ كُنْتُمْ تَعْلَمُوْنَ ﴿٢٨٠﴾

280. 채무자가 어려운 환경에 있다면 형편이 나아질때까지 지불을 연기하여 줄 것이며 더욱 좋은 것은 너희가 알고 있다면 그 부채를 자선으로 베풀어 주는 것이라

وَاتَّقُوْا يَوْمًا تُرْجَعُوْنَ فِيْهِ اِلَى اللّٰهِ ۗ ثُمَّ تُوَفّٰى كُلُّ نَفْسٍ مَّا كَسَبَتْ وَهُمْ لَا يُظْلَمُوْنَ ﴿٢٨١﴾

281. 하나님 곁으로 돌아갈 어느 날을 두려워 하라 모든 인간은 자기가 얻은 것으로 대가를 받게 되나니 어느 누구도 부정하게 대접받지 않을 것이라

يٰٓاَيُّهَا الَّذِيْنَ اٰمَنُوْٓا اِذَا تَدَايَنْتُمْ بِدَيْنٍ اِلٰٓى اَجَلٍ مُّسَمًّى

282. 믿는자들이여 일정기간 채무를 계약할 때는 서식으로 기록하되[1)] 양자 사이에 서기로 하여금

279-1) "아무 이븐 싸끼프"는 "무기라"에게 이자를 받기로 하고 빌려준 대여금이 있었다. 그후 일정 기간이 지나 "싸끼프"가 원금과 이자를 받으려 하자 : (믿음을 가진 자들이여 하나님을 공경하라, 만일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면 추구하는 이자를 포기할 지어다. 만일 너희가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선지자께서 너희에게 경고할 것이며, 너희가 회개한다면 자본금을 가질 것이니 부정을 저지르지 말 것이며, 부정을 당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라고 계시가 내렸다. 이때 "싸끼프"는 : "우리는 하나님과 선지자께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서 단 원금만을 받았다(알바흐르 알무히뜨 337/2).

282-1) 이 절은 다음 2가지로 요약된다. 후불거래 및 선불과 후상품인도에 관한 조항과 현금지불 및 현장인도시의 거래에 관하여 묘사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후불거래 및 선불과 후상품인도란 예를 들어, 상품은 즉시 인도하고 지불은 일정한 시기, 일정한 장소에서 장래에 지불하거나 또는 현금은 현재 지불하고 상품인도는 일정한 시기, 일정한 장소에서 장래에 이

فَاكْتُبُوهُ وَلْيَكْتُب بَّيْنَكُمْ كَاتِبٌ بِالْعَدْلِ وَلَا يَأْبَ كَاتِبٌ أَنْ
يَكْتُبَ كَمَا عَلَّمَهُ اللَّهُ فَلْيَكْتُبْ وَلْيُمْلِلِ الَّذِي عَلَيْهِ الْحَقُّ
وَلْيَتَّقِ اللَّهَ رَبَّهُ وَلَا يَبْخَسْ مِنْهُ شَيْئًا فَإِن كَانَ الَّذِي عَلَيْهِ
الْحَقُّ سَفِيهًا أَوْ ضَعِيفًا أَوْ لَا يَسْتَطِيعُ أَن يُمِلَّ هُوَ فَلْيُمْلِلْ
وَلِيُّهُ بِالْعَدْلِ وَاسْتَشْهِدُوا شَهِيدَيْنِ مِن رِّجَالِكُمْ فَإِن
لَّمْ يَكُونَا رَجُلَيْنِ فَرَجُلٌ وَامْرَأَتَانِ مِمَّن تَرْضَوْنَ مِنَ
الشُّهَدَاءِ أَن تَضِلَّ إِحْدَاهُمَا فَتُذَكِّرَ إِحْدَاهُمَا الْأُخْرَىٰ
وَلَا يَأْبَ الشُّهَدَاءُ إِذَا مَا دُعُوا وَلَا تَسْأَمُوا أَن تَكْتُبُوهُ
صَغِيرًا أَوْ كَبِيرًا إِلَىٰ أَجَلِهِ ذَٰلِكُمْ أَقْسَطُ عِندَ اللَّهِ وَأَقْوَمُ
لِلشَّهَادَةِ وَأَدْنَىٰ أَلَّا تَرْتَابُوا إِلَّا أَن تَكُونَ تِجَارَةً حَاضِرَةً
تُدِيرُونَهَا بَيْنَكُمْ فَلَيْسَ عَلَيْكُمْ جُنَاحٌ أَلَّا
تَكْتُبُوهَا وَأَشْهِدُوا إِذَا تَبَايَعْتُمْ وَلَا يُضَارَّ كَاتِبٌ
وَلَا شَهِيدٌ وَإِن تَفْعَلُوا فَإِنَّهُ فُسُوقٌ بِكُمْ
وَاتَّقُوا اللَّهَ وَيُعَلِّمُكُمُ اللَّهُ وَاللَّهُ بِكُلِّ شَيْءٍ عَلِيمٌ ﴿٢٨٢﴾

공정하게 쓰게 하라 하나님의 가르침이시니 기록하는 것을 거절해서는 안되며[2] 또한 채무를 진 사람으로 하여금 받아쓰게 할 것이며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할 것이며 두려움을 소홀리 하지 말라 그 당사자가 능력이 부족하거나 허약하여 받아 쓸 능력이 없을 경우는 그의 후원자로 하여금 공정하게 쓰게 하라 그리고 두 남자의 증인을 세울 것이며 두 남자가 없을 경우는 한 남자와 두 여자를 선택하여 증인으로 세우라[3] 한 증인이 잘못 한다면 다른 증인이 기억을 할 것이기 때문이라 증인으로 요청이 있을 때는 거절하지 말라 그 계약의 기간 또는 규모가 적던 크던 기록하는 것을 꺼려하지 말라 그것이야 말로 하나님 앞에서 보다 옳은 것이며 증거로써 보다 적합하며 너희간의 의심을 없애는 보다 편리한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즉석에서 거래하는 경우라면 기록을 하지 않아도 죄가 아니나 상업적 거래인때는 증인이 있어야 하며 증인이나 서기에서도 손해를 주지 말라 만일 손상이 있다면 너희에게 사악

이루어지는 거래를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서류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술되고 있다.
그러나 법적인 의무는 아니다. "…그것은 증거로써 보다 적합하며 너희들간의 의심을 없애는데 보다 편리한 것이니라"라고 계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현금지불 현장인도의 경우는 서류계약의 증거는 필요치 아니하나 구두증인은 보다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2) 기록하는 서기는 그 문제에 있어서 신탁을 받은자로써 도덕적 책임을 지고 양 당사자의 공정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기록하여야 하며, 그 기술의 재능은 창조주가 주신 선물로써 하나님께 봉사하는 정신으로 임하여야 한다. 특히 문맹인이나 거래 관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서기들의 임무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3) 증인으로써 2명의 남자가 없을 경우 남자 1명과 여자 2명을 증인으로 세우는 이유는, 남성은 사물이나 사건을 판별할 때 감성보다는 이성에 의존하나 여성일 경우는 이성보다는 감성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어린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엄마는 그 애의 잘못을 아버지로부터 멀리 피하게하여 줌으로써 사랑을 베풀어 준다. 이로 미루어 보아서도 어떤 사건을 진술할 때 감정이 예민한 여성일 경우는 그 환경 및 질문자의 질문을 받을 때 감성에 치우치게 된다. 그러나 2명의 여성을 증인으로 세울때는 한 여성이 감성에 치우쳐 그릇되게 진술했을 때 또 한 여성은 여성의 본성, 시기 및 질투로 인하여 허위로 진술하는 것을 부정하려는 심리가 강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함이 있도다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니라

283. 너희가 여행중이거나 서기를 발견하지 못할 경우 신탁을 하면 족하니라 서로가 신뢰 할 수 있다면 수탁자로 하여금 그의 위탁을 처리하도록 하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하라 그리고 증언을 감추지 말라 그것은 숨기는 자마다 그의 마음은[1] 죄악으로 얼룩지게 되니라 하나님은 너희들이 행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وَإِنْ كُنْتُمْ عَلَىٰ سَفَرٍ وَلَمْ تَجِدُوا كَاتِبًا فَرِهَانٌ مَقْبُوضَةٌ ۖ فَإِنْ أَمِنَ بَعْضُكُمْ بَعْضًا فَلْيُؤَدِّ الَّذِي اؤْتُمِنَ أَمَانَتَهُ وَلْيَتَّقِ اللَّهَ رَبَّهُ ۗ وَلَا تَكْتُمُوا الشَّهَادَةَ ۚ وَمَنْ يَكْتُمْهَا فَإِنَّهُ آثِمٌ قَلْبُهُ ۗ وَاللَّهُ بِمَا تَعْمَلُونَ عَلِيمٌ ﴿٢٨٣﴾

284. 하늘과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있으며 너희가 심중에 있는 것을 밝히든 혹은 숨기던 하나님은 너희들을 계산하시니라 하나님 의지에 의하여 관용을 베풀고 또한 그분의 뜻에 의하여 벌을 내리시니 하나님은 진실로 모든 일에 전지전능하심이라

لِلَّهِ مَا فِي السَّمَاوَاتِ وَمَا فِي الْأَرْضِ ۗ وَإِنْ تُبْدُوا مَا فِي أَنْفُسِكُمْ أَوْ تُخْفُوهُ يُحَاسِبْكُمْ بِهِ اللَّهُ ۖ فَيَغْفِرُ لِمَنْ يَشَاءُ وَيُعَذِّبُ مَنْ يَشَاءُ ۗ وَاللَّهُ عَلَىٰ كُلِّ شَيْءٍ قَدِيرٌ ﴿٢٨٤﴾

285. 선지자는 주님이 계시한 것을 믿으며 또한 믿음을 가진자 그러하도다[1] 그들 각자는 하나님과 천사들과 성서들과 선지자들을 믿으며 우리는 선지자들을 차별[2]하지 않도다 우리는 청취하고 복종하며 당신의 용서를 구하나이다 주여 여정의 종말을 당신에게로 돌리나이다

آمَنَ الرَّسُولُ بِمَا أُنْزِلَ إِلَيْهِ مِنْ رَبِّهِ وَالْمُؤْمِنُونَ ۚ كُلٌّ آمَنَ بِاللَّهِ وَمَلَائِكَتِهِ وَكُتُبِهِ وَرُسُلِهِ لَا نُفَرِّقُ بَيْنَ أَحَدٍ مِنْ رُسُلِهِ ۚ وَقَالُوا سَمِعْنَا وَأَطَعْنَا ۖ غُفْرَانَكَ رَبَّنَا وَإِلَيْكَ الْمَصِيرُ ﴿٢٨٥﴾

286.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탱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짐을 주지 않으시도다[1] 인간은 그가 행한 선의

لَا يُكَلِّفُ اللَّهُ نَفْسًا إِلَّا وُسْعَهَا ۚ لَهَا مَا كَسَبَتْ وَعَلَيْهَا مَا اكْتَسَبَتْ ۗ رَبَّنَا لَا تُؤَاخِذْنَا إِنْ نَسِينَا أَوْ أَخْطَأْنَا ۚ رَبَّنَا

283-1) 그것이 건전한 때 전체가 건전하며 그것이 병들 때 전체가 병드나니 그것은 바로 마음이라.

285-1)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계시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 무함마드를 확증하고 마찬가지로 믿는 신도들도 그렇게 믿고 확증하도다.
2) 유대인이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구별하여 믿음.

وَلَا تَحْمِلْ عَلَيْنَآ إِصْرًا كَمَا حَمَلْتَهُۥ عَلَى ٱلَّذِينَ مِن قَبْلِنَا ۚ رَبَّنَا وَلَا تُحَمِّلْنَا مَا لَا طَاقَةَ لَنَا بِهِۦ ۖ وَٱعْفُ عَنَّا وَٱغْفِرْ لَنَا وَٱرْحَمْنَآ ۚ أَنتَ مَوْلَىٰنَا فَٱنصُرْنَا عَلَى ٱلْقَوْمِ ٱلْكَٰفِرِينَ ﴿٢٨٦﴾

보상을 받으며 그가 저지른 악의 대가를 받으니라 주여 망각을 했거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저희를 벌주지 마옵소서 주여 저희 선조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던 것처런 저희가 짐을 짊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소서 주여 저희가 지탱할 수 있을 정도의 짐만 주소서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저희에게 축복을 주소서 당신은 저희의 보호자이시니 불신자들로부터 승리케하여 주옵소서[2)]

286-1)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그 인간이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까지 요구하지 아니하며 그 인간의 능력이 할 수 있는 것 까지만 요구하고 있다.

2) 파티하 장과 바까라 마지막 장 286절을 밤에 읽을 때 그것은 그것으로 보호를 받는다고 이브누 마쓰우드가 전하고 있으며, 무카리는 파티하와 바까라 마지막 286 절은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베풀지 아니하고 선지자 무함마드에게만 베푼 2개의 빛이라고 전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167).